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탱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 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빅맨평생통장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6월 18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131 호

내가 사미계를 받을 때 계사이신 해안 큰스님께서는 십계를 설한 다음 이렇게 결론지으셨다. "열 가지 계목을 다 잘 지켜야 하지만 그것을 한 뭉치로 묶어서 말하면 심지무비위지계(心地無非爲之戒)라는 것이다. 즉 마음에 한점 가책이 없으면 그것으로 계는 잘 지켜진 것이다."

계율은 크고 작은 여러가지 조목이 있고 수행인은 반드시 그것들을 모두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나에게 있어서는 실로 충격적인 법문이 아닐 수 없었다. 타율적인 율에 반해 계는 순전히 자율적인 것으로 양심에 비추어 어긋남이 없으면 부처님 앞에서도 떳떳하고 당당하다는 것이 아닌가.

'참회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혜 산

사람들은 허물이 있을때 여러가지 이유와 변명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자기의 양심 앞에서는 스스로 솔직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나의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볼 때 실로 부끄러움으로 가득할 뿐이다. 나는 발심당시 생사를 돈망한 용맹정진으로 조사관을 타파하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원대한 포부 하나로 입산 삭발했다. 나의 계사이고 은사이며 법사이신 해안 큰스님께서는 그런 나를 무척이나 사랑하셨고 또 고구정녕하신 가르침을 주셨다.

나는 산문 밖을 나가지 않으며 반선반농(半禪半農)의 납자 생활속에서 춥고 배고프고 고달픔도 있었지만 오직 부처님만 같은 스님의 훈도에 따라 정진에 매진하였다. 그렇게 성성한 화두일념에 몰두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스님의 따뜻한 보살핌과 엄한 교훈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스님께서 떠나신 후 이런 광계 저런 사연때문에 본분사에서 멀리 맴돌고 있었으니 이런 나의 볼꼴을 스님께서 보신다면 얼마나 실망과 걱정이 크실까! 하루에도 몇번씩 스님의 훈도를 회상하면서 지금의 나태한 나 자신을 스님앞에 무릎 꿇고 있다.

"스님! 스님의 가르침은 내 삶의 기둥입니다. 스님께서 가라시던 길을 목숨 다할때까지 기필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은 남몰래 드리는 나의 눈물 젖은 참회이며 기도이고 절규이다. 그리고 조용히 심지무비위지계를 새롭게 새겨 본다.

〈내소사 회주〉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발지부록 법공양판 4면 발행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인각사 지키자 '여론승리'

건교부, 군위댐 계획 변경…수몰위기 벗어나

〈삼국유사〉의 산실 군위 인각사(사적 374호)가 댐건설로 인한 수몰위기에서 벗어났다.

건설교통부는 3일 "군위댐의 정확한 규모와 위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사전조사시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인각사 보존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문화재관리국에 보냈다. 이것은 문화재관리국이 5월2일 · 22일 2차례에 걸쳐 건교부에 보낸 인각사관련 공문에 대한 회신이다.

문화재관리국은 이 공문에서 "인각사는 보각국사탑과 비가 보물428호로 지정되어 있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며, 이를 살리자는 국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며 문화재보호차원에서의 협조를 요청했다.

수몰위기에 처한 인각사를 살리려는 노력은 지난해 12월 주지 대원스님을 비롯 지역주민들의 댐건설반대 궐기대회로부터 시작돼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하이텔, 나우누리 등 PC통신에서는 '인각사 살리기' 대화방과 서명운동이 활발히 전개됐고, 대원스님과 관련단체들은 군위댐건설 반대특구결의안을 작성해 관계부처에 보냈다. 본지를 비롯 교계언론과 일간 · 월간지들도 인각사 보존운동에 적극 동참했다. 〈본지 104호 15면 · 129호 2면 참조〉

인각사 대원스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대한 민족문화유산인 〈삼국유사〉의 산실 인각사가 수몰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기석 기자〉



'초조본 대비파사론' 국보지정 대상

문화체육부는 지난 2월23일과 4월23일에 지정예고된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저본이 되는 성보보호재단소장 초조본 아비달마 대비파사론(初雕本 阿毗達磨 大毗婆沙論 · 사진)을 국보 지정 대상으로 결정했다. 또, 월인석보(보물745~9호)를 비롯 광덕사소장 조선시대 사경(보물1246호), 해인사 대적광전 홍치4년명 동종(보물1253호), 보림사 목조사천왕상(보물1254호) 등 총 12점을 보물로 지정했다.



녹원전법상 등 불화 2점 日서 반입

석가모니 일대기를 담은 '녹원전법상(鹿苑轉法相)' 〈사진〉 '수하항마상(樹下降魔相)' 등 조선중기로 추정되는 대형불화 2점이 일본에서 반입돼 11일 공개됐다. 공창화랑(대표 공창호)이 구입한 이 불화들(각 가로 140㎝ 세로 190㎝)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8폭으로 담은 괄상도중 6번째와 7번째 그림. 녹원전법상도는 부처님 설법의 실제적 모습을 담고 있다.

해인총림방장 법전스님 추대

교육원장에 암도스님…원로의원 7명 추천

조계종 제127회 중앙종회(의장 설정)는 9일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에 법전스님(세수 71세, 법랍 62세)을 추대하고, 원로의원으로 법전(해인사)도원(파계사) 녹원(직지사) 보성(송광사) 정천(문수암) 종산(화엄사) 청무(신륵사)스님을 추대했다. 또 교육원장에 암도스님(前포교원장)을 선출 〈관련인터뷰 3면〉했다.



◇법전스님

해인사 방장 법전스님은 지난해 10월 산중총회서 방장에 추천, 만7개월여만에 추대됐다. 스님은 26년 경북 금릉생으로 설재스님을 은사로 입산 35년 백양사 설호스님에게 사미계 48년 만공스님에게 구족계 52년 백양사승가대학을 졸업했다. 또 81년 중앙종회의장 82년 총무원장 84년 호계원장 86년 본사주지연합회 회장을 맡았다.

백양사-장성군 전남도 중재나서

장성군(군수 김흥수)의 백양사 학대행정과 관련 전남도와 국민회의가 중재에 나섰다.

전라남도 허경만 도지사는 5일 백양사주지 지선스님과 면담한 자리에서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실시한 장성군에 대한 도감사 중간보고결과 백양사 학대행정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허도지사는 "운문암앞 등산로 설치와 관광개발 계획을 취소토록 종용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실천불교승가회 청화 효림 법인 일문 스님은 10일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을 방문, 백양사건 자료를 전달하고 당차원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조총재권한대행은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들은 국민회의 불자모임 연등회 간사 조성준의원을 만나 연등회 차원의 해결을 당부했다.

이에앞서 장성군은 백양사를 비난하는 공병주씨(문화공보실 홍보계장) 기고문을 수록한 군 기관지인 '장성21C'를 2만부 발행해 3일 일제히 배포했다. 이에대해 백양사는 "가치없는 일"로 일축했다.

보리수마을 운영 '암초'

232억 부채 해결 불가능…입주자 생활苦

조계종 '60억 대출 보증' 진위여부 논란

불교실버타운 양양 보리수마을(이사장 명신스님)이 운영난으로 부도위기에 처한데다 부채채무관계와 맞물려 또다시 교계의 쟁점이 되고있다. 보리수마을은 현재 80여세대가 입주했고, 50여세대가 계약금만 낸 상태로 입주자들의 생활비 충당도 빠듯한 실정이다. 또 총 320여세대가 모두 분양돼도 2백32억원의 부채를 상환할 수 없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특히 대한부동산신탁에서 60억원이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월주스님 명의로 대출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책임한계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는 조계종 총무원이 대출시 사용된 이사장직인이 도용된 것이라며 11일 투자신탁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12일 경찰에 공문서와 인장 위조 수사를 의뢰, 사회문제화 되고있다.

이같은 사실은 조계종 127회 중앙종회에서 성문스님이 "95년 12월과 96년 1월 사회복지재단이 월주스님명의로 '토지신탁 차입금 상환계약'을 맺고 대출받은 사실"을 공개하고 "종회승인이나 여타의 절차없이 보증을 섰다"고 질의하면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월주스님은 "복지재단이사장 명의 공문은 재단의 결의없이 직인이 도용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조계종 땅 42만여평 7년간 지역개발 수용

조계종 전국사찰 토지 가운데 1백41만5백13㎡(42만7천4백28평)이 90년부터 96년까지 정부 등 공공기관에 의해 수용됐다.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수용된 토지보상금은 총 2백2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사실은 총무원이 종단보유토지 전산화작업 과정에서 밝혀졌다.

불교문화 테마여행 6월 - 부석사 · 희방사 사고 16면
특수전학교 훼불교육 '파문' 19면
시방세계 - '萬人譜' 작가 고 은 9면
佛 손타크신부 '불교예찬' 15면

불자로서의 자부심 ..... 삼보기업이 지켜갑니다.

● 삼보기업 기획 시리즈 - 고마운 분에게 불자로서의 마음을 전합시다.


관음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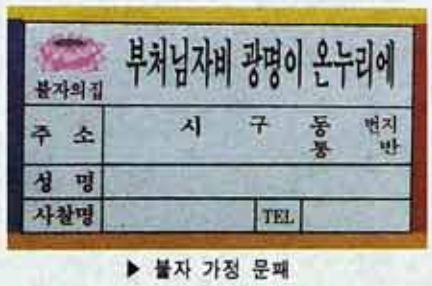

관음정사

■ 신묘장구 대다라니 액자시계 - 정가 : 3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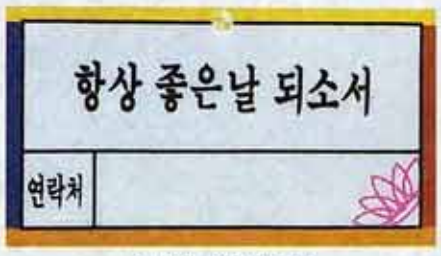
● 제품사양
크기 : 가로 40cm × 세로 40cm
재질 : 원목 사용, 무변금분 사용, 원목위에 사찰명 기재가능

원하시는 경전문구로 제작 가능 . 다량주문시 제작원가로 공급

● 불자로서의 자부심을 지켜갑시다. - 신도님들께 전하는 스님의 마음



▶ 불자 가정 문패



▶ 불자 차량 안내판


▶ 금분인쇄 옴마니 반메훔


▶ 금분인쇄 반야심경

※ 불교상품 전문 제작업체 - 정성을 다하여 성실히 하겠습니다.

삼보기업
주소 : 서울시 중구 오장동 69-2 광덕 B/D 4층
Tel. 021279-2715 Fax. 021275-3739

사 설

지자체장의 탐진치

지방자치제 실시 2주년을 맞으면서 사찰의 수행환경이 더욱 훼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선진국으로의 진입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며 정신적인 산물인 사찰과의 마찰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지역발전을 추구한다는 똑같은 목적일지라도 그 방법상 차이가 있다. 즉 지자체는 당장 경제적인 수입의 측면을 고려한 개발논리를 펴고 있는데 반해 문화유산을 보존하려는 사찰의 입장이 다른 점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뿐만아니라 지역마다 개발에 대한 행정적 관점에 차이를 보여 사찰 종무행정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것이 최근 갈등과 대립으로 첨예화된 백양사와 장성군, 그리고 마이산 탑사와 진안군이다. 그밖에도 직접적이지는 않으나 심곡사와 평택시, 봉영사와 남양주군, 금산사와 김제군 등 줄을 잇고 있다. 더구나 사찰이 반드시 포함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개발논리에 침해당하고 있는 수행환경훼손 실상까지 포함하면 상당부분에 이른다.

실제 조계종은 20일 교계서는 최초로 환경피해를 입고 있는 20여개 사찰 주지스님들의 대책위원회를 소집해 공동으로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제 더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공동의 인식으로 종단과 사찰이 연대해 지자체및 공원관리공단 등에 의해 발생되는 사찰훼손에 대해 중장기적인 대안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특히 가장 강도가 심화된 백양사와 장성군 문제는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요인을 모두 안고 있다.

지자체가 정부서 결의한 지원사업인 납골당 건립에 역행해 책정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장성군의 이같은 태도에 납골당 건립을 추진코자 했던 백양사는 어떠한 행정체계를 따라야 할지 어리둥절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군수는 개인 모텔의 주차장으로 버젓이 사찰땅을 사용하고 있고, 절땅에 관정을 설치하려고 하는 등 지자체의 행정적 위력을 악용하고 있다. 종합하면 행정체계의 모순과, 권력의 진(嗔)과 욕망의 탐(貪) 그리고 진리에 눈먼 어리석음(痴)까지도 포함된 사건이다. 이 사안은 불교계와 군민 나아가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결국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경륜과 지모도 없으면서 수익사업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마구잡이로 환경을 훼손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여기에 사찰환경도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이같은 도전에 전체 불교계가 한마음으로 대처해야 한다. 지자체들이 턱없는 개발논리로 수행환경을 훼손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전문가를 키워야 한다. 취지에 동감하고 의지는 있으되, 손발이 따라주지 않으면 실효를 기약할 수 없다. 동국대 승가대 위덕대 등 종립 교육기관에서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또한 이와 병행해 사찰은 지역활동의 명실상부한 중심이 되도록 관심과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 이와함께 주민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만행(萬行)으로 펼쳐야 한다.

백양사 문제는 현재 조계종 중앙종회와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도 종단차원으로 대처할 것을 결의했다. 실천불교승가회 등 교계 단체들이 정치권을 찾아 호소하고 있다. 또 전남도지사도 중재에 나서 장성군수에게 백양사에 사과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 2주년이 지난 마당에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문화행정을 다시 일깨우는 바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더욱 지역특색에 맞는 문화환경이 조성되기를 촉구한다.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얼룩진 군복

열린마당

고도보존특별법

경마장·골프장, 고층아파트의 건립 등 개발우선적 도시 행정으로 천년고도 경주가 위기를 맞고 있다. 고도 경주를 보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전문가들은 문화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도보존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고도보존특별법'만이 보존과 개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 '고도보존특별법'의 필요성과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그리고 외국의 사례는 어떠한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



◇수많은 유물·유적을 간직하고 있어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박물관인 경주. 개발과 보존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고도보존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경주 남산 전경.

국가차원 문화유적보존 강화 절실

장충식〈동국대 교수·고고미술사〉

경주는 경주다워야 관광객들이 찾아온다. 경마장과 골프장이 관광객들을 불러모으는 것은 아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개발요구만 추구하다보면 경주는 망한다. 경주와 같은 고도가 우리나라에 또 있는가. 경주는 보존함으로써 개발한다는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경주시민들은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로 수십년 동안 나름대로 피해를 입어와 개발관련 공청회에 가면 주민들은 문화재보존에 신경증적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피해의식이 팽배해 있다. 또 발굴 전문가와 예산부족으로 학술발굴은 드물고 각종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유물을 수습하는 수습발굴이 대부분이다. 그러한 발굴은 초읽기 발굴에 불과하니 문화재보존이란 말은 구두선(口頭禪)과 다름없다.

보존과 개발이라는, 역사도시로서의 경주의 문화재를 보호하고 또 현재 살고 있는 경주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근원적인 문화재보존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 것이다. 경주는 문화유적분포도 작성을 포함하는 총체적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인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 법의 내용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시행령이 뒤따라야 한다. 경주는 인도의 델리와 뉴델리처럼 구(舊) 도심과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로 나눠 개발해 나가야 한다. 신도시개발에서 나온 이익금은 유적보존에 환원하여 역사도시로서의 경주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유적 보호-도시 개발 서로 조화롭게

오세탁〈충북대 명예교수·法博〉

2년전, 고속철도 건설 논의가 한창일 때 우리나라 역사, 고고학관계 16개 학술단체들이 경주문화재보존에 관한 건의서를 정부에 낸 일이 있다. 그 건의서에서 '고도보존법'을 제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 고도보존법을 제정하는데 있어 참고가 되는 것은 가까운 일본의 고도보존법(원래 이름은 '고도에 있어서의 역사적 풍토보존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다. 일본의 나라나 가마꾸라 같은 곳과 우리나라의 경주, 부여는 그 입지 환경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일본법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역사적 도시풍토의 보존은 점(點)에서 부터 면(面)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문화재보호법만으로 옛시대 정치·문화 중심지의 방대한 유산을 온전히 보존하기란 역부족이다. 고도보존법은 문화재보호법이나 도시계획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갖겠지만 상호간의 조화가 있어야 하며 언젠가는 문화재보호법과 통합돼야 바람직하다.

고도보존법에서는 역사적 풍토보존지구의 지정이나 각종 규제에 있어 적법절차를 엄격히 하되 심의기관을 의결기구화하는 것이 좋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배분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또한 역사적풍토보존이 관광지화(觀光地化)로만 끌려서는 안되고 '고도보존'의 성격이 명확해야 한다. 현지 주민의 현실생활과 보존간의 조정이 있어야 주민들의 협조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시설정비에 대한 보조율의 확대라든가 심의기구에의 주민참여,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신재원의 제공이나 보상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하고, 모든 규제는 일차적으로 행정지도에 의하도록 해야한다.

경주시 꾸준히 작업…재원 확보 '걸림돌'

서용봉〈경주시 문화과 과장〉

경주시는 지난 91년 이후 정부에 '고도보존특별법' 제정을 꾸준히 건의해 왔으나 실현되지 않고 있다. 그 내용들은 △보존특별지역과 개발촉진지역의 지정 △지정지역내 주민에 대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제 혜택 △고도경주개발지원특별회계의 설치 등이다. 지난 2월 경주 경실련도 전문 24개조의 고도보존특별법 시안을 작성했다. 재원조달 등 문제가 많아 정부부처간 의견 조율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발규제에 따른 주민들의 불이익을 보상하는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문화재 발굴 보존과 전문인력 채용, 그리고 8개의 국립공원 보존 등에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다. 더욱이 고도를 경주에만 국한시키지 않을 경우 비용은 훨씬 커지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역부족이다. 최고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지자체로서는 주민들의 개발요구를 마냥 외면할 수는 없다.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고속철도경주노선 결정과정에서 보듯이 개발과 보존간의 갈등은 끝없이 전개될 것이다. 경주시는 민간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시안을 마련, 올해내로 정부에 다시 건의할 계획이다. 새로운 시안에서는 관광복권의 발행 등 재원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될 것이다.

고도보존 선진사례

선진국에서는 문화재 보호가 언제나 개발보다 앞선다. 문화유산은 그 나라의 역사이며, 그 민족의 위상은 문화유산의 질과 양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또 가꾸기에 따라 문화유산만큼 관광효과가 큰 분야는 없다.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는 기원전 8세기부터 지금까지 돌한장 새로 교체하거나 복원하지 않은 채 고도의 모습을 유지해오고 있다고 한다. 일찍부터 '로마시보존법'을 마련한 로마에는 지하철이 거의 없다. 또 제한된 차량만이 로마시가를 통행할 수 있다. 공사나 차량진동으로 인한 귀중한 문화재의 파손이 우려되서다. 대신 별도의 신도시를 건설해 개발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일본은 국민들의 높은 여론을 얻어 고도(古都) 개발에 따른 역사적 경관의 훼손 방지를 목적으로 '문화재보호법' 외에 '고도에 있어서의 역사적 풍토보존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1966년 제정, 시행해오고 있다. 과거 정치·문화의 중심지이며, 역사적으로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고도에 대해 '역사적 풍토 보존구역'을 설정, 해당 토지 이용에 대한 신고제 및 조언과 권고, 역사적 풍토보존계획 등을 입법화하고 있다.

또 그 가운데 중요한 지역은 '특별보존지구'로 따로 지정해 토지이용에 대한 허가, 해당토지 매입 등 고도의 문화유산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재, 교토시, 나라시, 가마쿠라시, 텐리시 등 6개도시가 지정돼 있으며, 내

로마 교체·복원없이 옛모습 유지

일본 6개도시 '특별보존지구' 지정

영국 개발보상법등 문화재법 20종

각 총리대신을 중심으로 한 국무성 산하의 고도보존 담당부서는 고도 개발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면, 건설성과 문부성의 의견을 조정하고, 필요할 경우 공사를 중지시키기도 한다.

영국은 '고대 건축물과 유적보존법', '문화재법', '개발보상법' 등 20여개의 문화유산보호와 관련한 법률을 마련, 사적 등 중요문화재를 특별관리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고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적은 그 환경도 중시해 '중요유적지'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사적보다 더 큰 개념으로 유적이 있는 역사도시 전체, 즉 우리의 경주, 부여와 같은 고도를 말한다.

캔터베리, 체스터, 엑스터, 헤리포드, 요크셔 등이 이에 해당한다.

비교적 역사가 짧은 미국도 눈여겨봐야 한다. 그들의 문화보존법도 매우 체계적이며 적극적이다. 1906년 '고물법(유물법)'이 제정된 이래, 1969년 건설사업시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한 '국가환경정책법'을 거쳐 1979년부터는 일정 금액을 매년 적립, 문화유산보호기금을 조성해 유물과 유적이 있는 개인소유의 땅을 구입하는 등 문화유산 보존에 사용하고 있다. 또 땅주인이 유적이 있는 토지를 기증하는 경우에는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다. 비록 짧은 역사의 미국이지만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매우 높다.

윤기석 기자

고심사 영탑원

동남향의 아늑한 보금자리
영가여, 불보살과 함께 평안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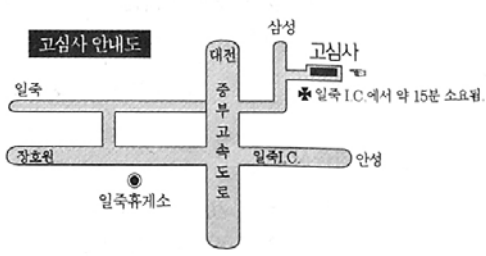
부모를 위한, 가족을 위한 영가의 안식처가 마련되었습니다

■ 영탑의 크기 : 높이 2.6m, 넓이 1.1m×1.1m ■ 봉안납골 : 가족유골 16구 봉안



영탑원이 해드리는 일

■ 장례 의식의 제반 절차와 화장 및 운구 의식 집전
■ 영탑 봉안 및 49재 등 장례 후의 의식 봉행
■ 상주와 조문객을 위한 정갈한 공양 제공
■ 매일 조석기도 봉행
■ 기제사와 백중·추석 등 주요 절기에 합동 추모기도 봉행
■ 매장을 모셨으나 이장을 원하시는 경우 파묘, 화장, 운구, 영탑 봉안 등 제반 의식 집전



사 단 법 인
한국불교대원회 고심사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양덕리 111-1 ☎ (0446)78-5408
서울사무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대보빌딩 불교방송국 2층 대원산업
☎ (02)701-6456~7 (02)701-5374~5 FAX:(02)3272-1389

"21세기 이끄는 교육 틀 마련"

조계종 새 교육원장 **암 도** 스님

수요 인터뷰

9일 조계종 제2대 교육원장에 선출된 암도 스님은 80년 조계종 중앙상임포교사를 시작으로, 85년 포교원장을 역임한 이후 20여년 동안 포교일선에서 활동했다. 또 동국대 강사와 중앙승가대 교수를 역임하는 등 교육분야에도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다. 스님은 교육원장에 취임한 직후 "배운다는 자세로 열심히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불교 백년대계를 이끌고 나갈 수장으로서의 계획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약력

▲39년 전북 고창 生 ▲55년 상원스님 은사로 백양사에서 출가 ▲64년 석암스님 계사로 범어사에서 구족계 수지 ▲72년 동국대 불교학과 졸, 3·4·5대 중앙종회의원 ▲77년 총무원 교무부장, 총무부장 ▲81년 총무원 총무부장 ▲85년 포교원장 ▲90년 중앙승가대 교수



연구풍토 조성…교직자 위상 강화
중앙연수원 건립등 재교육 활성

- 교육원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평소 종단의 생명력은 교육에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완성된 교육을 통한 부처님 가르침의 실천은 승가집단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교육원장 자리가 막중한 책임을 떠맡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할 각오입니다.

- 스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승가교육의 요체는 무엇입니까

▲올바른 승가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이념과 목적 및 목표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육이념은 간단하게 요익중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중생에게 이롭지 못한 승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육목적은 견성성불에 있습니다. 견성성불은 흔히 사회에서 말하는 참사람교육과 그 맥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20년간 포교활동을 하며 포교와 교육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포교나 교육이나 다 참사람을 만드는 일이니까요. 사회교육이 최근들어 기술교육에서 인성교육으로 전환하고 있듯이 승가교육도 이제는 심성개발에 주력해야 합니다.

- 교육원이 짧은 기간동안 많은 것을 해내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교육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승가교육령 등 현안문제들이 일선 강원의 반대에 부딪혔음에도 이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노력은 높이 평가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원을 이끌어갈 원칙을 가지고 계실텐데요

▲모든 스님들과 종도들의 여망이 교육원에 집중돼 있습니다. 올바른 승가교육체계확립만이 종단을 바로 세우고 불교의 미래를 이끄는 디딤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입종(敎育立宗)한다는 자세로 차근차근 제반문제를 풀어갈 각오입니다.

- 그렇다면 원칙에 부합하는 방법이 제시돼야 할텐데요

▲당연합니다. 현재 교육원은 기초교육, 기본교육, 전문교육, 재교육 등 네단계를 교육방법의 기본틀로 삼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여기에 적극 찬성하며, 보다 다양한 교육방법을 개발하는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우선 각급교육기관의 체계화를 이뤄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21세기 승가의 위상을 높이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승가대학의 인가를 통한 종단의 공식 교육기관화, 교직자 위상제고, 교육행정 체계화는 물론 종단의 연구풍토조성과 교수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육성 등이 해결과제입니다. 또 다종교사회인 한국사회에서 승가가 국민의 정신적 지도자로 자리할 수 있는 재교육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사업입니다.

- 상설 기초행자교육원 건립계획이 계속해 표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쉽지만은 않은것 같습니다

▲발심 출가자들에게 수행의 기초를 다져주는 기초교육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설 기초행자 교육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금년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구체적으로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또 중앙연수원 건립 역시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승려교육에 있어서 재교육이 갖는 의미는 매우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중앙연수원이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종단 중앙연수원 건립은 기초행자교육원 건립과 함께 교육원의 중요한 과제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한명우 기자

목어 — 자식농사

자식농사를 망치고 싶은 부모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도 학교폭력의 주범인 불량 소년소녀가 늘고있고, 가출소녀도 늘고있다.

무슨 대책이 없을까.

어떤 사람이 '못된 아이로 키우는 10가지 길'을 제시했다. 살생, 도둑질, 싸움, 거짓말 등 10악(惡)을 여의면 10선(善)이 되듯, '착한 아이로 키우는 10가지 길'을 뒤집어 정리했다.

①갖고 싶어하는 것은 다 주어라. 아이는 이세상 모든것이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이해하면서 자랄 것이다.

②나쁜말을 쓰면 웃어 넘겨라. 자기가 재치 있는 줄 알고 더욱 악한 말과 나쁜 생각에 깊이 빠질 것이다.

③교육도 하지말고 크면 알아서 잘 할것이라고 내버려 두어라. 교육받은 아이들에게 뒤떨어 지는것은 부모 책임이다.

④잘못을 책망치 말아라. 이 다음에 자동차를 훔쳐 사회에서 책방받게 되리라.

⑤옷·신발등을 정리해 주어라. 책임을 남에게 미루는 사람이 될 것이다.

⑥TV프로나 만화책등을 마음대로 보고 읽게하라. 마음은 쓰레기통이 될 것이다.

⑦아이들 앞에서 부부나 가족들이 자주 싸워라. 이 다음에 가정이 깨어져도 눈도 깜짝 안할 것이다.

⑧용돈을 달라는 대로 주어라. 타락의 길로 쉽게 접어들 것이다.

⑨먹고 싶다는것, 좋다고 하는것 다 사줘라. 한번이라도 거절당하면 곧 낭패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⑩남과 다투거나 대립할때 언제나 아이의 편이 되어라. 건전한 이웃이 모두 아이의 적이 될 것이다.

진각종 실상심인당 회지에 실린 '…10가지 길'를 되새겨 보는 이유는 올바른 자식사랑을 통해 밝은 사회 건강한 내일을 가꾸자는 뜻에서다.

'평생의 행복을 원한다면 다음 세대를 도와주라'는 말이 있다. 내 자식만 자식이 아니다. 모든 어른은 모든 어린이·청소년의 부모가 돼자. 영원히 사는 길이 거기 있다.

위덕대 군승선발

조계종 "의식차이" 반대
진각종 해결방안 고심

조계종이 진각종 위덕대학의 군종후보생 선발 지정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17일 위덕대 교학처장 김무생교수와 조계종 포교부장 원혜스님이 회동을 갖기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2일 현재〉

이번 회동은 조계종 포교원이 지난 2일 중앙승가대 및 국방부 군종실 관계자들과 '중앙승가대 군승후보생 지원대학 인정 추진협의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위덕대를 배제한데 대한 위덕대측의 항의에 따라 이뤄진 것. 지금까지 비교적 잠잠하던 위덕대 군승후보 선발지정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조계종은 1일 위덕대의 군승후보생 선발대학 지정을 거부한다는 기존입장에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모든 의식이 조계종과 맞지 않는 진각종 위덕대를 20년간이나 군포교를 전담해 온 조계종이 받아들이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견해다.

이는 상호 협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진각종의 의식이나 소의경전 등 많은 부분이 조계종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덕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의 거부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다.

반면 진각종은 이같은 조계종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의식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이미 조계종 방식에 맞추겠다는 입장을 여러번 전달해 더이상 명분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각종은 이를 종단 입장으로 공식표명 하지는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어쨌든 위덕대의 군승후보 선발지정문제는 한국불교를 위한 거시적 안목에서 해결돼야 한다는 여론을 감안한 두 종단의 허심탄회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우〉



◇조계종 제127회 중앙종회(의장 설정)가 9~12일까지 총무원 청사 1층 회관에서 열려 96년 결산검사 등 종무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계종 제127회 중앙종회가 회기를 하루 앞당겨 12일 전격 폐회됐다. 이번 종회는 3개월여 끌어온 96 추가결산안과 종단의 현안문제에 대해 결의했다는 점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선본사 직영사찰 해제의 건등 종단의 최대 현안에 대해서는 의견조차 개진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격렬한 논쟁이 있었던 쟁점사항은 여전히 종단의 과제로 남아있다.

조계종 127회 중앙종회 주요 질의·응답

증정스님 사임 일부의원들은 총무원 집행부의 잘못이 크게 작용됐다며 원활한 종무행정을 위해 증정스님의 참뜻을 살펴야 한다고 질의. 증정문제가 여론화된 것은 특정인이 너무 심하게 들고 나왔기 때문이고 원로회의에서 할 일인데 총무원장에 문제있다는 것은 오해라고 총무원장 답변. 증정스님이 종단현안에 대해 불만스러운 부분인 재산처분, 사면권을 종회에서 논의해 볼 일이라는 의견 대두. 그러나 구체적인 결과없이 종결됐다.

종단협 관계 "종단협의회에서 타 종단이 탈퇴하고 있는 움직임에 대해 각 종단의 원장들의 모임이니만큼 화합해서 이끌어가야 할 것 아니냐"고 질의. 이에대해 사회부장은 "종단마다 모두 종단협의 같은 대표인데 왜 조계종만 다 말아 하느냐며 불평이 높았다. 이같은 문제는 한중일 실무자회의에서 자리배정을 놓고 더욱 불거졌다. 이때부터 총무원장 스님은 소신을 갖게 됐고 부처님오신날 행사도 주도적으로 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이와관련 의원들은 "장자종단으로서 아량갖고 화합해야 한다." "종단협의회 정리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분분했으나 화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았다.

흥룡사 토지처분 흥룡사는 개혁회의 이전부터 불법 입대 및 토지매각으로 물의를 빚어왔다. 그런데 96년 2월 8일 재무부담당자가 입회했음에도 불구하고 흥룡사 토지 가운데 14만여평(감정가 5억3천여만원)을 계약하고 약정서상에 '잔금 지급전에 분할등기 완료'라고 명시한 이유에 대해 질의. 이에대해 재무부장은 19년 장기임대로 인해 사용수익권 어려웠으며 전임 주지의 불법적인 2중임대로 (주)호림이 손해배상액 약 25억 중 3억1천8백만원에 손해배상청구시 패소가능성이 높아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답변. 흥룡사토지처분과 관련 의원과 재무부측의 의견이 엇갈렸으나 대부분 재산처분에 대해 확실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조사특위 구성제안. 호법분과위원회서 진상조사키로 결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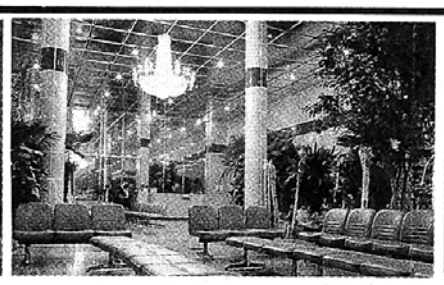
무통장 입금문제 (재)불교중앙교원 명의의 서울은행 통장에 현금 5천만원이 총무원 지원비 명목으로 입금된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 이에대해 재무부장은 재무부관리통장 아니며 입금액도 재무부로 들어오지 않았고 확인결과 전 사업부장스님의 개인통장이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답변. 이에대해 무통장 입금표를 제시한 의원들의 항의가 거세졌으나 대부분 종회의원들의 의견이 서울은행에 사실확인과 원본을 밝힐 것을 요구, 12일 서울은행 인사동지점에 확인결과 현재 폐기된 통장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본점에 원장내역 요청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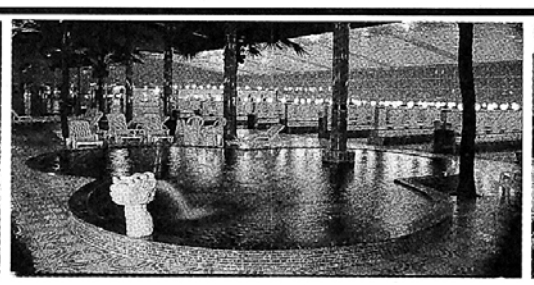
직영사찰 그동안 종회가 유회됐던 것은 '태풍의 흑'직영사찰 문제. 직영사찰 관리운영에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종회 차원의 직영사찰운영 진사조사 특위를 구성해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 이에대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은 직영사찰만 문제 있는 것 아니며 직영사찰 조사한다면 모든 사찰 다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 결국 의장단은 투표로 결정할 것을 제안, 투표결과 반대 34, 찬성 19로 부결됐다. 〈근〉

사찰재산 처분 진상규명 '결의'
직영사찰 운영특위 안건 '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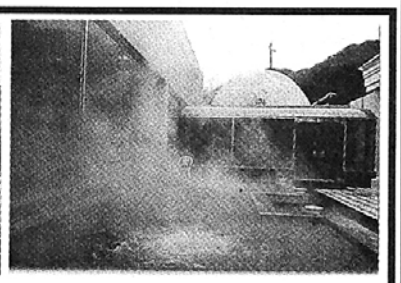
총무원 5천만원 무통장입금액 의혹남아


국내최초 실내 썬텐


아늑한 휴식공간


초대형 욕장


충분한 주차공간


노천탕



- 국내 최고의 유황천
- 국내 최대의 대형목욕장
- 불 한증막 ♨ 실내 썬텐 시설
- 황토, 고온, 한악사우나
- 신선하고 격조 높은 노천탕
- 수중 안마탕
- 초대형 냉탕 및 주차시설 완비



불 한증막 고온 사우나
황토 사우나 한방 사우나

일동 사이판
ILDONG SAIPAN

세속의 번뇌와 무명을 씻어내고 부처님을 만납시다 !!

포천 관광단지내에 위치한 「일동사이판」은 국내 최대의 전통 재래식 황토불 한증막과 황토사우나로 최고의 시설을 자랑합니다.

자연의 도량속에 위치한 전통 재래식 황토불 한증막과 황토 사우나 일동 사이판

유 황 천

국내최고의 유황천으로 수도권 북부지역의 대표적 관광지인 산정호수 백운계곡을 잇는 길목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관광과 휴양 레져를 겸해 온가족이 함께 유황천의 신비를 즐길 수 있어 좋습니다.

사찰 및 포천군 관광 안내

- 심 원 사 : 지장보살도량(동송읍)
- 도피안사 : 비로자나불(철불) 부처님이 계신곳
- 원 아 사 : 청정기도도량 0353)58-8995(상해계곡)
- ※ 철새도래지

■ 포천군 관광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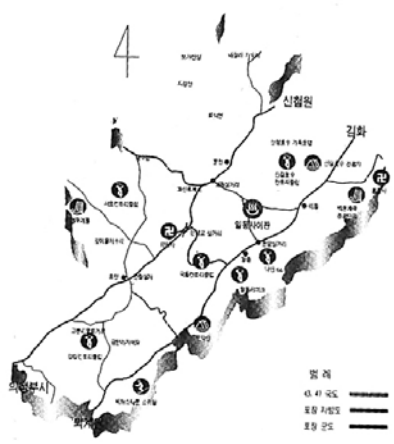
산정호수, 백운계곡, 운악산, 청계산, 관음산, 명성산, 왕방산, 국망봉, 금주산, 고석정, 재인폭포, 안보 관광지(땅굴)

신 토 불 이

강원 철원지방에서 생산되는 산나물, 봄채소, 싱싱한 과일등 향토장도 마련되었습니다.

■ 교 통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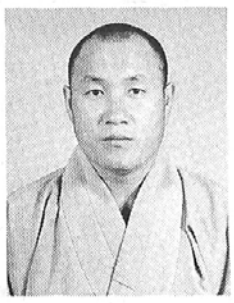
- 시외버스 : 상봉터미널,수유리시외버스터미널 일동직행버스 일동하차
- 자가운전 :43번국도(포천-3.8교-성동삼거리 우회전4Km) 47번국도(퇴계원-광릉입구-내리-일동-산정호수방면4Km)



일동 사이판
ILDONG SAIPAN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수입리 705번지
☎(0357)536-2000, 2035

"어린이 복지사업에 최선"

부산 삼광사 새 주지 덕 수 스님



"불교의 생활화와 대중화를 실현하기 위해 삼광사의 지역적 역량에 맞는 포교전략을 펴겠습니다. 33만 삼광사 신도의 뜻을 수용하면서 초발심의 수행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 삼광사 3대 주지로 취임한 덕수스님은 이같이 포부를 밝히며 어린이 복지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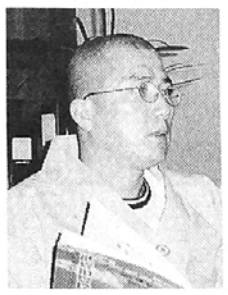
"불교가 젊어져야 한다"고 전제한 스님은 "유아, 어린이의 교육이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영가탑 건립도 원만히 회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삼광사 경내에 건립중인 영가탑은 현재 불사중인 명부전과 시기를 같이해 조성될 예정이며 2년정도의 계획으로 추진중이다.

덕수스님은 75년 총무원 교무부 서기를 시작으로 88년 총무원 교무부장과 종의회 제9·10·11대 의원, 1997년 총무원 규정부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사회문제 불교적 해법 제시"

한국불교사회硏 설립 돈 관 스님



"현대사회가 지닌 문제해결에 불교가 길잡이 역할을 해야합니다."

8일 경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한국불교사회연구원(경주시 동천동) 개원법회를 봉행한 돈관 연구원장 스님은 "불교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원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학술연구, 사회복지, 교육문화 등 3대분야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당면과제로 추진중인 사업은 납골당 건립과 학술논문집 발간. 납골당 건립은 한독지가가 안강지역의 부지 10만여평을 기증키로 해 환기를 띠고 있다. 논문집 발간은 30여명의 교수급 연구위원들이 담당한다.

연구원은 사회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세미나와 건강한 공동체사회를 위한 환경운동도 벌일 계획이다.

"2년전부터 조금씩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는 7월에는 대구와 울산지부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스님은 천천히 탄탄하게 활동영역을 넓히면서 사회복지시설 사업의 비중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원은 고문에 일타스님(은해사 조실) 이사장에 성타스님(조계종 포교원장)을 위촉했다. 개원법회에는 성타스님을 비롯 임진출 국회의원(국민회의) 이원식 경주시장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했다.

경주=이윤호 기자



벽안의 외교사절 "이뭣꼬"

Focus

주한 독일대사 클라우스 플러스(62·사진 왼쪽끝)와 문화원장 만프레드 오트(58) 부부가 6~7일 직지사에서 1박2일 단기출가를 했다. 태국대사를 역임해 소승불교에 대해 경험한 바 있는 대사는 한국에 부임하면서 대승불교의 체험을 기대해왔다고. 새벽3시 도량석, 좌선, 녹원스님에게 받은 화두 '부모미생전 진면목(父母未生前 眞面目)' 참구, 천년고찰의 뜰을 쓰는 울력, 다시 참선….

벽안의 외교사절들은 빡빡한 일정에 서툰 한국말로 "힘들어요"를 연발하면서도 잘 따라하는 민첩성에 대해 비결을 묻자 "제대로 대접받고 편해지려면 처한 곳의 규율에 순응해야지요"라며 외교관답게 조크. 이 단기출가는 김광규교수(한양대 독문학·제1회 녹원문학상 수상자)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

김천 직지사=이윤호 기자

교차로

인사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7일 기획실장에 지홍스님(낙산사 주지), 문화부장에 원학스님(조계사 부주지), 호법부장에 성관스님(전 문화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지홍스님



◇원학스님



◇성관스님

환경의 날 총리표창



성타 조계종포교원장(대자연 환경보존회 이사장)은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13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영산율원 도서관 개관



철우 파계사 영산율원장은 28일 영산율원 도서관 개관식을 봉행한다.

청도읍서 경로잔치

홍관 청도사암연합회 회장(적천사 주지)은 12일 청도읍 고수2리 노인회관에서 관내노인 2백50여명을 초청,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스님은 매달 1회 군내 노인회관을 방문해 경로잔치를 열고있다.

북한 어린이돕기 자선행사

선일 인천사암연합회 회장(부루나 포교원장)은 11일 인천 올림픽스호텔 대연회장에서 북한 어린이돕기 '유니세프 자선의 밤'을 개최했다.



모범 청소년단체에 뽑혀



도각 한국불교청년회 회장은 97년도 모범 청소년단체로 선정돼 15일 태고종 총무원 중앙불교회관에서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한국불교청년회는 참나찾기수련회, 환경가꾸기실천대회, 마음의 전화 등을 통해 청소년건전지도 육성사업에 기울여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팔순기념 논총 봉정받아



황수영 前 동국대총장은 22일 오후12시 을지로 송원에서 한국문화사학회 제자들로부터 팔순기념 논총을 봉정받는다.

재학생 美어학연수 실시



손제석 위덕대 총장은 7월초부터 4주간 자매결연대학인 미국 피쩌대학에서 22명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97학년도 하계 어학연수를 실시한다.

중앙박물관 건립위장 피선

이광로 前 서울대 교수는 10일 한국의 집에서 열린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美대학 공학현황 시찰



이재순 건국대 교수는 MIT공대·플로리다주립대 등 미국 유명 대학의 공학 연구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28일 미국으로 떠난다.

세계문학인 회의 참석



신동춘 한양대명예교수(영문학)는 13일부터 17일까지 워싱톤 타임즈 주최로 위싱톤에서 열리는 '세계 문학인회의'에 참석차 12일 도미, LA를 경유 20일 귀국한다.

법보신문 편집국장 부임



황석현 前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4일 법보신문 신임 편집국장에 임명 발령됐다.

대불청 부산지회 법회



이건국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회장은 11일 현대불교신문 부산지사 강당에서 사무국 이전기념 각 지회 합동법회를 봉행했다.

기업체 특강 '인기'



양동수법사(자비선행회 사무)는 11일 전국 근로자 대상 교육장인 한국표준협회에서 10회째 특강을 가졌다.

한 회 평균 1백명의 청강생들에게 삶의 희망을 심어주고 싶다는 그는 직장이 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곳이며, 효사상이 인생을 얼마나 실답게 하는가를 자신의 체험담을 통해 들려준다는 것. 그리고 부처님가피로 새 인생을 출발하게된 불교를 자연스레 전한다고.

(051)441-5607

"고용허가제 도입 절실"

조선족피해협 **이 영 숙** 회장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지 않는 한 우리 1만7천 조선족 사기피해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5월 17일 입국,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강당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중국 한국초청사기피해자협회 회장 이영숙씨(60).

"사기피해자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은 현행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는 것 뿐입니다. 빛을 갚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씨는 불교계가 특히 앞장서 주기를 촉구했다.

"지역화합 씨뿌릴터"

'맑고…' 光州 본부장 **박원재** 씨



"자연이 파괴되고 탐욕이 점철된 사회 속에서 자연과 사회를 이해하는데 한 개의 연꽃씨를 뿌리겠습니다."

7일 맑고향기룹게모임(회주 법정스님) 광주지역 본부장에 임명된 박원재씨((주) 영도 대표이사).

박씨는 종교의 벽, 이념의 벽, 관습의 벽을 뛰어넘는데 역점을 두고 지역사회 화합과 협력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본부 모금 현황

△봉영사 2,370,000원 △대불련 총동문회 300,000원 △대성사 거사회 170,000원 △길음복지관 60,000원 △김동욱 1,500,000원 △이연희 1,000,000원 △김민규 500,000원 △이영일 170,000원 △김종덕 100,000원 △유정선 50,000원 △임주혁 5,000원 외 12명 △밥 한 공기 나누기 운동 1,109,000원 △한 끼 굶기 운동 2,786,000원 △은행예금이자 456,381원

〈11일 현재 총 518,389,611원〉

· 후원금 접수(02)3672-5373
· 국민은행 818-21-0197-670
예금주: 최석호〈우리민족 불교운동〉

게시판

♣ 알림

능인선원 불국사 참배=능인선원(원장 지광)은 19일 오전5시30분 경주 불국사 순례법회를 떠난다. 동참비 2만5천원.

(02)577-5800

다보법회=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돈각) 6월 다보법회가 25일 오후2시 암도스님(조계종 교육원장)을 법사로 열린다.

팔만대장경 견학=(사)장경도량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스님)는 26일 해인사 팔만대장경 견학을 실시한다. 오전6시 양재역에서 출발하며 동참금은 3만원. (상업은행 169-07-077554 김미랑)

(02)3785-3787

노인 생활용품=무의탁노인과 치매노인 80여명이 생활중인 (사)성남 자광원(원장 김정자)은 노인용 운동기구 및 복사기 대형세탁기 등 생활용품을 보시받는다.(0342)759-5320

♣ 모집

사회복지교양대학=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스님)은 자원봉사 인력양성을 위한 제3기 불교사회복지교양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 '바른 부모교실' '간병봉사' '장의예식' '발반사요법' '호흡비법' 강좌가 마련된다. 접수마감은 21일까지.

(02)723-5101

부전스님·사무장=상계동 법륜왕사(주지 선혜)는 부전스님과 사무장을 초빙한다. 사무장은 컴퓨터 사용 가능자로 사무경력 있는 사람을 우대한다.

(02)934-8657

청소년지도사 연수생=(사)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스님)는 20일까지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생을 모집한다.

(02)735-8165

♣ 강좌

청소년 성교육=공창종합사회복지관(관장 심산스님)은 28일 오후5시 복지관 강당에서 바르고 건전한 사회성 개발과 영화감상을 통한 정서함양을 목적으로 청소년 성교육 및 스크린 산책을 마련한다.

(051)363-2067

건강요법=대구 자비의전화(회장 지도스님)는 20일~8월 23일 3개월간 발반사 건강요법에 관한 문화강좌를 개설한다. 회비 9만원.

(053)951-3340

이 시대의 불자가 꼭 읽어야 할 불교 입문 필독서!!

화제의 신간

일주문

일주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 부처님의 생애에서부터 기도하는 법, 업과 운명과의 관계, 불자 예절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교에 대해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 불교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배울 수 있게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 어려운 불교용어에는 자세한 설명을 곁들여 놓았고 불·보살의 모습을 싣어 이해하기 쉽게 엮어 놓았다.
- 불교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참된 삶을 살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마음의 등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신국판/ 윤지명 지음/256쪽/값 5,000원

※ 불교, 제대로 알기 — 일주문을 통해 들어가 보십시오.



이제 궁금증 뚝!!
오로지 대자유인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산문에 든 지 30여년

불교를 묻는 이에게

묵묵히 구도의 길을 걷는 선승 석원연스님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지혜와 깨달음의 이야기

나의 귀여운 딸, 민들레의 눈길은
진정한 불교의 모습에 접하고 싶어했습니다.
그것은 "팔만대장경"의 방대한 불경 속에 들어가
있는 불교가 아니고, 그리고 활개치는 승려들의
주장 속에 담겨 있는 불교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고통스러워하는 내 딸 민들레의 인생살이 속에
스며 있는 불교에 대해서 알고 싶어했습니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

신국판/석 원연 지음/374쪽/값 7,000원



※ 전국 대형 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중입니다. 지금 만나보십시오.

도서출판 대흥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8 수성빌딩 101호
전화 / 738-6270, 735-7202 FAX / 733-1016

탐방 | 영남대의료원 영불회

"환자아픔 나누는 약사여래 후예"

무의촌·복지시설 순회 의료봉사
회원 96명…불교도서실 운영도

영남대의료원 불교신행회(이하 영불회·회장 강복수 의대학장)는 환자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약사여래의 후예들이다.

지난 94년 10월 진각스님(입적)을 지도법사로 1백8명의 회원이 모여 출발한 영불회의 현 회원수는 96명. 지난해 노사분규를 겪으면서 130여명에 달하던 회원수는 격감했다. 큰 아픔을 몸소 겪었던 회원들은 참회와 화합으로 병을 치유했다.

회원들은 년2회의 사찰수련대회와 년4~6회의 성지순례를 통해 유대관계를 돈독히 한다. 창립기념법회에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한다. 참석자 전원에게는 불서와 염주등 기념품을 나눠준다.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해 운영중인 불교서적 대출서가는 약수터 역할을 하고 있다.

'타인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라는 불교의 동체대비심을 실천하고 있는 회원들은 환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리를 체득해나간다고 입을 모은다. 이러한 신심이 통해서일까? 지난해 2월 해인사 중암에 주석중인 중화스님이 불상을 증정했다. 전체적인 균형미가 빼어난 석조좌불은 갓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팔공산 갓바위 부처님을 꽤 닮았다.

회원들에게는 하나의 숙원불사가 있다. 자체법당을 갖는 것이 바로 그것. 종교실이 있으나 타종교와 일주일에 이틀씩 나누어 사용중이어서 불편을 겪고 있다. 불상을 모실 수가 없어 다른 사찰에 가서 법회를 연다. 수술전후의 기도 공간으로서도 법당은 절실하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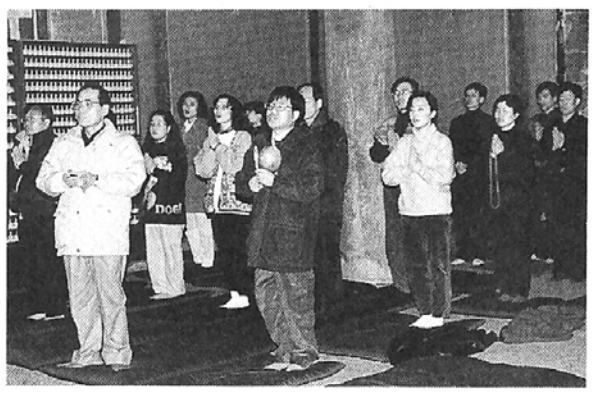
영불회는 얼마전 큰 도반을 하나 얻었다. 경북대병원 불교법우회가 지난 4일 창립된 것. 앞으로 야외법회등 교류법회를 자주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영불회는 오는 8월 예천 연꽃마을에 대한 의료봉사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무의촌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의료봉사에도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올 부처님오신날에 의료원 현관에 연등 50여개를 달았더니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환자 만족 우리 보람'이 좌우명인 셈입니다."

강복수회장의 말처럼 영불회는 오늘도 의봉(醫通)을 열어가고 있다.

대구=이윤호 기자



◇지난해 겨울 법주사에서 열린 수련법회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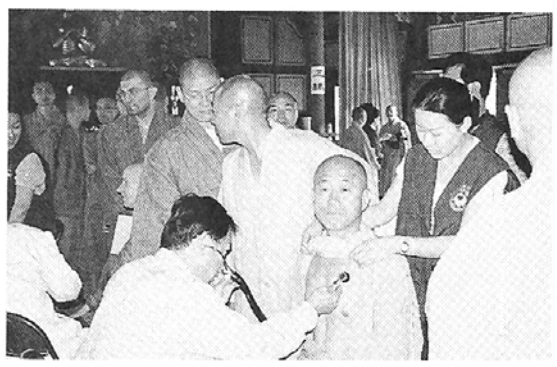
송광사서 무료진료

감로심장회

(사)감로심장회(이사장 권한대행 보운스님)는 6일 순천 송광사에서 무료검진을 실시했다.

경상대학교 부속병원 흉부외과 이상호박사 외 5명의 의사와 간호사, 봉사진들이 참여한 이날 검진에는 송광사 선방 스님과 지역주민 등 2백여명이 건강상담을 했다.

감로심장회는 당뇨 및 간기능검사를 통해 발견된 유소견자에게는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무료 치료해 줄 계획이다.



양로원 도배봉사

BBS 통신원불자회

BBS교통통신원불자운전기사회(대표 전경남) 회원 30여명은 9일 파주 관음대비양로원(이사장 임조스님)을 방문, 새로 보수하는 대법당과 노인들의 숙소 1백여평에 대한 도배봉사를 펼쳤다.

교통통신원불자회는 무사고기원 염주 달아주기, 사랑의 손잡기 장애인 체육대회, 양로원 방문 등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펼치고 있다.





하나로포럼 회원 40여명

해인사 선정수행

하나로포럼선정회(회장 고준환·경기대교수)는 6일 해인사 원당암에서 '선정문화실천'이라는 주제로 4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6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선(禪)이란 무엇인가' 좌선방법 등에 대한 각안스님(해인사 원당암 원주)의 지도로 시작됐다. 이튿날 도량송이 원당암을 조용히 깨우는 가운데 회원들은 결가부좌 반가부좌를 틀고 앉아 혜암스님(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이 주신 '이 뭣꼬' 화두참구에 정진의 열을 올렸다. 수행의 결연함에 각안스님의 장군죽비가 제 구실을 못할 정도.

혜암스님은 회원들의 정진에 앞서 "불법을 구함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주인공을 찾는 것"이라며 "깨달음을 얻기 전, 즉 주인공을 찾기 전에는 자유가 없다"고 말했다.

해인사=도필선 기자

우리 모임에선

불심회 '정도실천법회'

서울특별시불심회(회장 조정붕 시청 민원조사담당관)는 18일 오후 7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파사현정의 정도실천을 위한 대법회'를 거행한다. 조계사 주지 현근스님의 법문과 불자가수 송춘희법사(백련장학회 회장)의 축가로 진행.

서울시불심회의 지도법사는 조계종 총무부장 혜창, 동방불교대 부학장 종연스님.

경북대병원 법우회 창립

'경북대학교 병원 및 치·의과대학 불교법우회'(회장 정상립 교수)는 4일 경대병원 7층 임상강당에서 동화사 부주지 태일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봉행. 경대병원법우회는 매월 정기법회와 부정기적인 야외법회를 통해 교리를 익히면서 무료진료활동도 펼칠 예정.

대구경불련 생활불교 강좌

대구경실련불교시민회(회장 강인성 진양산업 대표)는 20일 대구 수성구 상동 반야사에서 '부처님의 생애'를 주제로 생활불교강좌를 연다. 강의는 수행위원장 법상스님이 맡는다. 대구경불련은 7월까지 매주 첫째주 수요일, 셋째주 금요일에 시민대상의 생활불교강좌를 진행중. (053)353-1597

새연등회 사무국 개설

새정치국민회의연등회(회장 박상규부총재)와 당내 불교특별위원회(위원장 조성준의원)는 최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742호 조성준의원실에 사무국을 개설, 상근 사무국장에 오도선씨(30)를 임명했다.

오도선씨는 지난 91년 대학생불교연합회 제29년차 회장을 역임했다. (02)788-2013

불기협 큰일꾼 체육대회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하춘생)는 21일 낮 12시 동국대 대운동장에서 제2회 불교계 큰일꾼 체육대회를 연다. 불교출판협의회 회원들과 불교방송·불교TV 직원들이 함께 축구, 발야구, 혼성계주 등의 게임을 펼친다.

불기협은 한편 14~15일 제주도 성지순례를 갖고 불교자비원을 위문방문, 제주도 일원 사찰을 참배했다.

연화회 '어린이 알뜰시장' 20일 창립 16돌 기념법회

종립 은석초등학교(교장 이무열) 어머니회인 연화회(회장 한상옥)는 26~28일 학교 교정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알뜰시장을 마련한다. 교복을 포함한 옷과 장난감, 참고서, 악기, 스포츠용품 등을 물물교환 형식으로 맞바꾸게 되는 알뜰시장은 학생들에게 환경보존·절약정신을 일깨우게 된다.

한편 연화회는 이에앞서 20일 오전 10시 교내 연화법당에서 조계종 포교원장 성타스님을 법사로 창립 16주년기념 법회를 갖는다.

바로잡습니다

지난호(130호) 9면 '핸드폰 시티맨' 사진은 광고사진이 아니라 석선암스님의 작품사진 '참선'입니다. 선암스님께 사과드립니다.



종교인 평화회의 '종교와 문화' 세미나

한국의 종교문화를 이해하고 사회적 수용을 증진하기 위해 한국종교인평화회의(회장 김몽은)가 '종교와 문화'를 주제로 12·13일 양일간 세종문화회관(서울)과 파라다이스호텔(도고)에서 '97 종교지도자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는 송월주 조계종 총무원장, 고건 국무총리, 송태호 문화체육부장관,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등 7대종단 종교지도자 150여명이 참가했다.



영암 대종사 열반10주기 추모

조계종 봉은사(주지 무상)는 11일 대웅전에서 '영암당 임성 대종사 열반 10주기 추모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석주(칠보사 조실)·성수(법수선원 조실)·도견(영암스님문도회 대표) 조계종 원로의원, 도원(파계사 조실), 지관(가산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 월운(봉선사 회주), 지하(중앙승가대학 총장), 전국비구니회 회장 광우스님과 유발상좌, 유족 등 사부대중 1천5백여명이 참석했다.



주한인도대사 동국대에 도서기증

동국대학교 송석구총장은 9일 총장실에서 사샹크 주한인도대사의 예방을 받고 철학서 등 9권의 서적을 기증받았다.

송총장은 사샹크대사에게 불교종립대학으로서의 동국대의 역할과 발전상을 소개하면서 인도 네루대학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할 방침을 밝혔으며, 사샹크대사 역시 적극 후원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이 자리에는 정병조 부총장, 오국근 교육대학원장, 한·인도협회 임덕규회장이 배석했다.



금융결제원 불교회 창립법회

금융결제원불교회(회장 조화제 정보시시템부 부부장)는 5일 강남포교원에서 창립회원 19명을 포함, 전국금융단불교연합회 회원들과 한국은행불교회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가졌다.

이날 증명법사로 참석한 성열스님(강남포교원장)은 법문을 통해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주체적인 삶, 모범적인 삶, 성공적인 삶을 사는 불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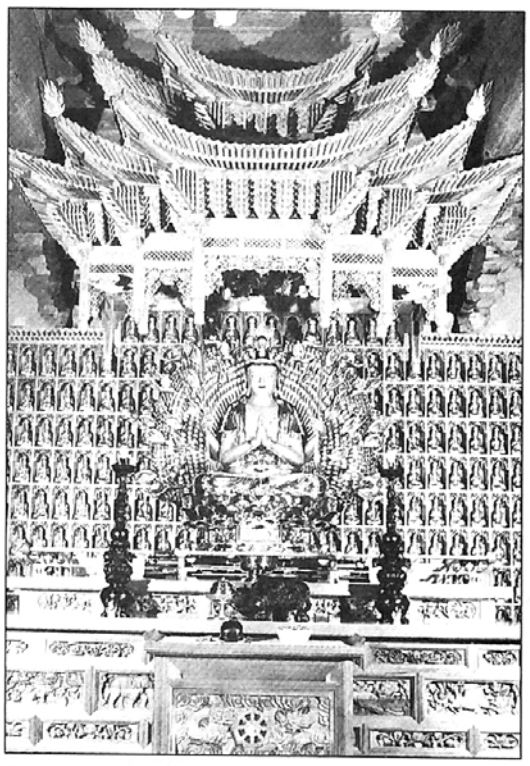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닫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본 조각원의 소불은 금속 합금이 아닌 99.9% 청동으로 조성합니다」



불사의전당 불교조각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TEL: (02)738-8447~8

대표 이진형 합장

법회안내

고령산 도솔암(0348)942-7703



◇주지 성조스님

인등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10분
장엄 등법 회 매월15일(음) 오전10시10분
산신기도 매월15일(음) 오전10시10분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30분
산신재 매년 3월16일(음) 철야정진
산신재 매년 9월16일(음) 철야정진

유달산 달성사(0631)44-1489



◇주지 법정스님

초하루기도 매월1일(음) 오전10시30분
초삼일기도 매월3일(음) 오전10시30분(대흥사 주지 천운스님 법문)
영가천도법회 매월15일(음) 오전10시30분
유마회법회 매월18일(음) 오후7시
어린이법회 매주일요일 오전10시30분

평택 명법사(0333)655-3215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1시
청년부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6시30분
거사림법회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오전10시
합창단법회 매주화·목요일오전11시
신도회법회 매월1·15·24일(음) 오전10시
산중기도 매월1~3일(음) 오후2시
지장기도 매월18일(음) 오전6시
부처님경전 천자문 매주 일요일 낮12시
수지침강좌 매주 수요일 오전10시
꽃꽂이 강좌 매주 화요일 오전10시

보문사(02)928-3797

보리회법회 매월3일(양) 오전10시
합창단법회 매주 금요일 오후1시
청년회법회 매주 목요일 오후7시30분
중고생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2시
연화어린이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인등법회 매월15일(음) 오전10시
지장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법회 매월24일(음) 오전10시

흥천사(0654)445-3769

신중기도 매월1~3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법회 매월24일 오전10시
가족법회 매월 둘째주 일요일 오전9시30분
청년법회 매월 둘째주일요일 오후3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화생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1시30분

대구 보리원(053)582-7611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2시
가족법회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오전11시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주지스님(대표)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이렇게 들었다

폭력 생명 해치면 지옥苦 못면해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시위와 관련, 지난 2일 유지웅상경이 사망에 이른데 이어 4일 경찰프락치로 오인받은 이석씨가 학생들의 폭행으로 숨졌다. 같은 날 은혜요양원장 유모씨 등 3명은 장애인 요양원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체를 화장시켜 검찰에 구속됐다.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한 폭력적 수단의 합리화, 아무런 방어력을 가지지 못한 약자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은 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사회악이다. 어떠한 미물(微物)에 대해서도 폭력을 반대하는 불교의 평화사상을 경전에서 들어본다. 〈편집자 주〉

▨모든 것은 폭력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 이치를 자기 몸에 견주어 남을 죽이거나 죽게 하지 말라. 모든 생명은 안락을 바라는데 폭력으로 이들을 해치는 자는 자신의 안락을 구할지라도 뒷세상의 안락을 얻지 못한다. 〈법구경〉

▨여러 마리 짐승들을 잡아매어 죽이거나 괴롭게 하며, 하인이나 머슴들은 매질로 다스려 그들을 슬피 울부짖게 한다. 나는 이러한 것을 칭찬하지 않는다. 그것은 큰 죄악이기 때문이다. 〈잡아함경〉

▨불자들은 칼이나 몽둥이, 활, 화살, 창, 도끼 등 싸우는 기구를 마련해 두지 말라. 그물이나 올가미나 덫과 같이 산 것을 잡는 기구도 마련해 두어서는 안된다. 보살은 자기 부모를 죽인 사람에게도 원수를 갚지 않는데 하물며 아무 죄도 없는 중생을 죽여서 되겠느냐. 〈범망경〉

▨선은 선을 가져오고 악은 악을 부른다는 인과를 믿지 않으며, 존경할 만한 사람을 살해하고 상해하며 수행승들 사이에 싸움을 불러일으키고, 부모 형제 친척들을 살상하기까지 하는 자는 반드시 지옥고를 받게 된다. 〈무량수경〉

▨마땅히 성내지 말라. 누가 네게 성내어도 성냄으로 갚지 말라. 악에 대해서 악한 마음 내지 말고 마땅히 교만한 마음을 없애야 한다. 성내지 않고 해치지 않으면 마땅히 성인이라 부를 수 있다. 악하고 죄되는 성내는 이 스스로를 묶는다. 울화가 치밀어도 쉽게 참기란 달리는 마차를 다루는 것 같다. 〈잡아함경〉

▨만일 성내는 마음을 죽이면 편안히 누워 잠잘 수 있고 남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 성내는 마음은 악의 뿌리이니, 그것을 죽이는 이를 나는 칭찬한다. 〈잡아함경〉

▨너희들은 서로 싸우지 말라. 만일 말로서 옳고 그름을 가리려 하면 한 평생을 싸워도 끝날 날이 없을리라. 오직 참는 것만이 진실로 말싸움을 끝낼 수 있나니 이러한 가르침이야말로 존귀하다 하리라. 〈중이함경〉

▨대중이 흩어지는 것을 보거든 능히 화합하게 하며, 남의 착한 일을 나타내 주고 남의 허물은 숨겨 주며, 남의 부끄러워 할 것을 선포하지 말고 남의 비밀을 듣거든 발설하지 말며, 적은 은혜를 자기에게 준 자가 있거든 크게 갚기를 생각하고, 자기에게 원망을 하는 자에겐 항상 선심을 내며 원친(怨親)이 똑같이 괴로워하거든 먼저 원망하는 자를 구원하며, 꾸짖는 자나 와서 때리는 사람을 보거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며, 모든 중생을 보되 부모와 같이 하라. 〈우바새계경〉

신행수첩

조계사 백고좌 발심법회

조계사(주지 현근)는 19일(음력 5월 보름)부터 1백일간 제5회 백고좌 발심 대법회를 봉행한다. 백고좌법회는 신라시대 부터 전해오는데 백분의 고승대덕에게 백일동안 법문을 듣는 특별법회. 신라시대 이 법회가 열릴 때는 반드시 불상과 보살상, 나한상을 각각 1백개씩 모시는 한편 1백명의 법사를 청하여 강경토록 했다.

조계사 백고좌 발심법회에는 수산(불갑사 조실), 상묵(전등사 회주),태응(불교텔레비전 이사장), 자광(김용사 주지)스님 등 덕높은 스님들이 법사로 법문한다.

'空의 지혜' 금강경 강의

한국사상연구회(회장 김익수)는 일반인을 위한 동양고전강좌를 개설, 〈금강경〉을 강의한다. 〈금강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유통되고 있는 대표적 불경으로, 공(空)한 지혜(空慧)로써 그 근본을 삼고 일체법무아(一切法無我)의 이치를 요지로 삼고 있다. 또 공의 사상을 설명하면서도 경전 중에서 '공'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쓰여지지 않은 것이 특징.

매주 금요일 저녁6시부터 7시30분까지 김해인씨(전 문교부 편수관리관)의 강의로 한국사상연구원 학당에서 열린다. (02)465-7488

신라불교 발상지 답사

신라(해동)불교의 뿌리는 어딜까? 현재도 그 흔적은 남아 있을까?

천리안 문화유산답사동호회는 신라불교의 초전지로 알려져 있는 구미·선산지역의 문화유적지를 찾아 떠나는 특별답사를 28~29일(1박2일)에 걸쳐 마련한다.

아도화상이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해동불교의 발상지 도리사를 비롯 특이한 모양을 보이는 죽장동 5층석탑(국보130호), 낙산동3층석탑(보물469호)과 해평동석조여래좌상(보물492호)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회비는 4만원. (0546)470-2244

운강석굴등 성지순례

배달겨레의 정기가 서린 곳 백두산을 거쳐 중국불교의 숨결이 묻어나는 성지를 찾아가는 여행. 불교TV(대표이사 태응스님)는 7월25일 백두산과 북경을 돌아 보는 성지순례에 오른다.

7박8일 일정으로 떠나는 이번 성지순례는 백두산 두만강 광제사 벽운사와불사 운강석굴 불광사 오대산 만불각 현통사 등을 돌아본다. 참가비는 1백15만원이며 30명이 한팀으로 짜여져 쾌적하게 순례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 (02)3270-2471

불교 목판화교실 열어

광주불교교육원(원장 영조스님)은 19일부터 7월25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불교 목판화교실을 개설한다. 김영만(불교목판화가)씨의 강의로 진행될 이번 강좌는 목판화 이론에서 실제작업까지의 과정을 교육할 예정.

불교 목판화 강좌를 통해 스스로 목판화 창작과 감상을 할 수 있는 능력배양의 기회가 된다. (062)228-9098

호국영령추모 그림대회

호국보훈의 달 6월, 그 의미를 되새기는 '새싹들의 그림잔치'가 마련된다. 공창종합사회복지관(관장 심산) 주최, 부산지방보훈청 후원으로 21일 부산 금곡동 체육공원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다.

참가한 어린이들이 나라사랑과 호국선열의 충정을 배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051)363-2063

사명대사 호국얼 판소리로 되새기자

21日 동숭동 문예회관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여!" 자녀들에게는 호국의 가르침을, 어른들에게는 그 옛날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상기시키는 판소리 공연이 열린다. 21일 토요일 오후 3시, 7시 두차례에 걸쳐 동숭동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는 판소리 '사명대사 일대기'는 판소리계의 원로 용담 이용배 거사(66)가 올 문화유산의 해와 이 거사의 판소리 입문 50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공연이다. 한국불교의 맥을 이은 훌륭한 선승이면서 임진왜란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명대사의 드라마틱한 생애는 그동안 소설로, 영화로, 연극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판소리로 공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통 무형문화재인 판소리의 구성진 가락에 실린 사명대사의 감동 깊은 일대기를 온가족이나 도반들끼리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보내는 각별한 의미의 행사가 될 것이다. (02)732-1522, 737-0695, 736-3782



◇명창 이용배씨의 일본공연 모습.

나의 수행일기



이 하 전

"유서 쓰며 헌신한 군포교"

초창기 '법당건립' 위해 10만km 탁발

부처님께 귀의하여 새로운 삶의 목표로 삼고,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바쳤던 젊음의 열정.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1977년부터 군승으로 해군에 투신 군장병의 불자화를 이루기 위해 19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지난 1995년 소령으로 예편을 했다. 그리고 지금은 육해공군 군승단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조직적인 군포교를 위해 세워진 사단법인 군불교진흥회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이래저래 부처님 말씀을 국군 장병들에게 전하기 위해 모든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남이 보기에는 보잘것 없을지도 모르나 내 나름대로는 정성을 다해 열심히 일을 했다. 현역 군법사로 있었던 19년동안 이룬 불사만 해도 군법당 6동, 일주문·요사채 건립 4동, 개금불사 5건, 단청 및 범종불사 4건 등이니 거의 매년 불사를 이루기 위해 노심초사 했던 것이다.



지금도 군포교를 위한 시설이나 지원이 열악하여 여러 현역 법사들이 충분히 활동하고 있지 못하지만, 70년대 말 처음 군법사로 부임할 때 상황은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설법을 할 수 있는 군법사들이 태부족이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법회를 보고 싶어도 법당이나 불구 등 제대로 갖추어진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다. 특히 육군에 비해서 해군이나 공군의 형편은 더욱 심각했다. 상황이 그러하니 장병들과 법회를 보고, 교화에 시간을 보내는 것 보다는 그러한 여건을 만드는 불사를 이루는 것이 더욱 시급한 과제였다.

불사를 이루기 위한 예산이 제대로 지원되는 것도 아니었다. 거의 대부분의 불사금을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스님이나 불자들에게 시주토록 해야 했으며, 그래도 부족하면 건축을 담당한 곳에 사정을 해 건축비를 줄였다. 또 그래도 모자라는 비용은 집안의 돈을 끌어대든가 결국은 개인 빚이 되어 나중에도 그 빚을 청산하기 위해 고생을 하게 된다.

군법사로 활동하던 초창기 목포에 있는 해군 부대에 해광사라는 법당을 건립한 적이 있다. 그 당시만 해도 스님들은 해군은 진해에 있는 것이지 무슨 목포에 해군이 있느냐고 했다. 그러니 해군 법당을 건립할 시주금을 흔쾌히 내려하지 들 않았다. 오로지 의지할 곳은 부처님밖에 안계시고, 무턱대고 권선문을 한 권 마련하여 가슴에 안고는 군용지프차로 6개월간 전라남·북의 모든 사찰을 방문했다. 당시에 돌아다닌 거리가 10만km이니,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120번을 왕복한 거리였다. 그래도 법당을 지을 예산은 채워지지 않았다.

생각다 못해 비장한 각오로 유서를 썼다. "명색이 군법사인데 부처님을 모시고, 그 가르침을 전할 법당 하나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니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부처님의 은덕을 갚지도 못하고 방도가 없어 이제 죽을 각오를 하니 만약 내가 죽은후 보험이나 연금이 나오면 그 간 시주를 받은 돈과 합하여 부처님을 모실 법당을 하나 지어주었으면 구천에서라도 감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유서 내용을 현재 목포 보현정사에 계신 정각스님께서 어떻게 아시고는 놀라서 바로 달려오셨다. 그리고는 직접 군법당건립추진위원장을 자임하시고는 서둘러 주셨다. 그 덕분에 불사를 완성할 수 있다.

마지막 불사는 해병대 사령부 법당인 쌍룡사 건립이었다. 10개월동안 맨땅에 텐트를 치고 숙식을 하며 불사를 이루다보니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몸에 중병이 들었다. 결국 이때 얻은 병 때문에 통합병원에 입원하여 전역하게 되었고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지만 후회는 없다.

〈군불교진흥회 사무국장〉

제 1 회

인 도 불 교 성 지 순 례 수 련 대 회

■ 장 소 : 인도 바라나시 한국사원 녹야원
■ 참가대상 : 불교도와 불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중·고·대학생 우선)
■ 출 발 일 : 제 1차 7/22~8/02 제 2차 8/05~8/16 제 3차 8/26~9/06 제 4차 9/13~9/23
■ 동 참 금 : 일반 및 대학생 ₩1,299,000 학 생 ₩1,249,000(중·고등학생)
※ 단, 제4차의 경우 ₩1,349,000
■ 모집인원 : 선착순 32명(1회당)
■ 신청접수 : 참가신청서 및 신청금(1인당 ₩200,000)
국 민 은 행 023-21-0597-848 예금주 유감순(보광명)
■ 준 비 물 : 세면도구, 필기구, 1인당 쌀 1되 (성지구간 요리사 동행 한정식 제공)
■ 문 의 처 : 서 울 TEL (02)738-5781(직) (02)738-1303(대) FAX (02)737-7797 E-MAIL : kwj @uriel. net
부산불교신도회 TEL (051)463-1408 FAX (051)441-6992

● 수련대회 일정표 ●

일자	행 선 지	일 정	초 빙 강 사
1	서울/델리	뉴델리 도착	
2	델리/바라나시	입제식 및 초전법륜탑 참배	녹야원 주지 도웅스님
3	바라나시	룸빗사나의 입문 인도 불교의 역사(인도 불교 철학 교수) 인도 민속 고전무용단 공연 인도인과의 대화	Ven.Guru Dhammo 인도스님 Prof.r.s.Tripathi 바라나시 고전 무용단 유명 인사 다수
4	바라나시	겐지스강 가트순례 인도 불교의 현황 요가강좌 및 실습 티벳 불교 입문 인도 고전 음악 연주회	녹야원주지 도웅스님 Ven.Sasan Lasmi 인도스님 Mr.Yogi 요가전문가 Ven.Lobsang Norbo 티벳스님 바라나시 고전 음악단
5	바라나시/보드가야	부처님 성도지 마하보디 대탑 참배 및 108배	불교성지 전문인 동행
6	보드가야	에불 및 참선(성도의 배경과 의의) 전정각산 순례	
7	보드가야/파트나	법화경의 성지 라지기르 영취산, 죽림정사 순례	
8	파트나/쿠시나가르	유마경의 성지 바이샬리, 부처님열반지, 다비터, 최후설법지 순례	
9	쿠시나가르/룸비니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 동산 순례	
10	룸비니/스라바스티	카필라바스투, 기원정사, 앙굴라마라 동굴 순례	
11	스라바스티/델리	델리 부처님 전신사리 친견 및 문화 유적 순례	
12	델리/서울	서울도착	

주 최 : 녹 야 원 (한국사원)
후 원 : 부산불교신도회, 에어인디아항공
주 관 : 성지순례 사업단

'97 삼화불교대학 학생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인 원 00명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불 교 학 과	2년	•주간 •야간	•고등학교 및 동등 이상 학력자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통 •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5매	•조계종 승려 포교사(타종 승려·포교사도 가능)
	4년	•통신		
유아교육과(유아 포교과)	2년	•주간 •통신		
중 국 어 과	2년	•주간 •야간		
불 교 미 술 과	2년	•주간		
신문방송과(불교보도과)	2년	•주간 •통신		

2. 학교연혁

1989. 7. 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본교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증 취득
91. 3 전문부 주간·야간 2년제 개설
91. 8 본교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 유아교사 2급 119명 자격 취득
93. 2 제2회 졸업생 배출
93. 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 8 본교 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4.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95.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 8 중국남경중의약대학 분교체결
95. 11 본교학생 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6.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0명 취득
96. 2 제5회 졸업생 배출
96. 11 본교학생36명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7. 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0명 취득예정(위탁교육 수료후)
97. 2 제6회 졸업생 배출 예정

3. 특전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법사 자격증·불교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시를 거쳐)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7년 7월 18일까지**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우편 당일소인 유효)

5. 원서교부 및 문의처

본교 교학과 : 511-2026~8
본교 수행도량 해인사 : 953-2782~4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511-2026~8, 511-1080)

삼 화 불 교 대 학
우편번호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전화 : 511-2026 팩스 : 511-1080

불자 세상보기

대만 핵폐기물 7월 북한행
해상사고땐 한반도 전해역 오염

대만핵폐기물의 북한반입이 빠르면 7월중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운동연합은 9일 주한 대만대표부와 그린피스 아시아지부 등과 접촉한 결과, 대만전력공사가 북한으로 보낼 핵발전소 폐기물의 첫 선적작업은 7월쯤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지난 4월 한국해양연구소 남수용 장경일 박사팀은 "대만 핵폐기물을 북한으로 운반할 선박이 해상사고로 좌초해 핵폐기물이 유출될 경우 3개월내에 한반도 모든 해역이 방사능에 오염될 것이며, 5개월이면 중국과 일본 해역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의 의뢰를 받아 클레이(CLAY) 수퍼컴퓨터에 동북아 일원의 10년간 해류 동향을 입력, '동북이 해류 확산모델'을 만들어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남박사는 "대만 핵폐기물이 북한으로 운송되는 도중 사고발생 가능성은 적지만 핵물질 운송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며 "사고가능성이 1만분의 1이라 하더라도 한번 사고가 나면 동북아 전해역이 수백년간 죽음의 바다로 전락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1950년 이후 지난해까지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이 선박이나 항공기로 핵물질을 운반하다가 사고를 낸 사례는 20여건에 달한다.

봉사정신 좀먹은 공직자 비리

아파트 부정당첨자 강력처벌 여론
양구군청 친절 대민서비스 '세상 살맛'

경기도 용인수지지구 아파트 분양과 관련, 3백38명의 부정당첨자 가운데 34명의 공직자가 끼어 있다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또다시 국민들을 절망에 빠뜨렸다. 더구나 위장전입을 적발해야 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등이 자신의 주소지에 외부인의 주민등록을 전입시키는 수법으로 위장전입을 알선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감사원은 8일 용인수지지구 아파트에 공직자 34명을 포함한 3백38가구가 위장전입해 부정당첨됐다고 밝히고 이들의 당첨취소와 해당 공직자의 인사조치를 용인시와 소속기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경기 양주·고양시·수원 영통지구 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국세청은 용인수지지구 아파트 부정당첨자 및 위장전입자 2천여명에 대해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공직자가 자칫 청렴성을 잃어버릴 경우 그 피해는 곧바로 국민에게 돌아온다. 이같은 점에서 위장전입 공직자와 위장전입을 방조한 공무원에게는 그 이상의 처벌이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 사회에 질서가 서지 않는다는 여론이다.

반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가장 친절한 자치단체로 선정된 양구군청 직원들의 대민서비스는 이번 사건과 극명한 대비를 보여준다. 상조민원서비스반을 비롯 1년 내내 벽지를 순회하며 농기계와 가전제품을 수리해주는 이동민원해결반도 군부대와 합동으로 운영, 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올 12월 대선이 공무원들의 또다른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각종 선거때마다 공무원들이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리거나 심지어 법정으로까지 비화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불신을 가져오는 요인이었기 때문이다. 마침 내무부는 10일 대선을 앞두고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2백56개항의 '행위기준'을 마련해 자치단체에 시달했다. 감시는 국민들의 몫이다.

정성운 기자



◇내무부는 10일 국정현안설명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에 공직자들의 대선행위 기준을 시달했다. 회의에 앞서 단체장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있다.

"직위막론 법따라 업무수행"

불교의 눈 불교의 이념으로 나라를 다스린 아쇼카왕은 매우 구체적으로 공직자의 준법정신을 일깨우고 있다. "관리들은 직위를 막론하고 모두 법에 따라 업무를 바르게 수행하고 범법하기 쉬운 자들을 일깨워주어야 한다. 법에 의한 보호, 법에 의한 처리, 법에 의해 안락을 주는 것, 법에 의해 언어와 행동을 삼가하는 것, 이것이 관리가 준수해야 할 규칙이다." 〈아쇼카왕 석주소칙〉

경불련 임영래총무국장은 "공무원의 범죄는 직무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국민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고 "공무원범죄의 구조화를 막기 위해서도 당첨취소와 함께 법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민들의 자발적인 시정감시활동의 활성화가 시급히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지계 — 금주 — 파계

신도시주부 육아조합 추진

●…일산신도시 거주 주부들이 공동육아조합 결성에 나섰다. 조합발기인 30여명은 14일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합설립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공동육아조합은 조합원들이 경비를 부담해 탁아 및 육아시설을 설립한다. 이같은 움직임은 신도시지역에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씨름선수 염원준씨 심장병돕기

●…프로씨름 염원준선수는 14일 남원에서 열리는 97남원장사대회부터 개인전 단체전을 포함, 1승을 거둘 때마다 1만원씩을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로 기부키로 했다. 염선수는 11월 중순 그동안 모아진 금액을 한국심장재단에 1차로 전달할 계획이다.

빙그레-진주 인력교환 지원

●…아이스크림 제조업체인 빙그레와 소시지 생산공장인 (주)진주는 최근 자사의 일용근로자 30여명을 필요한 시기에 서로 지원키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이번주부터 진주 소속 근로자들이 여름철을 맞아 공장가동률이 높아진 빙그레에 파견근무를 한다. 근로자들도 소속회사의 급여외에 수입을 올릴 수 있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7개 국립대학 학생교류

●…안동대학교는 2학기부터 7개 지역 국립대학간 학과(부)정원 10%내에서 학생교류를 실시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안동대와 강릉대 공주대 군산대 목포대 순천대 창원대 등 7개 대학간 35학점 범위내 취득학점이 인정된다.

쓰레기 처리 신기술 도입

●…쓰레기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의 1/50까지 줄일 수 있는 쓰레기처리 신기술이 국내에 도입됐다. (주)기산은 스위스 서모셀렉트사와 '고온열분해 융용시스템' 도입계약을 완료, 국내 쓰레기처리 재활용사업에 본격 진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방송 교재·강사 비리

●…교육방송원(EBS) 간부들이 방송교재 출판업자와 교재집필자로부터 거액의 사례비를 챙겨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는 6일 이와관련 출판업자로부터 8천여만원을 받은 EBS 허만운 부원장을 비롯한 간부3명을 구속했다. 또 PD, 출판업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적발

●…감사원은 10일 서울시 등 5개 시·도의 복지시설 83개에 대한 운영실태 감사결과 보조금·기부금을 원장등이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결과 경주시 모 고아원등 8개 복지시설에서 원장과 총무등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보조금 1억6천만원을 횡령했다.

히로뽕 사범 하룻새 14명 검거

●…부산경찰청은 9일밤 히로뽕사범 단속에 나서 하룻밤새 14명을 검거했다. 부산지검에 따르면 관내 히로뽕사범은 90년대 들어 해마다 평균 44%씩 증가했으며, 10~20대 등 젊은층 투약자도 21.4%(96년)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고소·무고 급증세

●…서울지검이 10일 발표한 '서울지검 접수 고소사건 발생추이'에 따르면 96년 고소사건은 19만4천8백49건으로 92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인구비례로 볼때 일본의 1백24배에 달하는 수치다. 무고사범도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석달간 무고사범 48명을 입건, 지난해 같은 기간 19건에 비해 2.4배가 늘었다.

가짜 경기미 납품 업체 조사

●…서울지검은 11일 쌀 잡곡 등을 유명백화점에 납품하고 있는 양곡유통업체들이 원산지를 허위로 조작, 납품하고 있다는 혐의를 잡고 4개 업체 대표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 업체들은 품질이 낮은 쌀을 경기미로 조작, 백화점 등에 납품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시론

인성교육 언제쯤…

새벽이면 우리집에 우유배달을 하는 아주머니가 있다. 자신의 남편이 안정된 모 직장의 간부라고 해서 궁금해진 나는 왜 우유배달을 하느냐고 물어보았다.

"웬걸요. 자식들 한달 과외비가 우리집 한달 생활비보다 더 드는 걸요"하는 것이었다.

생활비보다 많은 과외비

과외열풍에 휩쓸리지 말라며 나는 그녀에게 나의 실상을 다소 교조적으로 말해주었다. 교육자인 남편은 하나 있는 외아들이 공부에 별 취미를 보이지 않자 기술자로 만들려 했으나 아이가 뒤늦게 스스로 깨달았음인지 그 흔한 과외 한번 안하고 교육방송을 듣고 대학에 들어갔다고 했다. 재수끝에 서울 변두리 잘 안 알려진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지금도 과외를 하지 않는 것에 아직까지도 아이는 군말이 없다고 말해주었다.



노 향 림 〈시인〉

우유배달 아주머니와 이런 대화가 오고 간 다음날이었던가. 교육부 산하 출연기관인 한국교육방송원 간부들이 방송교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비리가 드러났다. 학원이나 학교의 일선교사들도 뇌물을 받았다고 한다. 그 녹을 먹은 사람들이 속속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턱없이 턱 턱 돈을 받은 교육자나 국민의 의식을 첨단으로 끌며 자식을 가진 이땅의 부모들을 돈 안들게 하려고 방송을 한 방송관계자들은 누구일까. 또 쇼핑백에 거액의 돈을 넣어 건넨 사람들은 누구일까.

검은 돈 비자금로비에 시달릴대로 시달린 국민에게 다시 한번 추하고 처참한 꼴을 보여주는 꼴이다. 이런 때 적절한 용어가 있다면 막막하다는 말밖에 없다. 곧바로 나 혼자라는 의식이 오고 고독할 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는 어울려서 더불어 살아야 하고 다가올 세대도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한다.

공동체의식을 이야기하는 교육현장에서 부정한 돈을 먹은 교육자가 도덕교육을 시키는 것은 얼마나 참담한 처지이고 이율배반적인가. 상상도 못할 엉뚱한 비리여서 비애감마저 든다.

교육열 제 일위의 나라여서 교육에 관한 한 요즘 대권주자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한다. 교육대통령이니, 교육혁명이니, 교육백년대계니 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사들을 늘어놓는다. 과외열풍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해서 그 대안으로 나선 교육방송이 위성과외란 말로 방송을 대신해주는 것까진 좋았는데 그곳까지 비리가 끼어들었음을 알았을 때 우리의 고정관념은 깨어지고 말았다.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나 누구를 위한 교육일까 하고 말이다.

대선주자 자제들은 과외를 하지 않은 줄 알았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위정자들은 이제 서민쪽으로 완전히 내려와주길 비는 마음이 강해서일까. 그들 모두가 투명한 상태로 놓여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어떤 대선주자는 5공정부 때 써먹었던 졸업정원제를 다시 들먹인다. 선심(?)용으로 써먹었던 당시를 생각해 보라. 입학은 쉽게 해서 졸업은 엄격히 한다는 취지 아래 많은 입학생들을 받은 학교들이 그 취지를 유야무야시킨채 모두 졸업시키고 만 것이었다. 졸업정원제가 되어도 그 전철을 밟을 것이 뻔하다.

교육비리가 없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보다도 더 중요한 참 교육을 위해 합리적이고 떳떳한 공개토론을 해서라도 중지를 모아야 한다. 합리를 가장한 이기주의, 정의로움을 가장한 증오가 판을 치는 세태에서 나만을 생각하고 눈앞의 현실만 들여다 보는 어른들. 그런 기성세대가 있는 한 다가오는 세대에게 인성교육을 시킬 자격조차 없어지고 만다. 차라리 대학정원을 현재처럼 묶거나 줄인다면? 학벌 폐지론을 주장한 몇 몇 재벌들이 말로만 그렇게 포장하지 말고 내용 면에서 실제로 대학졸업생과 고졸생과의 임금 격차가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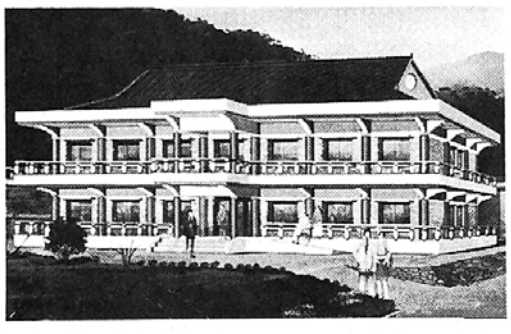
교육비리 뿌리뽑는 기회

그곳뿐 아니라 모든 교육현장에서 비리라는 뿌리는 발본색원이 되도록 엄정관리하는 기관을 만들거나 제도를 서둘러야 한다. 그리하여 서둘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모두 마음의 깊은 자국을 지우며 함께 한마음으로 일어서야 한다.

수험생이라면 너무 벌벌 떠는 학부모들이 언제 집에서 인성교육을 시킬 것인가. 혹은 대학, 대학하는 입시 위주의 교육현장에서 언제 인성교육이 이뤄질 것인가 그것이 더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말이다.

● 법륜사 대중처소 입주 안내문 ●

지혜와 소원성취는 부처님 도량에서



삼보귀의 하소서!

금번 법륜사 대중 수행처가 완공단계에 이르러 연법에 닫는 불자 및 년로하신 분과 고시 준비생을 입주시켜 기도,불경,좌선을 통해 자신뿐 아니라 가족 및 사회에 지혜의 등불이 되옵고 삶에 지치고 사랑,믿음,좌절,배신,분노 얼키고 썰킨 인간사의 병든 마음과 육근을 이곳 가야산과 지리산이 합쳐진 산수수려한 민대산 법륜사 대중처소에 오셔서 청정한 마음 열으소서!

아담한 현대식과 한옥이 어울린 최대의 설계로서 욕탕, 휴게실, 독서실 및 자체농사로 무공해 음식을 제공하며 가족이 함께 심신을 맑게 하시도록 비구니 스님께서 행으로써 다함께 지혜와 마음 거울을 닦아 성불합시다!

법륜사 대중처소 내용별 구분 안내란				
남·녀 총인원	65명	※ 자격 및 년령 제한 없습니다!		
방 1실 인원	1명	※ 小실	※ 일생 수양하실분 가능함	※ 小,中,大 방의 분담금에 관한 것은 궁의처로 하십시오.
방 1실 인원	2명	※ 中실	※ 년령이 많으신분 우선	
방 1실 인원	3명	※ 大실		
고시 준비생	약간명	시험을 앞둔 고시생 선착순위		
문 의 처	본사) 합 천 법륜사 : (0543)955-1379			
	마산) 법륜사 포교원 : (0551)21-8775			

※ 빠른시일에 접수마감되오니 미리 접수 바랍니다!
※ 입양 접수일 : 1997년 5월 15 ~ 6월 31까지 (선착순 마감)

주 지 : 김 운 봉, 총무스님 : 손 자 혜

고 문 : 이 기 우
회 장 : 이 경 자 합 장
회 주 : 최 복 남

"참사람 수행결사"

고불총림 백양사 참선 수행 법회

불기 2541년 제 1회 "참사람 수행결사" 수련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일 정 표

처수	기 간	모집인원	신청마감	연령	대상
1처	7월21일(월)~25일(금) (4박 5일)	50명	6월20일~7월10일	19세~50세	일반인

모집요강

- A4 용지에 우측 양식대로 기재한 참가 신청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십시오.
- 동참금은 7만원입니다.
- "참사람 수행결사"에 동참하게 되면 이시대 최고의 선지식이신 서옹 큰스님으로부터 화두와 참선지도를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별도의 참가신청서는 없으며, 아래의 기재사항을 A4 용지에 빠짐없이 기재한 후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

1. 이 름	(한 글) (한 자)	2. 주민등록 번 호	
3. 주 소	(주 소) (우편번호)	4. 직 업	
5. 전화번호	(자택) (직장)	6. 종 교	
7. 수련법회 경험 유·무 (수련법회 경험이 있으면 년도, 수련법회 참가사찰명 기재)			
9. 참가하고자하는 이유(상세하게 기재)			

* 팩스(FAX)로 신청하실때는 접수후 꼭 전화 확인바랍니다.

■ 문의처 : 전 화 (0685)92-7502(오전7시~오후6시까지만 가능) FAX (0685)92-2081
■ 접수처 : (우)515-850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 고불총림 백양사 참사람 결사 수련원

대한불교조계종 제 18교구 본사 고불총림 백 양 사 주지 지선

한 형 조

무문관 탐방

⑩

조주의 바릿대

趙州因僧問, 某甲乍入叢林, 乞師指示. 州云, 喫粥了也未. 僧云, 喫粥了也. 州云, 洗鉢盂去. 其僧有悟. 無門曰, 趙州開口見膽, 露出心肝. 者僧聽事不眞, 喚鐘作甕. 雖曰, 只爲分明極, 蒜令所得遲. 早知燈是火, 飯熟已多時.

*어떤 승려가 조주에게 물었다. "제가 수행 총림(叢林)에 들어온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스님께 가르침을 청합니다." 조주가 말했다. "아침 죽은 먹었는가." "예, 먹었습니다." 조주가 말했다. "그럼, 바릿대를 씻어야지."

*나 혜개가 말한다. "조주가 입을 열어 쓸개를 내보이고, 심장과 간을 몽땅 드러냈다. 그런데 이 승려는 알아듣지 못하고서 종(鐘)을 항아리(甕)라 하고 있다."

*송하여 가로되, 너무도 분명해서, 오히려 깨닫기 더디다. 등잔이 곧 불인 줄 알았던들, 밥에는 벌써 뜸이 들었을텐데.



옛날 중국에 한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다. 해가 저물어 밥을 지으려고 보니 솥가마에 불씨가 없었다. 등불을 들고 십리밖 이웃에 불을 구하러 갔다. 이웃은 불씨를 건네주다 말했다. "이 사람아, 들고 있는 등불을 두고 어째 이리 먼길을 왔는가." 등잔이 곧 불인 줄 알았더라면 우리는 지금쯤 식구들과 둘러앉아 맛있는 저녁을 들고 있을 것이다. 〈화엄경〉 입법계품(入法界品)에는 세상의 온갖 스승들을 찾아 길을 나선 선재(善才)의 구도기가 실려 있다. 부처와 나한뿐만 아니라 거지와 창녀에게까지 삶의 진실을 구하던 그에게 마침내 진리의 보살이 현신한다. 놀랍게도, 그곳은 자신이 처음 길을 떠났던 바로 그 자리였다.

서양에도 비슷한 모티브가 있다. 메테를링크의 파랑새 이야기.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길을 떠난 사람이 세상의 온갖 풍파와 신산(辛酸)을 겪은 다음, 지치고 쇠잔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복의 파랑새가 바로 자기집 뜰의 나무가지 위에서 금빛으로 울고 있지 않은가.

선은 말한다. 진리는 너와 아주 가까이 있다. 너무 가까워 오히려 그것을 깨닫기가 어렵다(只爲分明極, 蒜令所得遲).

"죽은 먹었느냐?" 밥을 먹는 행위가 어째서 공양(供養)이라는 성사(聖事)로 불리는지 생각해본 사람이 있는가. 조주는 그 단순하고 심상한 물음 속에 진리의 심장과 간담을 남김없이 담아보였다. 그런데 학인은 그 소식을 깨닫지 못한다. 그저 "아침 죽이야 먹었지요. 그런데 진리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라고 눈을 멀뚱거린다. 종을 두고서는 항아리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다. 갈피 못잡는 학인에게 조주는 다시 한번 노파심(老婆心)의 속을 뒤집어 보인다. "그럼, 가서 바릿대를 씻어야지." 그때서야 그 스님은 얼핏 짚이는 바가 있었다. 조주가 지금 일대사인연을 벽력처럼 설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것이다.

조주 종풍의 특징은 그 일상성에 있다. 방거사의 표어대로 '물을 긷고 섶을 져내는 그곳'이 다름아닌 신통(神通)이고 묘용(妙用)이다. 가고 오고 앉고 누움, 밥을 먹고 일하고 잠자는 바로 그 일상의 행위 속에 진정한 도가 숨쉬고 있다. 조주가 도(道)가 무엇이냐고 묻자, 스승 남전(南泉)은 지체없이 '평상심(平常心)이 곧 도(道)'라고 일렀다. 그럽 참 쉬울게 아니냐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그 가르침은 우리를 막막한 공간 속으로 밀어넣는다. 어떻게 일상과 평상의 마음으로 '들어선단' 말인가. 현사(玄沙)여, 대체 무슨 수로 저 졸졸대는 물소리 속으로 들어가라 하는가. 남전은 말한다. "들어갈 곳은 없다. 들어가야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이미 화살은 서역을 넘었다."

한 승려가 어느 대덕(大德)에게 물었다. "스님께서는 어떻게 도(道)를 닦고 계십니까." "밥 먹고 잠 자지." "에이, 그거야 아무나 하는 일 아닙니까. 말씀대로라면 누구나 다 도를 닦는다 하겠군요."

일상속에 道가 숨쉬고 있는데…

"죽은 먹었는가…그럼 바릿대를 씻어야지"

"그렇지 않네. 보통 사람들은 밥 먹을 때 밥은 안 먹고 이런저런 번뇌에 시달리고 있고, 잘 때 잠들지는 않고 온갖 망상에 가위눌리고 있지." 번뇌와 망상이 사라질 때 그곳의 광풍제월(光風霽月)이 풍류처(風流處)다. 그밖에 아무런 기특한 일도 없다. 선은 알고 보면 참 싱거운 것이다.

참고삼아 용어 한 둘을 짚어본다.

총림(叢林)은 '총총히 빽빽한 숲'이란 뜻. 산스크리트 빈디야바나(vindhyavana)의 의역으로 수행자들이 나무숲처럼 모여 있는 도량을 가리킨다.

바릿대는 밥그릇을 말한다. 발우(鉢盂)는 산스크리트 파아트라(patra)의 음역이다.

세존께서는 철저한 무소유를 강조하시면서 수행자들로 하여금 이 그릇 하나와, 옷(가사) 한 벌, 머리를 밀 삭도, 그리고 마실 물에 혹 떠 있을지도 모를 벌레를 걸러낼 도구 하나만을 허용하셨다.

그리고 한 자리에 머물면 원치 않는 집착이 생길까봐 한곳에 사흘을 머물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음식은 철저히 탁발에 의존하게 했다. 빌어먹는 일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탐욕과 집착의 소멸을 증거하는 위대한 수행, 즉 브라마차리야(brahmacarya)였던 것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法數로 배우는 불교

〈20〉

사성제 (上)



◇현정 作 '자기를 바르게 보면…'

부처님이 설한 네가지 성스런 진리

고 생로병사 등 갖가지 괴로움
집 고통의 원인 갈애와 무명

부처님 재세시에 기바카라는 이름을 가진 유명한 의사가 있었다.

의술이 매우 뛰어나서 의왕이라는 호칭을 받을 정도였다. 부처님께 귀의한 후로는 부처님과 제자들의 건강을 도맡아 돌보면서 한편으로는 부처님의 위대한 심을 늘 찬탄하고 가르침을 받았다. 기바카는 자신을 보고 사람들이 훌륭한 의사라고 칭찬을 하면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이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의왕은 부처님이라고 말하였다. 자신은 기껏해야 사람의 몸을 고치는 의사일 뿐이지만 부처님은 모든 중생의 나고 죽음의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양의라고 대답하였다. 기바카의 말처럼 부처님은 지혜로써 모든 존재의 병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약을 처방해 주신 분이다.

특히 불교교리중 가장 대표적인 교설이라고 알려진 사성제(四聖諦)의 가르침을 보면 부처님이 의사와 같은 진단과 처방으로 중생들의 병을 치료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성제란 네가지 고귀하고 성스러운 진리라는 말이다. "모든 동물의 발자국이 코끼리의 발자국안에 들어갈 수 있듯이 모든 가르침은 사성제 안에 수렴된다"는 〈중아함경〉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사성제의 진리가 가장 성스럽다"는 〈법구경〉의 말씀은 불교교리 가운데 사성제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 준다.

사성제의 첫째는 모든 존재는 고통스럽다는 전제부터 출발한다. 이것을 고성제(苦聖諦)라 하는데 이는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내건 진단의 결과이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고해(苦海)라고 할 만큼 중생들로부터 고통을 발견하시고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여덟가지를 꼽으셨다. 태어나는 고통, 늙는 고통, 죽는 고통, 사랑하는 것과 헤어져야 하는 고통, 싫어하는 것과 만나야 되는 고통, 다섯가지로 이루어진 몸과 마음의 치성한 작용으로 인한 고통이 그것이다. 사성제가 이렇게 고통이라는 사실로부터 출발하는 까닭은 세상과 인생을 싫어하는 염세적 시각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중생들 자신의 문제로써 제기하고 어찌하면 좋을지를 알려준 다음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이다. 부처님의 중생에 대한 관심은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데 관심이 있듯 고통을 여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같은 고통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을 고집성제(苦集聖諦)라 한다(줄여서 집성제).

집성제는 환자에게 병이 생긴 이유가 있듯 모든 중생이 생·로·병·사 등의 온갖 고통을 받는데는 그에 따른 근본적인 까닭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훌륭한 의사이신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고통을 진찰하신 결과 두가지 원인 때문이었음을 아셨다. 그것이 바로 갈애와 무명이다. 여기서 갈애는 욕망, 무명은 어리석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 둘 가운데 무명은 갈애보다 훨씬 더 뿌리깊은 병으로 고통의 근본이 된다. 엄밀히 말한다면 무명으로 인하여 갈애가 있게 되었고 갈애로 인하여 생·로·병·사·우비고뇌(憂悲苦惱) 등의 갖가지 고통이 있게 됐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생이 일체는 고통이라는 현실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무명의 타파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누구든지 무명을 끊지 못하고 갈애를 계속 일으키는 한은 반복되는 윤회와 고통의 흐름으로부터 결코 떠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런 갈애를 소멸하고 무명을 타파하는 일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설혹 부처님이나 신을 향해 정성을 올리고 기도를 아무리 정성껏 했다해도 그 마음의 욕망을 쉬지 못하는 한은 고통은 끝내 쉬지 않는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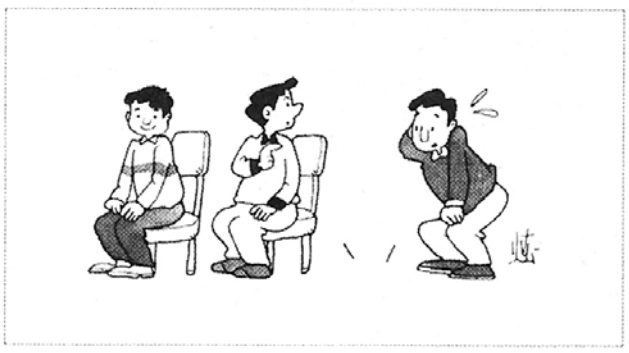
이 제 열 〈유마선원장〉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⑱

불교와 수학 ⑬

불교와 무한 ②

김 용 운



불교는 무수억 인연 직관으로 파악

최근 필자는 BBC방송이 제작한 '식물 세계'를 보면서 수십 시간을 1초로 단축하여 식물의 성장 상태를 보여주는 화면에 큰 감명을 받았다. 냉물은 마치 살아 있는 문어발처럼 순간마다 뻗어 나가고 잎사귀가 돋아나자 금방 꽃이 피고 진다. 식물의 일생이 그야말로 일장춘몽으로 시작되고 끝나고 다음 세대에 이어져 있다. 제행무상(諸行無相)의 의미를 이 필림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광속도로 1억 광년에 걸치는 지름을 갖는 거대한 성운도 한 장의 우주 지도에 그려질 때는 한낱 점에 불과하다. 현대 과학의 발달은 제행무상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불교 철학에서는 일찍이 이 사실을 직관적으로 파악했다.

여러 부처님을 공양함에 있어서 한끼(一食) 사이에 모두 무량(無量), 무수억(無數億)의 여러 부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면 정각(正覺)을 얻지 못한다. 〈무량 수경〉

여러 부처님에 대한 공양, 곧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나의 존재를 가능케 한 수조 광년의 시간·공간의 무게를 자각하는 일이다. 그것은 잠깐의 시간(일식 사이)에 엄청난 인연에서 얽힘을 깨닫고 시간으로는 순간, 공간으로서는 점의 의미를 알아차리는 작업이다.

이 순간 나를 에워싸고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한 인연의 얽힘은 무수억의 생명 의지의 결과임에 틀림없다. 무엇으로도 이 무서운 인연을 헤아릴 수 없을 것이며 그 무게에 압도당할 것만 같다. 하지만 불자는 용기를 가지고 이 진리를 응시하며 순간마다 스스로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하겠다.

지난 주 본란에서 근대 수학의 무한에 대한 이해는 "무한이란 부분과 같을 수 있는 것"이며 불교적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과 상통함을 설명했었다. 개념의 겉보기는 수학과 불교가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수학의 무한은 유한 개념의 연장선상에 무한을 정의한다. '무한'이란 한마디로 막연하게 여겨 왔던 개념을 자세히 분류하고 이들 사이에 대소 관계가 있고 비교를 가능케 한 것이었다.

'무한은 유한의 연장선상에서 정의한다' 이 뜻은 무한의 유한화라고도 할 수 있다. 유한적인 대상은 많다 적다 등 크기의 비교가 가능하다. 가령 A라는 집합은 10명의 학생의 모임이고, B라는 집합은 9개의 책상의 모임이다. 지금 A(10명의 학생)와 B(9개의 학생) 사이에 어느 쪽이 많은 가를 보기 위해서는 학생 한 사람마다 의자에 앉게 하면 된다. 이것은 1대 1의 대응이라 한다.

이때 한 학생이 의자에 앉을 수 없을 때는 학생 수가 의자의 수보다 1개 더 많다고 한다. 1대 1의 대응이 완전히 성립하면 두 집합의 개수는 같으며 그것이 성립하지 않으면 과부족이 있는 것이다. 아무리 많은 요소를 지닌 집합들 사이의 비교도 이와같이 '1대 1의 대응' 방법으로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유한적인 비교 방법을 그대로 무한적인 대상에 적응시킴으로써 무한들 사이에 대소, 같음의 관계를 정의한 것이다.

1, 2, 3, … n, … 자연수의 집합은
2, 4, 6, … 2n, … 짝수의 집합과
1대 1의 대응이 성립하여 같음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0과 1 사이에 있는 수, 가령 0.0123 …,과 같은 것의 수 집합, 일반적으로 0. a_1, a_2, a_3, … a_n …의 수의 모임은 정수 전체의 집합보다 큰 것임이 증명되었다.

이와같이 무한이라고 한마디로 처리해 온 대상들 사이에도 유한 세계의 수처럼 대소 여러 종류의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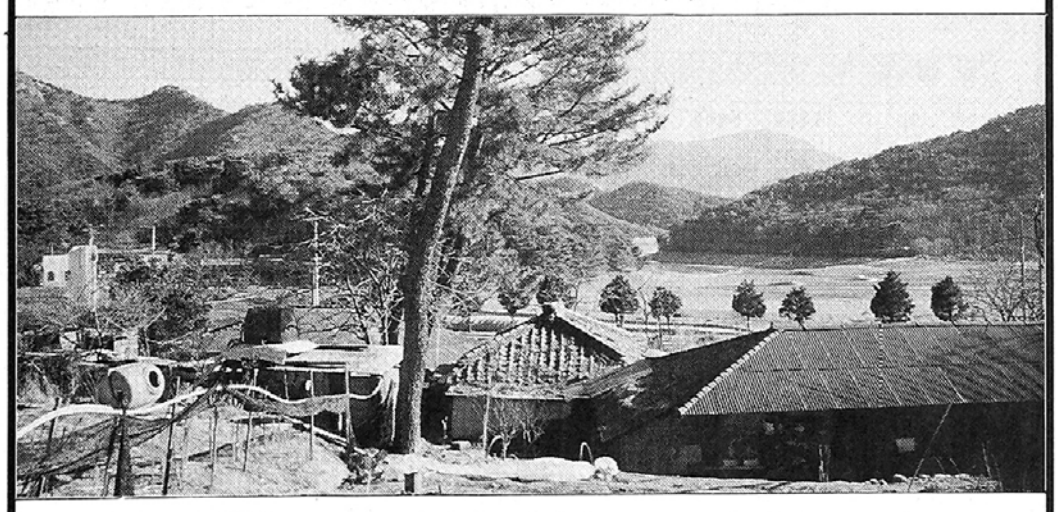
그러나 불교적인 무한은 이들 여러 종류의 무한 세계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의 원리를 파악했다. 그것은 인간이 '지금, 이 곳'에 존재한다는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고속도 촬영법에 묘사된 수십 년간의 나무의 성장과정이 몇 초간에 묘사될 때 그 나무의 참모습은 오직 '지금, 이 곳'일 수밖에 없음이 실감된다. 인간의 그 존재 양식인 무량, 무수억의 부처님의 생명 의지를 집약하고 있는 것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사찰 · 수련원 · 휴양시설 · 노인복지회관 부지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오륜수원지 인접

동래관광호텔에서 단 15분거리



소 재 지 ● 부산시 금정구 ● 면 적 : 1,352평
● 건 물 : 4동 (법당, 요사채, 식당으로 사용)

불사에 원력을 세우신 스님, 불자님들께서 직접 보시고 결정하십시오.

▶ 상담문의 : (051)516-9997

정성과 얼이 담긴

남원 木器 공예



● 원목 통제기 358,000원(37피-상기 사진세트))
● 100년산 물푸레나무 288,000원

고찰 승려들의 식기, 바루 제작 과정에서 터득한 기술로 다듬어진 목기입니다.
지리산 나무로 그 특유한 향기와 정통의 재목으로 품위있고 격조높게 만들어진 목기입니다.
특히 지리산에서 자생하는 물푸레나무를 재료로 모양과 색상이 좋고 내구성이 강하며 냄새가 나지 않고 변색되지 않아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목기입니다.

남원목기공예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46-9
전화 : (062)511-9641
대 표 임 동 주 합장

지 사 모 집

천연옥 불상조성 전국 지점을 모집합니다.
당사는 미얀마(버어마)·중국 등에서 손수 부처님과 불탑등을 천연옥으로 조성하는 무역 회사로 부산에 본사를 둔 무역 회사 입니다.

영업품목
108불, 삼천불, 1만불등
천연옥, 염주, 옥온돌방

● 대 상 : 불교 용품점 및 각 지역 불교계에 덕망이 있으신 분으로 재력을 약간 겸비한 분
● 지 역 : 서울, 경기, 광주, 대전, 대구, 제주 등 기타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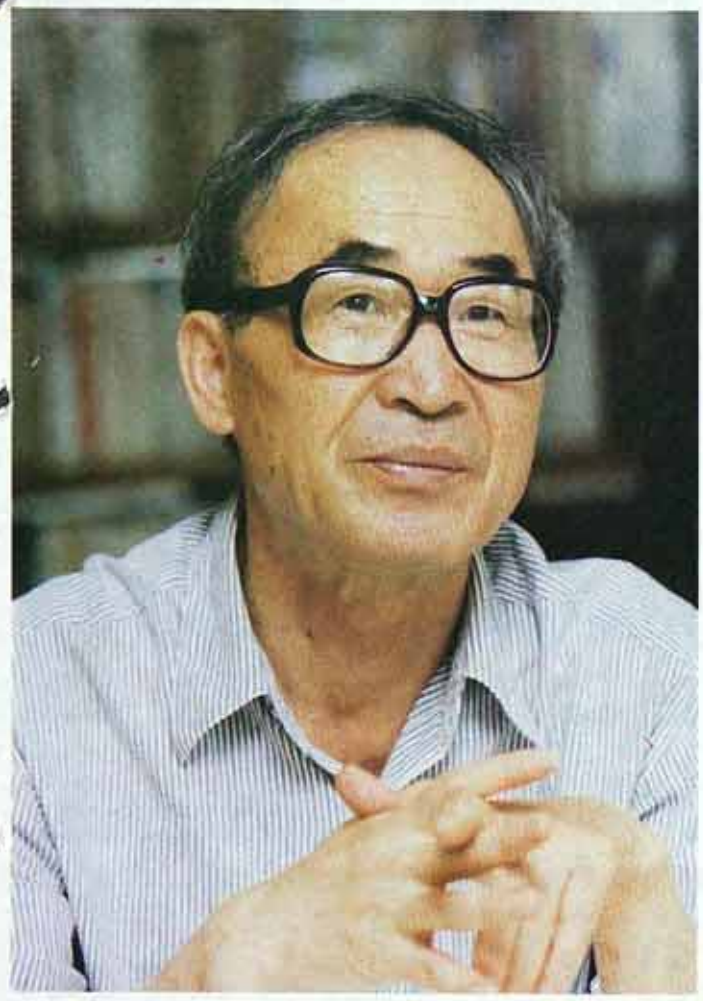
(주) 금 강 옥 불
(주) 금강여행사 현지 법인
대표 이 상 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4동 190-24
☎ (051)802-4696~8
FAX (051)802-6288

시방세계

해외여행 · 항공권 · 여권비자 수속
불교성지순례 전문
(주) 혜초 여행사
안국동로타리(조계사앞) 종로구 수송동 5번지 동일빌딩3층
전화 : (02)733-3900

"사람은 사람속에서만 사람이다"



만다라 잔치판 '萬人譜'의 작가 고은

6월 민주항쟁 10주년 시인의 감회는 남다르다 특별감방서 '만인보' 구상 시인이 만난 인물스케치 전 30권 4천여명 목표 19일 15권째 출판기념회 다음날 히말라야 설산行 "우리는 정신 놔버렸다"



"딱 한번 추석 때 와서/한 닷새 집에 머물다가" 홀연히 또 떠나가는 막일꾼 '오복이 아버지'로부터 문익환 조영래 이우재 등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별빛들. 이들이 각기 그들의 모습대로 모여 찬란한 난장을 벌이고 있다. 어중이 떠중이 다 모여 만다라의 잔치판을 벌이고 있는 〈만인보(萬人譜)〉의 시인 고은(65).

"격렬하면서도 무엇하나 이루지 못했던 시기도 있었다. 문학이란 늘 신랄한 아픔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시인을 만난 것은 지난 10일. 마침 이 나라 민주주의의 큰 획을 그었던 6월 민주항쟁 1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시인의 감회가 어찌 없으랴.

"그날 우리는 붉은 두 주먹 쥐고 모였다/탁하고 쳐/억하고 죽었다는 어이없는 죽음으로부터/…민주쟁취/독재타도/목터져라 외치고 외쳐야 했다/…/그날로부터 10년이 갔다/…/결코 지난 일이 아니다/…/그 이름 국민운동으로/새로 떨쳐 일어나."

그렇다. 그의 삶은 시대의 산물이었고, 그 스스로도 그러하길 자청했고, 절창의 시를 남겼다.

"우리 모두 화살이 되어/온몸으로 가자/허공 뚫고/온몸으로 가자/가서는 돌아오지 말자/박혀서/박힌 아픔과 함께 썩어서 돌아오지 말자." - '화살'에서

"그때는 꼭 그런 심정이었어."

그것의 대가는 감옥이었다. 24시간 감시, 체포, 구금의 연속이었다. 〈고은시전집〉 '약전연보'에서 "(80년) 5월 이후 국방부와 법무부에서 문익환 이문영… 등과 함께 근무, 죽음 직전의 극한 상황을 체험"했다고 밝히고 있다.

〈만인보〉가 태어난 곳은 감옥이었다.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채운 곳, 남한산성 육군교도소 특별감방 제17방. 그가 들어오기 한달 전 김재규씨가 형장으로 떠날 때까지 있었던 방이었다. "창이 달려 있지 않아서 대낮에도 60촉짜리 전기가 나가면 방구석의 소변통도 더듬어야 한다. 물론 방안의 공기도 바꿀 수 없었다." "밥실의 문이 열고 닫힐 때마다 드러나는 문지방뿐이라는 것도 알았다. 나는 거기에 부딪쳐 내 흰 뇌수를 쏟으리라는 생각을 침착하게 진행시키면서 절호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꿈속에 두 번이나 나타난 어머니를 대하고 자살을 단념했다. 그리고 〈만인보〉와 〈백두산〉을 구상했다.

"내가 이것을 구상할 때 그 당시의 칼칼한 정황의 서슬로 보아 함께 검거된 몇 사람은 시대의 인질이 되어 어쩌면 처형될지도 모르는 분위기였으므로 나는 그동안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한 회고가 없으란 법이 없었다. 그런 회고가 문학의 공상으로 나아가게 되어 내가 태어난 이래의 모든 기지(旣知)의 사람과 미지의 사람 그리고 역사인물이나 역사에 잠재되어 있는 사람을 시로써 형상화하는 일을 결심했던 것이다."

죽음의 상황이 빛과 역사와 사람으로 어우러질 줄이야. 만다라로 결쳐질 줄이야.

〈만인보〉의 시작은 이렇다.

"너와 나 사이에 태어나는/순간이여 거기에 가장 먼 별이 뜬다/…//오 사람은 사람 속에서만 사람이다 세계이다" - '서시'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승세계의 전개랄 수 있다. 〈만인보〉는 인간의 만다라라고 할 수 있다. 구역질나는 시궁창과 연꽃이 일치하는 불이의 세계, 이것이 화엄 만다라의 본질이다. 이 본질을 통해 인간의 삶을 들여다 보았다. 또 하나는 인간만이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을 채우고 있는 생명, 무생명과의 관계의 삶인 것이다."

〈만인보〉에는 86년 첫 권이 나온 이래 15권까지에 2천여명의 사람들이 등장한다. 1~9권에서는 주로 들꽃이나 잡초처럼 강산에 번성하고 스러져간 고향과 고향 부근의 사람들을 그렸다. '70년대 사람들'로 불리는 10~15권은 시인이 70년대의 편력을 통해서 만나고 스쳐간 사람들과 그 사람들과 관련된 사회적 명멸을 노래하고 있다. 70년대는 앞으로 3권의 분량이 더 쓰여진다. 이후 80년대와 90년대, 全30권 4천여명에 관한 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30권 가지고도 못할 것 같애요. 죽지 않으면 더 쓰고…."

왜 〈만인보〉인가. 우선은 그 규모의 방대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문학의 새 지평이다. 경이롭다. 그러나 무엇보다 공동체적인 삶의 정서를 다양하게 복원해낸 서사성과 서정성의 탁월한 융합에 있다. 이와 관련해 문학평론가 박혜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념은 체험에 서사적 풀을 부여하고 체험은 이념에 서정적 흔을 불어넣는, 그럼으로써 이념은 그 추상적 정형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유연한 서정적 호흡을 부여받고, 체험은 사사로운 일회적 소멸로부터 건져올려져 역사적 지평 위에 그 항구적인 자리를 마련하게 되는 일련의 시적 성과가 〈만인보〉의 문학적 의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인이 그리는 삶은 무엇인가. 최근 시집 〈어느 기념비〉의 시편들이 말해주고 있다.

"눈보라 속/아내와 딸과 함께 야트막한 고개 넘어가며/새해 첫날 이른 아침을 보내니/이제까지 너무 많이 가지려 하였구나/빈손이 이렇게 급방 날 듯이 새옷인 양 낯설고 좋을 줄이야" - '빈 손'

19일, 그에겐 남다른 감회의 날이다. 70년대 같이 고생했던 분들이 뜻을 모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잔치를 마련한다. 〈만인보〉 10~15권 '70년대 사람들' 출판기념회. 강만길 리영희 신경림 한승헌…〈만인보〉의 한권씩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이 초청인이다. 그리고 다음날 그는 수미산, 수백천의 구도자들이 죽음으로써 거듭해 올라 마침내 불교의 우주관을 그려냈던 히말리야의 설산으로 떠난다.

오늘에 대해 한마디 없을 수 없다. "지금 우리는 정신을 놔버렸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슬픔도 없는 가난뱅이가 되었다고 일갈한다.

글=정성운 사진=고영배 기자

고은 詩 감상

오복이 할머니

시름시름 누워 있다가도 조금만 빤하면 일어난다
이른 아침 이슬 차고
산 넘어 사래밭에 간다
누구 따라올까보아 달아나듯이 간다
그 비알진 밭에 가
한 번 쭈욱 살펴보고
일면 자갈 주워내고
일면 풀 맨다
종일 사람 구경이라고는 씨도 없다
싸가지고 간
주먹덩어리 깡보리밥 삼키고
쉴 참도 없다
밥 먹고 바로 매던 풀 맨다
매어놓은 풀 벌써 시들어
그 풀냄새가 동무이련가
그런 하루 팍 저물어서야
풀 것 덤벼들고
잔솔 밑 풀벌 보이지 않게 어두워서야
허리 쳐 일어난다
가져갈 것 없으니
모깃불 덮을 풀이라도 한 다발
혼자 산 넘어 돌아오는데
밤새 솟적다 벌써 청승떤다
돌아오는 마을이래야
어디 변변한 불빛 하나 있는가
그저 입에 넣을 것 넣고
어둠에는
고된 몸도 가려지매
바로 구들장 지는 마을이다
어머님 이제 오세유
하는 기어들어가는 며느리 말소리
귀하디귀한 손자놈이야
벌써 자빠져 잔다
마당 구석 나팔꽃 오른 데로
반딧불 두어개 난다

'〈만인보 9〉 중에서'





리영희씨가 말하는 고은 "언제나 경이로운 시인"

… 집을 나설 때의 위기감도 가셨기에 비교적 가벼운 기분으로 안성 시골의 고은 부부를 찾아 들어갔다.

두 사람의 보금자리는, 내가 언젠가는 꼭 그렇게 가꾸고 차려서, 그 속에서 책읽고 글쓰고 싶어하는 그런 환경이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평수의 땅에 조촐하게, 그러나 넉넉하게 지은 몇 개의 방과 마루는 나무에 물러싸인 잔디들을 향해 있었다. 오후의 햇발이 따스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여기서 나는 고은의 부인, 제수님의 사랑됨을 알았다. 고은의 온몸에서 시가 쏟아져 나오는 이유를 알았다…

"시가 막 쏟아져 나와요. 안 쓰고는 못 견디게 시상이 잇달아 떠올라요. 나는 이렇게 충족된 때가 없었어요. 미칠 정도로 온몸에서 시가 튀어나와요."

그가 얼마 전 나에게 그렇게 말했었다. 나는 그가 부처의 제자로서 대승으로 승화시키다 만 그의 전 존재를 시로써 이룩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괴로웠던 한 시기(지금도 변함없지만), 어느 시인이 "세상 사람이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나에게서 시가 쉽게 나온다는 것은 배신이 아닐까?"하고 말한 자책을 잊을 수가 없다.

고은의 "미치게시리 온몸에서 튀어나오는 시"가 그렇게 말한 시인의 시인적 고뇌를 초극한 위에서의 '시적 분출'이기를 빌며 또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고은을 찾아서〉(버텀목 펴냄)에서'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쌍요품(雙要品) ③

賢夫染人 현부염인
如近香熏 여근향훈
進智習善 진지습선
行成潔芳 행성결방

어진 이가 남을 물들이는 것은
향내나는 물건을 가까이 한것같아
지혜가 늘고 선을 익혀서
깨끗한 법향을 이루게 된다

造憂後憂 조우후우
行惡兩憂 행악양우
彼憂惟懼 피우유구
見罪心疹 견죄심거

근심꺼리 지으면 뒤에도 걱정하고
악을 행하면 예서 근심 제서 근심되니
저것도 걱정이고 이것도 두렵고
지은 죄를 보면 마음이 떨린다

造喜後喜 조희후희
行善兩喜 행선양희
彼喜惟歡 피희유환
見福心安 견복심안

기쁨을 지으면 뒤에도 기쁨이라
선을 행하면 예서도 즐겁고 제서도

"지혜늘고 선을 익혀 법향 이루면
향내나는 물건처럼 남을 물들이네"

즐겁고
저것도 기쁨이요 이것도 즐거움
지은 복을 보면 마음이 편안하다

今悔後悔 금회후회
爲惡兩悔 위악양회
厥爲自殃 궐위자앙
受罪熱惱 수죄열뇌

이승에서 뉘우치고 저승에서 뉘우치고
악을 지은 이는 양쪽에서 뉘우치니
그는 스스로 재앙을 지었기에
죄업따라 뜨거운 고통을 받는다

今歡後歡 금환후환
爲善兩歡 위선양환
厥爲自祐 궐위자우
受福悅豫 수복열예

이승에서 기쁘고 저승에서 기쁘고
선을 지은이는 양쪽에서 기쁘니
그는 스스로 도움을 지었기에
복업따라 기뻐하고 즐겨한다

巧言多求 교언다구
放蕩無戒 방탕무계
懷淫怒癡 회음노치
不惟止觀 불유지관
聚如群牛 취여군우
非佛弟子 비불제자

교묘한 말로 많이 구하고
방탕하여 계율 안지키며
음욕 분노 우치를 품어서
지관을 생각치 않는다면
소 떼가 무리져 모인것 같아
진정한 불제자가 아니니라

時言少求 시언소구
行道如法 행도여법
除淫怒癡 제음노치
覺正意解 각정의해
見對不起 견대불기
是佛弟子 시불제자

알맞는 말로 구함이적지만
법답게 도를 행하며
음욕 분노 우치를 없애고
바른 뜻 깨닫고 뜻을 알아
경계에 부딪혀도 번뇌일지 않으면
이것이 진정한 불제자 이니라

방일품(放逸品) ①

戒爲甘露道 계위감로도
放逸爲死徑 방일위사경
不貪則不死 불탐즉불사
失道爲自喪 실도위자상

계율은 감로의 길이 되고
방일은 죽음의 길이된다
탐하지 않으면 죽지않고
도를 잃으면 저절로 죽는다

慧知守道勝 혜지수도승
終不爲放逸 종불위방일
不貪致歡喜 불탐치환희
從是得道樂 종시득도락

지혜롭게 도의 길 잘 지킬 줄 알면
마침내 방일하지 않게되나니
탐하지 않아서 기쁨에 이르고
이를 좇아 성도의 즐거움 얻게된다

常當惟念道 상당유념도
自强守正行 자강수정행
健者得度世 건자득도세
吉祥無有上 길상무유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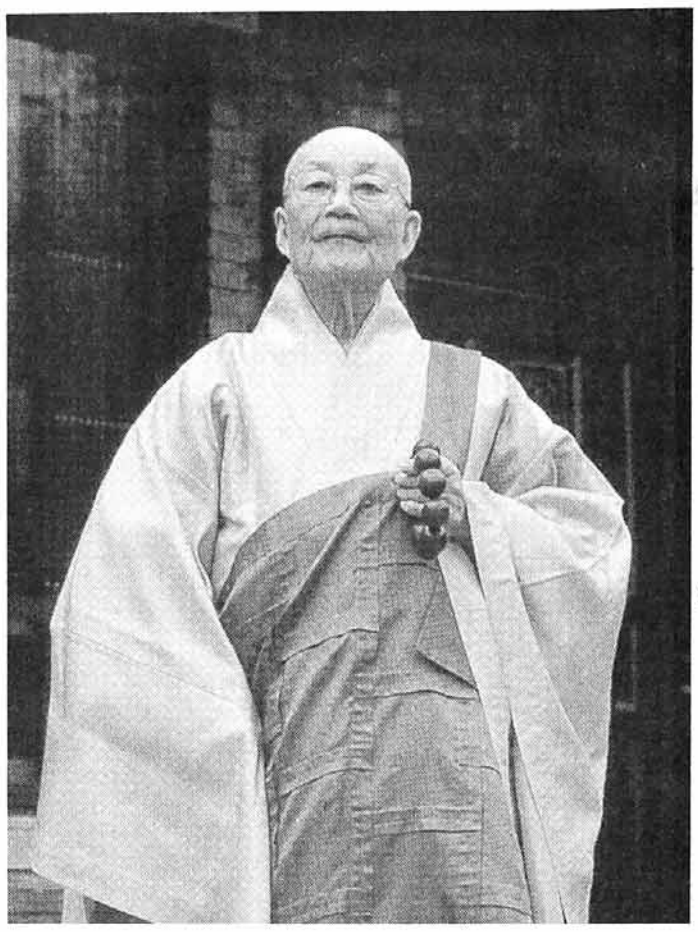
마땅히 도를 늘 생각하여
스스로 굳세게 바른 행을 지키면
굳센이 생사언덕 건너뛰어서
위없는 길지에 이르리라

龍 眼

큰스님 수행한담

"정토를 얻으려면

혜양스님 〈대광선원 조실〉



"道가 무엇입니까 마음자리 깨닫는 것이죠"

우리는 '도(道)를 닦는다' 또 '도를 얻겠다'고 흔히 말합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 것인가 곰곰히 생각해 봅시다. 도를 얻겠다고 출가한 스님들은 물론이고 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불자라면 한번쯤 이 문제로 고민해 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한번 묻겠습니다. 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했나요. 만약 그 진리를 알고자 하면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마음을 모으고 그 마음자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리 모으나 저리 모으나 마음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하늘천 따지를 하든지, 하나 둘을 세든지, 염불을 외든지, 일념으로 마음만 모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옴마니반메훔'을 해서라도 마음을 한데 모아야 합니다.

옛날 스님들은 스스로 도를 통하지 못하면 어느 누가 와서 참선법을 물어도 '나는 모른다'고 끝까지 가르쳐주지 않았지요. 꼭 도를 통한 사람만이 그 도리를 가르쳐 주는 법입니다. 도통한 스님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저 사람이 지난 생애 참선하던 습관이 있어서 이 생에도 저렇게 참선을 하려는구나. 그러면 저 사람이 전생에 공부하던 화두는 무엇이었을까'하고 달입니다. 그리고는 화두를 주시지요.

도를 통했으니까 모든 이치를 확연히 알고 계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옳다. 이 화두였구나'하고 화두를 찾아 주시는 셈이지요. 그러니 이 화두를 받은 사람은 지난생부터 자기가 공부하던 화두를 아니까 용맹정진할 수가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가승이 정진을 잘하려면 반드시 깨우치고 말겠다는 금강과 같은 발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잘 이끌어 줄 스승이 있어야 합니다. 화두란 전생에 공부하던 것을 그대로 이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화두를 제대로 찾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화두가 제대로 안 맞으면 시간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근기에 맞는 화두를 만나기 어려운 사람은 주력을 일심으로 하면 됩니다. 수월큰스님도 천수대비주(千手大悲呪)로 득도했습니다. 수월스님은 천수관음의 삼매를 표시하는 이 다라니를 수지독송하면 온갖 죄업이 소멸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관법 하나로 도를 이루셨지만 말법중생은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참선과 주력 모두 해야 합니다.

또 아미타불을 많이 부르십시요. 아미타부처님은 저멀리 서쪽 하늘에 계신분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있다고 믿으십시오. 바로 마음속에 있는 아미타불을 일심으로 부르면 세상보는 눈도 달라지고 이승살이가 즐겁게 생각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속에서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빛을 볼 수 있게 되는 법이지요. 칠흑같이 어두운밤 희미한 등불하나를 의지에 목적지까지 순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같은 땅, 같은 하늘 아래에 사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라도 생활환경이나 정서와 감정에 따라 이 빛을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마음이 모든 법을 만들고 마음에 의해 결과를 초래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정토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마음을 깨끗히 해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짐으로써 이 땅은 깨끗해 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는 평범한 유년시절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경남 하동에서 태어나 13살 때 하동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의 권유로 한학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신학문을 배우고 싶어 아버지 몰래 집을 나와 대구에서 고학으로 계성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 배재학당을 다니다가 외국에 나가 신학문을 공부하고 싶어 찾아간 곳이 바로 서울 봉익동 대각사입니다. 이때 대각사에서 만난 분이 용성큰스님이셨지요. 용성스님은 신학문을 배우려면 원력을 세워 3년간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하고 유학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용성스님으로부터 독립사상과 불교를 배우게 됐습니다.

- 약 · 1900년 경남 하동 生
- · 23년 일본 경도 입명관대학 수료
- · 25년 몽고 모르웨나사원 마루오사스님을 은사로 득도
- 력 · 27년 몽고 호마루불교전수 대학 卒
- · 46년 귀국 지암스님 은법사로 재득도
- · 48년 대전 대흥사 대광선원 창건, 현재까지 안거수행

"독립운동 앞세워 세력 다툼이라니 환멸느껴 입산했어요 명리야말로 헛된 것인데…"

대각사에서 3년기도를 마치고 용성스님의 허락으로 3·1운동이 일어난 이듬해인 1920년초 일본으로 건너가 입명관(立命館)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두고온 조국의 현실을 생각하니 공부에만 전념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에 유학중인 23명의 학생들을 모아 '한국학생사상동지회'를 만들어 조국독립을 위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대각사에 있을 때 대각사 용성스님으로 부터 배운 대각·독립사상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태극기를 그리고 기회를 보아 만세운동을 벌이려고 비밀결사를 하던 중 졸업시험을 앞두고 발각돼 일부는 일본경찰에 끌려가기도 하고 일부는 피신을 했습니다. 당시 가장 친한 일본친구의 삼촌이 경찰서장이었는데 그 친구의 귀띔으로 나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숨어있는 내가 어찌나 비겁하고 초라하게 생각되던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경찰서에 불을 지르고 '대한독립만세'나 실컷 부르고 죽고 싶은 생각뿐 이었습니다. 그러

생활 속의 불교 (126)

우물안 개구리가 보는 한 낮의 길이는?

"통에서 벗어나야 통을 굴릴 수 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통 안에 갇혀 있는 것과 같아서 통을 굴릴 수 없게 된다. 고로 고정관념부터 부숴 버려라. 여짓껏 애지중지 해오던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시각에서 훌쩍 벗어나 보라. 그러면 나의 생각, 나의 법칙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세상에 그 어떤 감옥보다도 더 무서운 감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각의 감옥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넘기 어려운 벽이 있다면 그것은 관념의 벽이다.

수행이란 따지고 보면 생각의 감옥, 관념의 벽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인 것이다. 한 생각의 차이가 실로 엄청 나다는 것을 깊이 느껴야 한다."

우물 안 개구리가 느끼는 한낮의 길이는 얼마나 될까? 아마도 길어야 한 두 시간이 고작일 것이다. 왜냐하면, 우물 구멍을 통해서 보는 하늘은 둥그란 모양일테고 그 둥그란 하늘을 가로 질러 태양이 한 끝에서 나타나 한 끝으로 사라지는 시간은 해가 중천에 떠있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물 안 개구리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낮의 길이가 두 시간 쯤인줄로 굳게 믿을 것이다.

수면 위로 한 번도 고개를 내밀어 본 일이 없는 물고기가 느끼는 세상 모습은 어떠할까? 이 세상은 늘 어두컴컴하고 바위와 수초밖에 없다고 느낄 것이다.

자궁 속의 아기가 느끼는 엄마의 모습은 어떠할까? 아마도 '엄마는 벽처럼 생겼구나'하고 느낄 것이다.

텃새가 알고 있는 세상의 크기와 철새가 알고 있는 세상의 크기는 전혀 다르다. 텃새는 고작해야 제가 둥지를 틀고 있는 산 골짜기와 멀리 내려와 보이는 마을과 하천, 그리고 가끔씩 올라가 본 산등성이 너머 어디쯤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을 것이다.

그러나 수만리를 넘나드는 철새의 눈에 비친 세상에는 드넓은 바다, 광활한 평야, 백설로 뒤덮인 고산, 수백 수천의 하천들이 널려 있을 것이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가시권 밖, 가청권 밖에 더 넓은 세계, 또다른 차원이 얼마든지 펼쳐져 있다. 그래서 가르침은 무변무제(無邊無際)를 말한다. 공간으로 말하면 가이 없고(무변) 시간으로 말하면 과거·현재·미래가 다 공하다(무제)고 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내가 본 것이 세상의 전부인 양 말하고 내가 들은 것이 사실인 양 굳게 믿고 있다. 마치 우물 안 개구리나 텃새처럼 좁은 세계 속에 갇혀서 더 넓은 세계, 또다른 차원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귀머거리가 말쟁한 사람을 보고 언제 천둥이 쳤더냐고 우긴다면 민망스럽고 난감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도 실은 다르지 않다. 내 생각이 백번 옳다고 고집하고 나의 시각 나의 판단, 나의 관점이 바르다고 주장한다.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들의 세상 읽기 세상 보기,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관 세계관 대인관(對人觀)은 다분히 자기중심적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관념세계란 대체로 한 낮의 길이가 두 시간쯤 된다는 우물 안 개구리를 닮아 있다. 스스로 통 속에 갇혀 살고 생각의 벽속에 은거하고 있는 것이다.

털 끝만큼이라도 벌어지면 마침내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벌어진다는 말이 있다.

엄정한 수행의 자세를 경책한 신심명(信心銘·3조 승찬)에 보이는 구절이지만 생각 한번이 바르나 그르냐에 따라서 각자의 삶엔 현격한 차이가 드러난다.

가령 옹고집으로 제 생각에 얽매인 사람과 한 생각 돌려서 가르침을 실천하려는 사람과는 그가 느끼는 세계부터가 다르고 나아가서는 삶의 질, 삶의 차원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비유하자면 관념의 감옥에 갇혀 사는 것과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것의 차이라고나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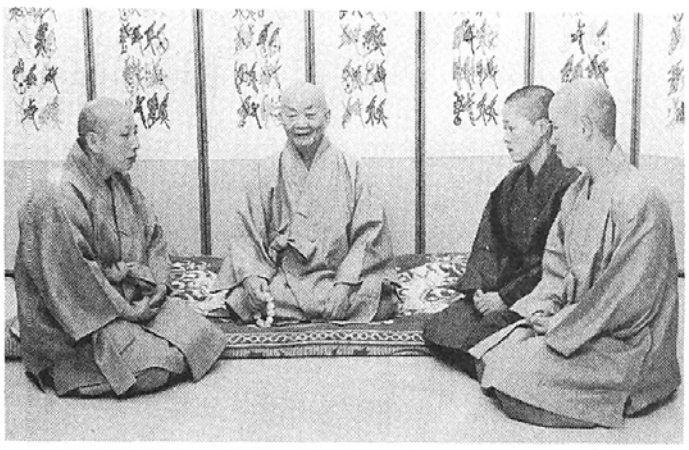
통을 잘 굴리려면 통에서 벗어나 밖으로 나와야만 가능한 것이다.

협찬 : 신 선 희

큰 스님 수행한담

마음을 깨끗히 하세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일지라도 등불하나 밝히면 길을 찾듯 일심으로 '아미타불' 부르면 세상보는 눈 달라집니다"



◇상좌 혜명 · 혜경 · 수혜(사진 왼쪽부터) 스님과 법담을 나누고 있는 혜양스님.

'반드시 깨우치겠다' 금강같은 발심있어야

"밥값 해야지…아직도 공양시간 무서워요"

나 나를 도와주던 주변사람들이 너무 고통을 받을 것 같아 상해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1923년 부산을 거쳐 압록강을 건너 북만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후 중국 절강성 항주대학원에서 정치학공부를 하던 중 배재학당시절 애국상호회와 애국상친회 등을 조직하여 애국운동에 앞장섰던 서한기, 서기호, 서한수, 진호영 등이 찾아와 독립 운동을 하자고 권했습니다.

모든 희망을 다 버리고 일본에서 못다한 독립운동을 해보자는 생각으로 동참했습니다. 그 때의 결심은 대단했지요. 독립운동은 화합과 힘이 결집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 신조였습니다. 그래서 북만주, 몽고, 소련, 중국 지역에 있던 독립단체인 애국중진협회, 한국독립단, 독립동지회, 여성애국협력단, 소년회 등을 한데모아 '배달독립협회'를 조직했습니다. 그 외에도 필요한 단체들을 조직하여 독립을 위한 화합을 견고히 했습니다.

그리고 틈나는대로 한국인 마을을 방문해 독립사상 고취를 위한 모임을 갖고 연설을 했습니다. 또 '배달신보'라는 주간지를 발간, 한국인들의 애국심과 단합을 키워주었습니다.

이렇게 1년여가 지나자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심지어 싸움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일본의 앞잡이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내 힘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후 애국단체대표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명예와 안락, 권세를 모두 버리고 애국심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온 것인데 서로 세력을 차지하려고 같은 동포들끼리 싸운단 말입니까. 독립운동을 앞장세워 허세를 부립은 우리 애국동지들의 가장 큰 적입니다. 이제부터 과거의 모든 잘못을 청산하고 참된 애국정신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합시다"고 호소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일체의 명리야말로 헛된 것이니 미혹하지 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탐욕의 잔가지, 어리석음의 잔가지를 비롯하여 온갖 악의 잔가지들을 잘라버릴 때 성불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눈앞의 명예에 안주하는 것은 눈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잠든채 죽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싸움은 계속되었지요. 이같은 싸움으로 인해 결국 나는 요즘말로 테러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큰 상처는 없었습니다. 하도 분해서 몇몇동지들과 함께 동포들에게 독립의 필요성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계속해서 마을을 찾아다니며 연설을 했습니다. 결국 태평촌이라는 마을에서 또다시 테러를 당했고 몸도 많이 다쳤습니다.

그때 '이제는 죽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극한 상황에 이르니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이 부처님이셨습니다. 아마 내 마음자리어디엔가 불심이 자리잡고 있었나 봅니다. 그 당시 관음보살의 화신으로 불리우는 수월큰스님이 생각나 마지막으로 스님 뵙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대각사에서부터 불교 공부를 해 오던 터라 나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하고 염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수월스님이 계신 화엄사스님과 신도 몇분을 만나게 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이 인연으로 수월스님을 만나게 되었고 불교에 심취하게 됐습니다. 당시 화엄사에서 열흘간 있었는데 스님들은 독립운동은 그만두고 출가할 것을 은근히 권했고 수월스님은 제자들에게 "자네들이 이 독립군의 출가를 권하지 않아도 불법에 인연이 있어서 반드시 승려가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그후 몽고에서 온 마루오사대 고승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그대들이 원하는 독립은 꼭 올것이네. 출가수행자가 되어 한나라 민족을 구하는 일과 함께 천하중생을 제도하는 원력을 세워보는 것이 어떤가"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독립운동 단체간의 파벌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때 나는 조국을 위한다는 대의 명분앞에서 세력다툼을 벌이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동족의 다툼을 보고 환멸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천하중생을 제도하자는 대원력을 세워보라는 마루오사대 스님의 법문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곧바로 몽고로 들어가 모루웨나 사원의 마루오사대화상를 은사로 득도했습니다.

득도이후 약 10여년간 몽고에서 호마루 불교전수대학과 우루무치의 메이오 불교대학원을 졸업하고 신강의 히브롯다 종립 원각사내 브로늬오조사 문하에서 선학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불교공부를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다보니 해방이 되더군요. 해방이 되면서 곧바로 조국으로 돌아와 오대산 월정사에서 본격적인 선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하다보니 여기저기 선방에서 오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거절했습니다. 중이란 모름지기 이런저런 명리에 끄달리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후 내 가고 싶은 대로 제방선원을 다니며 공부했습니다. 선방다니는 일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지요. 불교공부 한답시고 출가해 부처님밥을 먹고 사는데 성불못하면 대죄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이곳 도화산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50여년간 이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공양시간만되면 무섭습니다. 공양물들이 어떤 음식입니까. 여러 선남선녀들이 스님들 뒷바라지 한다고 온갖 정성을 기울여 모아온 양식인데 허투로 받아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가기전에 밥값을 해야 하는데 큰 일입니다. 아마 내가 이제 갈때가 되었나 봅니다. 이런 생각을 다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제방에서 수행중인 스님들은 쌀 한톨, 김치 한조각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스님들은 선방의 좌복이 가시방석일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양의 의미조차 모르고 포식하며 수행을 게을리 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의 공양을 받을때에는 오직 그 배고픔의 괴로움을 겨우 없앨 정도로 먹어야 합니다. 함부로 많은 음식을 취하면 착한 마음을 헐게돼 잡념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업이 쌓이면 그림자가 사람을 따라가듯 수행의 장애는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때는 떨어지는 폭포처럼 막을 수도 없고 대신 받을 자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당나라의 고승 백장회해스님도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이란 다름아닌 불작수행(佛作修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상생활속에서 진리와 지혜를 기르는 가장 쉽고도 가치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불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삶, 바르고 옳은 삶을 위해 펼치는 행위,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정리=김중근 기자

공부하는데 장애가 따릅니다

문 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해서 자유인이 되고 싶어서 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장애가 따르고 마음도 편치 못합니다.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창국 ·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답 초조해 하지도 말고 게으름을 피우지도 말고 해 나갈 수 있는 대로 묵묵히, 열심히 해보세요.

산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 생각 저 생각 나게 마련인데 이 생각이 나거든 놓고 저 생각이 나거든 그것도 놓고 가세요.

울고 싶거들랑 주인공 붙잡고 울고 감사하거들랑 주인공 붙잡고 감사해 하고…. 그렇게 돌려 놓으면서 한 일년쯤 계속해보세요. 체험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두들 그렇게 놓을 줄은 모르고 껍데기로써 애만 쓴단 말입니다.

저 콩깍지가 말입니다. 아주 잘 익으면 절로 탁 벌어져서 톡 건드리기만해도 콩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덜 익었을땐 어떻습니까? 잘 까지지도 않고 콩이 야물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벗는 것도 그와같고 해탈을 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이 껍데기로 애를 써서는 옷 벗기도 힘들고 해탈하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진짜 주인을 믿고 일체를 더불어 주인공에 놓고가라는 것입니다.

내게 이런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자기가 자기를 가엾게 여기고 불쌍하게 보아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을 떠보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을 들기도 하고…, 하고 많은 살림살이 속에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꿈으로도 보여주고 생시로도 보여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두들 거기에 속아넘어 갑니다.

이이고 죽겠다느니, 내게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느니, 때로는 좋아서 어쩔줄 모르기도 하고…, 주인공이 이 껍데기에 얽매여 사는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거기에 번번히 속아넘어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글쎄 그런 줄은 알지만 어디 그게 쉬운 일이냐 한단 말입니다. 자기가 걸려들고 자기가 속아넘어가면서 그래 인간이니 다 그렇지 않느냐는 말을 합니다.

때로는 마음공부 한다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기만해도 도가 아니고 알기만해도 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기만하면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공부하는 분이라면 모든 경계에 속지말고 경계를 재료삼아서 가르침을 터득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場 이론과 마음공부 같은지요

문 현대물리학을 대표하는 양자역학의 차원에서 보면 입자의 세계엔 생멸이 무성합니다. 그래서 장(場)이라는 말을 쓰고 그 장의 개념은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과 일맥상통한다고 여겨집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체 · 공심 · 공생 · 공용 · 공식도 그런 개념이신지요?

〈문철상 ·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답 내가 말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부처님 법이 다 그렇습니다. 물리학이나 화학적으로야 입자니 소립자니 하는데까지 가고 있지만 일체가 지 · 수 · 화 · 풍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입자 얘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로써 세상을 보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소립자의 세계를 들여다 본다고 해도 거기엔 어쩔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컨대 무엇을 본다고 할때에 천체망원경이나 전자현미경으로 보는데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지요. 하지만 심안으로 본다면 멀다 가깝다, 크다 작다가 없어서 수천 수만억 광년이라 할지라도 코 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게 다 둘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기에 그걸 가서 보고 조개서 보는게 아니라 명경같이 밝은 마음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세계, 과학의 차원에서 도저히 볼수 없는 나머지 반쪽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위 무위를 둘이 아니게 본다는 말입니다. 본래 둘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떤 과학이라도 심성과학이 되지 않고는 전체를 볼 수가 없고 전체를 모르는 한에는 자재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과학이 극도로 발달돼서 절로 오신통의 경지에 간다해도 누진통이 아니면 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안녕하세요!
이영숙원장입니다.

'이자임결혼연구원'을
「현대정보결혼연구원」으로
명칭을 새롭게 改名하였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멋진 혼인문화를 구상하며
새로운 각도로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성원해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미래지향적으로
불자님 자녀의 결혼관이
이상적으로 행복한 결혼생활이
될 수 있도록
내일을 더 큰 사랑으로
지켜봐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 영 숙(본명)

大卒, 초 · 재혼 신원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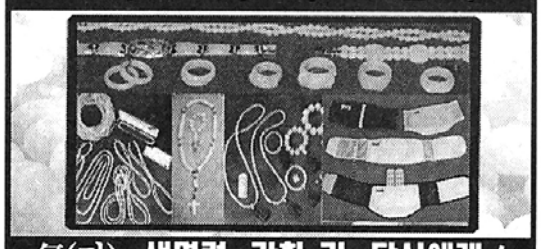
현대정보 결혼연구원

원장 이 영 숙 합장(법명:無生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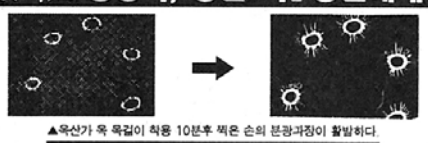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18번지 영신상가 3층 317호

대표전화 : (02)634-4910~2

춘천옥산가 옥의 신비!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옥산가 옥 목걸이 착용 10분후 찍은 손의 분광과장이 활발히다.
연옥 사용전 1.5㎶/V 연옥사용후 3.0㎶/V로 체내전압 상승

알파파(α) 현상으로,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인 20여종의 뇌내모르핀 분비를 활성화시켜 모든 병을 호전시킵니다.

정혈 혈액순환, 고혈압, 당뇨, 신경통, 관절염, 두통, 불면증, 심장병, 귀울림, 치매, 신장병, 갱년기장애, 피부미용, 생리통, 요통, 스트레스, 햇병, 노화방지…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듣습니다.

복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병91.3%, 어지러움증91.3%, 두통83.3%, 고혈압77.8%, 관절염60%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기록했다.('93. 2. 17 서울신문)

玉山家 옥만을 꼭찝어서 사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도도자기 조이불 金賞 수상
미국 제10회 국제발명품전시박람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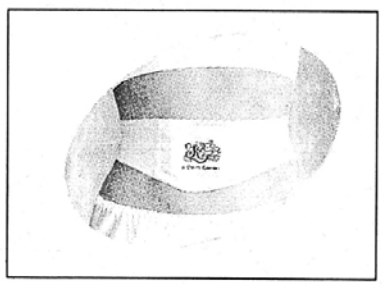
옥산가 옥이 의약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의서 수부례11에 진옥은 백병을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분수 옆

玉山家
777-0105 (우편판매가)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저는 1남 1녀를 둔 가정주부입니다. 몸이 약하고 힘든 탓인지 2-3년 전부터 불면증과 방광염이 생기면서 얼굴에 기미가 끼기 시작하더군요.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두고 있었는데 언니가 한약재 성분으로 만든 "향비"라는 배꼽에다 착용하는 제품이 있는데 먹고 바르는 약이 아니라서 부작용이 없을것 같다고 사용해 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반신 반의 하는 마음으로 착용해 보았더니 얼마되지 않아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불면증이 없어지면서 사람들로부터 피부가 고와졌다 예뻐졌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아도 화장도 잘 받고 기미도 얇아지고 혈색이 잘도는것 같아서 생활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약 6개월이 되었는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끈기 있게 사용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착용할 예정입니다. 다시한번 향비에 고마움을 전하면서 저처럼 기미, 불면증, 방광염, 생리통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꼭 권해보고 싶은 제품입니다.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272 신동아 APT 박 지 희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고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080) 200-4545

고은 불교대하소설



지옥 첫걸음

이 세상 어디에, 삼천대천세계 그 어디에, 아니 이 세상 밖의 그 어디에 극락세계가 있는 것인가.

그런 극락의 곳이 있다면 그와 반대쪽에 극고(極苦)의 곳, 즉 지옥이 있을 것이다.

죄업이 깊은 중생이 가야 하는 그 지옥은 어디인가.

먼 옛날부터 원시공동체의 삶에서 악행을 저지른 자는 사형으로 제거시키거나 감옥에 가두어 격리시켜 왔다. 그런 감옥은 땅 위의 공면에 지은 것도 있으나 땅을 파서 만든 지하감옥이기 십상이었다.

이를테면 그런 지하감옥을 현세를 넘는 데까지 발전시킨 것이 지옥인지도 모른다. 아무튼 지옥이란 고통만이 있는 세계이므로 누군들 그곳에 태어나기를 바라지 않으나 바라는대로 태어나지 않을 수 있는 곳도 아닐 터이다.

이 지옥이 인간세계 가운데서도 바로 사바세계 섬부주 바로 밑에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인간세계 아니 섬부주 인간계와 얼마나 긴밀한 이웃인가를 뜻하고 있다.

말하자면 인간의 발 밑이 바로 지옥인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악업이야말로 멀리 천상계나 다른 윤회 전전하는 중생계를 우회할 필요없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는 힘이 된다. 악과 악업이야말로 선(善)과 똑같이 힘이다. 다만 그 선의 힘과 악업의 힘은 정반대의 세상으로 나타남으로써 실로 멀고 먼 사이로 벌어지고 마는 것이다.

〈관불삼매해경(觀佛三昧海經)〉은 고대 중국의 동진(東晉) 융안(隆安) 2년 영초(永初) 2년(기원 368~421) 불타발타라의 번역으로 북쪽 대륙에 전해졌다. 전10권 12품으로 되어 있는데 전5권 관불심품(觀佛心品) 제4에는 부처의 심장은 붉은 연꽃과 같고 그 꽃잎 사이로 8만4천의 흰 광명이 있어 5도(五道)의 중생을 비춘다 하였다.

실로 눈부신 빛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그 빛이 비추지 않는 곳이 있다. 지옥이다.

바로 거기에 지옥의 여러 종류가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다른 경전에서는 볼 수 없는 특색인에 틀림없다.

부처를 보고 부처를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하는 경전에 지옥을 말하는 것이 실로 기이한 바 있다.

지옥이 어디더냐
찾고 찾아
내 마음속
거기 아니더냐

누군가가 실컷 지옥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세상의 마음 자체가 지옥임을 감조하는 노래를 남겼다. 하지만 실지로 수미산의 우주 구성 가운데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지옥이다.

인간계 섬부주 바로 밑, 그 지하 5만킬로미터에 아가리를 딱 벌리고 있는 죄와 벌의 극단적인 도성이야말로 일체의 자연환경이 아닌 작위적인 극고의 공간이다.

어찌 〈관불삼매해경〉만이 그곳을 말하고 있던가. 일찍이 힌두교의 프라아나성전(聖典)에서도 말하고 있다. 세계는 비쉬누신의 배꼽에서 태어난 연꽃에 견주어지며 수미산은 4개의 대륙을 마치 연꽃 네 꽃잎과 같다 하였다.

그런데 이런 연꽃에 견주어지는 세계일지라도 지옥은 그런 연꽃으로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닐 터이다. 지하 5만킬로미터 밑의 그 캄캄한 세계에서 첫번째로 만나는 곳이 등활지옥이다.

그 등활지옥 다음이 흑승, 그 다음이 중합, 규환, 대규환, 초열, 대초열 그리고 나락(奈落)! 이라고 언제부턴가 말하는 그 지하의 고통이 풍부한 곳은 도대체 언제 소멸될 것인가.

지장보살이 그 지옥의 밑바닥으로 가 데어나서 지옥중생이 모두 지옥의 업고(業苦)를 다 마치고 난 뒤 마지막으로 부처가 된 다음, 그러니까 지옥이 텅 빈 다음에야 그도 보살로부터 마지막 부처가 되겠다는 비장한 서원을 한 것은 그가 얼마나 길고 긴 시간의 그 무한을 고통받을 것을 자청한 것인가.

등활지옥의 깊이는 1만유순이다. 그것은 지구 위의 표면에서 지구의 한 복판까지가 약 6천킬로미터일 때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알게 한다. 등활지옥 입구까지가 5만킬로미터라면 지구 자체로만 생각한다면 몇10개의 지구를 곶감이나 염주처럼 꿰고 있어야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130

지옥이 어디더냐 찾고찾아 내 마음 속 거기 아니더냐

아마도 섬부주에 사는 인간인 한 광부가 지하 3천8백40미터 밑까지 내려간 것이 가장 깊이 내려간 기록이리면 이 세상에 사는 인간으로서 지옥에 닿아본 일은 없음이 아닌가.

1유순은 10킬로미터. 지옥 하나의 넓이는 한 변이 10만킬로미터의 입방체 크기로 된다. 지구가 4개쯤 들어가도 되는 넓이이고 크기이다.

흑승 다음의 중합도 1만유순, 규환도 대규환도 초열도 대초열도 1만유순으로 깊다.

그런데 아비지옥 혹은 무간지옥은 세로 가로가 다 8만유순으로 되어 있다.

이미 지옥 여덟층 자체가 하나의 어마어마한 우주인 것이다.

이런 우주도 수미산 세계 전체에 대해서는 금륜의 가장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따름이다.

여기에 이르러 십, 백, 천, 만, 억, 조까지는 중국의 수사(數詞)를 통해서 낯익었다. 그러나 인도의 항하사(恒河沙)나 아승기(阿僧祇)에 이르면 그것은 무한대의 수가 됨으로써 어디서부터 헤아려 어디에서 끝날지 모르게 된다.

억(億) 조(兆)를 지나면 10의 16승인 경(京), 해(垓), 자(秭), 양(穰), 구(溝), 간(澗), 정(正), 재(載), 극(極)에 이른다. 백억이 10의 10승이면 극은 10의 48승이다.

그 뒤로는 인도의 수 세계로 감당한다.

항하사 아승기 나유타(那由他) 그리고 불가사의(不可思議)는 10의 76승, 무량대수(無量大數)는 10의 84승이다. 그러므로 무량대수조차도 그 수의 엄청한 자기한계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 그 자기한계라는 것이 우주 속의 무한 그 자체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지옥에서의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지옥중생이 받는 고통의 형기(刑期)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아주 절실한 일이다.

우선 등활지옥의 1주야는 인간세계의 9백만년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등활지옥의 형기는 5백세이다. 그것을 인간계의 시간으로 환산한다면 9백만년에 365일을 곱하고 또 거기에 5백세를 곱한, 1조425억년이 되는 것이다.

자 이런 길고 긴 형기에 대하여 인간이 살고 있는 땅덩어리나 별나라 등의 우주가 생성된 것이 150억년전이라면 지옥은 그런 우주 생성 이전부터 훨씬 먼저 생성되어 있었던 셈이다. 과연 우주는 지옥을 가장 먼저 만들어 놓았단 말인가.

왜 지옥을 먼저 만들었단 말인가.

"알지 못거라. 알지 못거라."

그런 지옥의 소대가리 옥졸조차도 쇠방망이로 누군가를 한번 후려쳐 피투성이로 만들어 놓고 그 자신도 이런 지옥에서만 살아야 하는 그 업보를 탄식하며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알지 못거라."

마침 이런 지옥에 대한 첫 관심으로 세 보살이 다시 만났다. 불이보살, 합두보살 그리고 무전보살들이 그들이었다.

지난 날의 그 어느 생이었던가, 저 인간계 섬부주 조선 서해안 바다 위의 무욕도에서 수행하던 그 전생의 도반이 아니었던가. 중생의 업을 다하고 난 뒤에도 그 도반의 인연은 털어내지 않고 아껴둔 것인가.

"지장보살은 거룩한 분이시지요" 라고 무전보살이 마치 허튼수작을 하는 건달처럼 새삼스러운 말을 꺼냈다.

불이, 합두보살은 아직 그 말에 대한 대꾸가 없었다.

일찍이 지장보살은 욕계 도리천에서 석가보살의 부촉(付囑)을 받고 새벽마다 항하사의 정(定)에 들어 중생의 온갖 근기를 관찰하였다.

아니, 석가모니부처님 당시는 중생의 됨됨이에 따라 가르쳐야 하는 일에 미리 대비하는 일정을 짰던 제자노릇을 하다가 부처님 입멸 직후 지옥에의 서원을 하고 훔쩍 떠난 것이었다.

"가자… 가서 마지막 지옥중생으로 그곳을 비우고 나오자꾸나" 라는 서원이었다.

지옥중생에 대한 첫 관심으로
불이 합두 무전보살이 다시 만났다
지장보살 서원을 따르려는 듯…

그림 · 조향숙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정보 사회 포교 수행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현대프로덕션의 특별한 점

"최고급 토털 영상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었습니다"

■ 최고 수준의 방송용 장비
카메라, 편집, 녹음, 중계 시설 등을 완비하여 불교계 영상 제작물의 수준을 한차원 높여, 첨단 사회 환경에 걸맞도록 하였습니다.

■ 현대불교신문의 발빠른 정보, 최고급 정보를 고객의 것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모든 노하우와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현대불교신문 컴퓨터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를 통하여 부가 가치를 더해 드립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물론 PC통신 사용자 누구에게나 개방된 부다피아의 정보력 기술력을 활용하여 영상 제작물의 CD롬-타이틀화 PC통신을 통한 홍보도 가능합니다.

현대프로덕션에서 하는 일

• 사찰영상 제작물 기획 · 제작
-사찰의 역사 배출한 인물 고승 법문 등 사찰의 모든 것을 생생한 영상으로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

• 사찰 · 불교 단체 영상 홍보물
-삶의 현장 신도의 일상으로 다가가야 할 21세기 포교 수행 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할 홍보물 제작

• 사찰 · 불교 단체 행사 촬영
-단순 기록물이 아니라 작품 수준으로 꾸며질 행사 촬영 · 중계
-고승법회 고승 법문 비디오 테이프 제작

• 법회 · 행사 기획 · 연출
-법회나 행사를 이벤트화하여 불교 신자들의 신행이 일상 생활에 활력을 주는 생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획 · 연출

• 어린이 · 청소년 포교, 교육용 프로그램 제작

현대불교신문은
멀티미디어 시대의 포교, 수행에 걸맞는
종합불교언론사로서의 기능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영상사업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사부대중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주소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2-1 강남B/D 202호
전화
(대) 02-737-8881 / (직통) 02-305-9320
팩스
02-375-4143

"道마다 발굴전담기구 만들자"

'매장문화재 발굴 반세기-회고와 전망'서 제기

발굴신고제 · 대학중심 발굴 탈피 '한목소리'

"현행 법률은 주로 문화재 발굴 규제 및 발굴시의 처리방법에만 국한돼 있을 뿐 매장문화재의 사전조사, 사후관리 및 보존에 대해서는 소홀하다… 애매모호한 매장문화재의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 문화재보호법상에 문화재 영향평가제와 매장문화재보호지역 지정제를 도입하는 한편 발굴전 사전지표조사 등을 의무화하자."

지난 10·1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매장문화재 발굴 반세기-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매장문화재 발굴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및 대책을 광범위하게 논의한 학술대회에서 홍준형교수(서울대) 등 대부분의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은 다른 행정분야의 법률에 종속돼 있는 문화재보호법과 환경영향평가법, 유실물법 등 매장문화재관련 법률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발굴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길연구원(경남대 박물관)은 "구제발굴의 전위부대로 좌충우돌하는 대학의 현실과 몇십년 동안 변함없이 유지돼 온 문화재 관련법규, 구태의연하면서 무계획적인 관리행정,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해 점차 수렁으로 빠져드는 학계의 잘못된 관행 등이 맞물려 고고학계의 일각은 고질적인 병폐와 비리 차원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그는 △발굴조사시 허가에서 신고제로의 전환 △시굴조사의 활성화 △복토·수물지구에 대한 철저한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의 의무화 △대학 본연의 위치 확립 등을 제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 참가한 연구자들은 대부분 이같은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발굴 건수는 모두 1백92건. 90년대 이후 대규모의 건설사업이 폭증하고 있지만, 국립문화재연구소나 국립박물관을 제외하곤 대부분(평균 70%이상) 전문조사인력이 1~2명에 불과한 대학박물관이 구제발굴을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선복교수(서울대)는 "대학이 대형구제 발굴에서 물러나고 그 자리를 비영리 공공 발굴전담기구가 맡아야 한다"며 "각 도마다 최소한 1개씩의 발굴전담기구가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4년 국내 최초로 발굴전담기구를 설립한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이백규원장은 "민간주도의 매장문화재연구원 설립은 시급한 당면과제이나 발굴전담기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문화재관리와 관련 새로운 학문분야의 접근방안도 제기됐다. 최성락교수(목포대)는 "정비목적의 발굴은 공사차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주변환경을 파괴하거나 원형의 훼손을 가져오고 있다"며 "학술발굴의 활성화와 아울러 발굴에 앞서 문화유산의 평가와 보존에 중점을 두는 미국의 CRM(Cultural Recourse Management: 문화자원관리)과 같은 분야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현재 문화재관리국이 추진하고 있는 매장문화재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작업에 활용돼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윤기석 기자



◇매장문화재 발굴은 전문인력 1~2명에 불과한 대학박물관이 전담하고 있어 오히려 파괴를 가져온다는 지적도 있다.

"자유자재하는 金仙魚 낚자"

이외수씨 5년만에 신작 '황금비늘'

장편소설 〈벽오금학도〉 이후 5년만에 소설가 이외수씨〈사진〉가 장편소설 〈황금비늘〉(동문선刊, 전2권)을 내놓았다.



〈황금비늘〉은 모든 생명체가 불로장생할 수 있는 자비로운 공간이라는 무원동에 살고 있는 전설속의 물고기, 금선어의 비늘이다. 영혼이 투명한 이만이 볼 수 있다는 금선어, 안개 속을 자유자재로 헤엄쳐 다닌다는 금선어를 찾는 이들을 통해 이외수씨는 탐욕과 미망에 사로잡힌 인간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우쳐 주고 있다.

소설의 주인공은 창생보육원에 살고 있는 여섯 살짜리 어린이 김동명. 소설은 아이가 열 다섯 살이 될 때까지 10여년 동안 삶을 배워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주인공 동명이는 보육원에서 도망쳐 나와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휠체어를 탄 장애인 김씨, 맹인 지압사 조선생 부부와 함께 살아간다. 장애인 김씨는 당대의 유명한 소매치기 번개손. 간암으로 죽음을 앞 둔 그에게서 소매치기 기술을 배운 동명이는 진정한 인간의 도리에 대해 하나씩 깨우쳐간다.

"소중한 것들을 방생하다 보면 천하를 방생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절로 천하를 가지는 법도 배우게 되느니라"는 무간선 할아버지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투명하게 볼 수 있게 된 동명이. "마음 안에 촛불을 환하게 켜 놓으면 누구든지 저절로 알게 된니다"란 말을 남기고 금선어를 보며 춘천을 떠나가는 동명이의 정신세계는 이미 깨달은 이다.

강지연 기자

불심시심 〈90〉

옷깃으로 안은 만리의 바람

獨上高高鐵嶺山 (독상고고철령산)	높고 높은 철령산을 홀로 오르니
蒼蒼一面海門關 (창창일면해문관)	한쪽으로 푸릇푸릇 바다 문 열리다
襟前萬里長風引 (금전만리장풍인)	만리의 바람결 옷깃으로 당기고
袖下千峰片月閑 (수하천봉편월한)	소매 밑 천 봉우리 조각달 한가롭다
人語能傳雲漢外 (인어능전운한외)	이야기 소리 은하수 저쪽까지 전할 수 있고
手迥可接斗牛間 (우공가접두우간)	지팡이도 닿을듯한 북두와 견우성 사이
更登絕頂逍遙久 (갱등절정소요구)	다시 절정에 올라 소요하다 보니
若木扶桑日可還 (약목부상일가환)	해 뜨고 지는 동과 서도 하루 길인 듯

이 시도 천경대사의 시이다. '철령의 시에 차운한다(次鐵嶺韻)'는 제목이다. 구름도 쉬어 넘는다는 높은 철령을 노래한 것이다. 이 높은 철령을 혼자 넘으며 그 탁 트인 시계를 시원하게 읊은 시이다.

높다는 말은 시계가 멀리 트인다는 말이다. 시계는 무한의 수평선이다. 수평선은 바다의 끝이다. 그러기에 이 철령도 오르자마자 눈에 드는 것이 아득히 펼쳐진 바다이다. 산에 오르면 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절정에 오르면 시선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가는 것이 오히려 상식이다. 이것이 바로 위 아래로 구성되는 공간에 갇힌 사람으로서의 일상적 자연스러움이다.

이 시도 이러한 자연을 구도화하였다 하겠지만, 시선의 끝 간데를 일면(一面)이라 한 공간적 형용과, 바다 끝을 바다 문이 열리다 한 시선의 트임을 첫 구로 삼음으로 하여 다음 시구들이 차지할 활달함을 예시한 느낌이어서 더 시원하게 느낀다.

옷깃은 외부와의 경계선이기에 닫으면 막힘이요 풀어헤치면 받아들임이다. 산정에 오르면 옷깃을 풀어헤침이 누구에게나 지금까지의 답답함을 풀자는 의도요, 이 풀어헤침은 받아들임의 첫 신호이다. 이 시는 이러한 열림의 순간에 저 만리의 바람을 끌어당기고 있으니 작자의 포용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 온갖 봉우리와 대낮에도 떠 있는 조각달은 소매 밑에서 한가롭다.

이렇듯 하늘에 가깝고 바다에 떠 있는 공간이니, 내 말 소리가 은하수에 전해질 듯하고 산에 오도록 도와준 지팡이는 이제 북두성을 어루만질 수 있는 갈궁이이다. 모두가 높은 절정을 상징하는 시어들이지만, 작자를 중심으로 구도화한 한 편의 그림이요 자신을 이 우주 공간의 주인으로 미화한 느낌이다. 그러기에 해 뜨는 부상이나 해 지는 약목을 하루에 오갈 수 있다 하였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티벳불화 국내 첫 도록 나왔다

한빛문화재단 '탕카의 예술'

티벳 불교미술의 가장 중요한 장르인 탕카(티벳불화)가 국내에선 처음으로 작품해설과 함께 도록으로 발간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빛문화재단 한광호이사장은 지난 40년간 티벳을 비롯 중국, 일본, 미국, 영국 등지에서 수집한 탕카 3백여점 중 질적으로 우수한 1백여점을 엄선·수록한 〈탕카의 예술(Art of THANGKA)〉을 최근 출간했다. 티벳불교 사학자인 다나카 기미아키(田中公明)교수가 작품의 선정과 해설을 맡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 책은 티벳 불교미술의 정수라 할 수 있는 만다라를 비롯 촉상(공양도), 여래, 조사, 수호·분노존, 보살, 불모(佛母)·여보살, 호법존, 나한, 기타, 본교미술(本敎美術) 등 11가지 주제로 나눠져 있다. 이 가운데에는 우리나라 불화에서도 자주 보이는 불, 보살, 나한도 및 제신장상이 있어 티벳 불교미술의 새로운 이해는 물론 양국 불교미술의 비교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엄선작품 1백여점 수록
티벳불교 이해도 높여

정양모 국립중앙박물관장은 "티벳불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도록이 한국에서 출간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며, 특히 영국 런던대 위트필드교수와 박영숙씨 부부가 영어관을 동시에 펴내 이 책에 수록된 티벳불화의 우수성을 한층 높여 주었다"고 평가했다.



◇티벳불교미술의 정수 탕카(불화)중 보살상.

한광호이사장은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탕카지만, 이 도록의 발간으로 티벳불교 사상과 역사를 이해하는데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며 "지금껏 수집해온 불화를 비롯 불교조각, 공예품 등의 분류가 끝나는 대로 1백50평 규모(단층)의 동양박물관을 세워 전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석〉

문화 소식

25일 불미협 회원전

한국불교미술인협회(회장 박찬갑) 제4회 회원전이 오는 25일부터 7월1일까지 일주일간 인사동 덕원갤러리 3층 전시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영화 박찬갑 강행원 손연칠 진철문 이미숙씨 등 회원들의 그림 조각 등 30여 작품이 전시된다. (02)723-7771

경주 남산에 안내판

신라문화원(원장 진병길)은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남산 삼릉 솔숲에서 유적지안내판 설치와 환경정화운동을 벌인다. 이번 행사에서는 경주향토사학자 윤경렬선생의 '경주 남산의 문화재보존과 시민운동' 주제의 특강이 있고 삼릉 불두없는 불상, 삼화령, 용장사지 등 5곳에 유적지 안내표지판을 설치, 제막식을 갖는다.

한편 경주일원에서 각종 유적답사와 문화강좌, 청소년을 위한 문화마당, 전시회, 등 경주를 널리 알리고 우리 고유문화의 전승보급에 앞장서온 신라문화원은 지난 17일 개원 4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0561)746-1950

이만희 강영걸의 연극축제

'그것은 목탁 구멍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등 히트작을 연달아 낸 불자 극작가 이만희(43)씨가 연출가 강영걸씨와 함께 작품을 집중 조명하는 장기공연이 마련됐다.

(주)문화예술관 서울 두레가 2년여에 걸쳐 마련하는 '이만희 강영걸의 연극축제'를 통해 이만희씨는 '돼지와 오토바이'(6월 12일부터)를 시작으로 오는 99년 1월까지 '그것은 목탁구멍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 '돌아서서 떠나라' '피고지고 피고지고' '불 좀 꺼주세요' 등 히트작을 잇달아 선보인다. (02)3673-2961

6회 행원문화상 공모

(재)행원문화재단(이사장 주영운)은 제6회 행원문화상을 공모한다. △역경 △문학 △예술(전통·현대) 등 3분야로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각 1인으로, 신청기간은 6월 30일까지.

시상식은 9월24일. 상금은 각 3백만원. (02)926-4377

인간문화재 초청공연

호암아트홀 초청 인간문화재 공연이 26일부터 29일까지 4일동안 호암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매방(26일) 묵계월 이은주(27일) 박병천(28일) 성창순(29일) 씨 등이 참여, 승무, 허튼춤, 경기민요, 아리랑연곡, 제석굿, 북춤, 가야금병창, 춘향가 등 전통춤과 민요, 굿, 판소리 등을 선보인다. (02)751-9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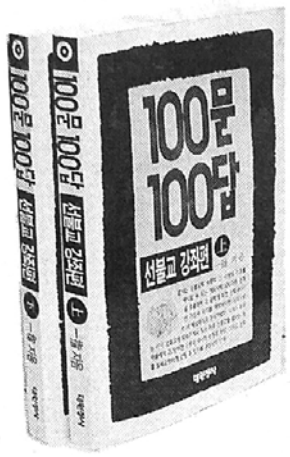
김부견씨 日서 작품전

불자화가 김부견씨가 6월16~21일 일본 오오사카시 천야화랑에서 천불천탑을 소재로 한 '몽(夢)'전을 갖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운주사의 신비스러운 불상과 탑을 소재로 한 50여점이 전시되고 있다.

원철스님 시집 '광대'

원철스님(호암사)이 시집 〈광대〉(북토피아 刊)를 펴냈다. 힘있는 시어구사가 돋보이는 스님은 '광대'를 소재로 해 일상용어로써 현세태를 풍자하며 자연스럽게 불교적인 승화를 느끼게 해주고 있다.

제2회 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지음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교정신이 창출한 하나의 생명체이다."
신국판 / 7,000원
사찰의 초입(初入)인 일주문에서부터 법당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에 간직되어 있는 뜻, 범종 등의 사물(四物), 석등·탑·법당의 구조와 변천을 상세히 밝혔을 뿐 아니라, 대웅전·대적광전·극락전·미륵전·관음전·명부전·삼성각 등에 깃든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루어 불교정신을 새롭게 느끼게 한다.
김현준(金鉉埈)
現 불교신행연구원 원장
월간 《법공양》 발행인
* 불교신행연구원 《불교문화배움터》 동참 안내 *
· 매월 첫째 목요일 : 불교미술전공교수초청 특강(불상·불화·목공예 등)
· 매월 셋째 목요일 : 김현준 원장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강의
· 시간 : 오후 7시 / 장소 : 대학문화원 (장충동 앰버서더호텔 옆)
※ 누구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주십시오. (02) 587~6613
불교신행총서 [II]
관음신앙 · 관음기도법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불교신행지침서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의 대자비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대다수 우리나라 불자들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참된 기도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님의 구원능력과 자비의 참뜻, 관음신앙의 뿌리를 잘 알아서 참된 믿음을 일으켜야 하고, 관세음보살의 자비광명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관음관법과 기도법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책 속에는 관음신앙의 뿌리부터 관음의 종류, 관음의 구원능력,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알기 쉽게 풀이되어 있다. 고난을 벗어나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제1장 관세음보살 어떠한 분이신가? (관음신앙의 뿌리,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 제2장 자비관음의 여러가지 모습 (성관음·천수관음·십일면관음·육관음 등) / 제3장 관음관 (일념관법·경전 속의 관음관법 등) / 제4장 관음기도법 (관음색신관·관음염불·자광삼매기도법 등)
B6 / 160면 / 값 3,500원
경·봉·대·선·사·일·대·기
바보가 되거라
김현준 지음
한국불교선학계의 최고봉 경봉대선사 자화상
"예리한 지혜의 눈과 깊은 자비심으로 모든 이의 자유로운 삶을 일깨웠던 경봉대선사. 누구든지 이 책을 펼쳐들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살아움직이게 하는 진솔한 대도인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신국판 / 220면 / 값 4,300원
·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동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 · 팩시밀리 : (02) 586~9078



일지스님 著 **선불교 강좌 100문 100답**

"그대 자신의 붓다를 스스로 발견하라(內心自證自覺聖智)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참선수행자들의 영원한 화두다. 최근들어 이러한 불교적 화두가 대중적인 정신문화 지침으로 철학, 문학, 영화, 미술 등의 분야에까지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

"禪, 미래사회 이끈다"

수행과 사상 현대적 禪실천 폭넓게 다뤄

현대인들의 선에 대한 관심이 이처럼 날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진정한 선(禪)이란 무엇인가'를 문답형식으로 명확하게 제시한 책이 발간됐다.

선에 대한 폭넓은 정보는 물론 선의 진정한 의미와 그 보편적 입장을 전달하는데 있어 하나의 이정표를 제시해 줄 〈선불교 강좌 100문 100답〉(대원사 刊)이 바로 그것.

상, 하 두권으로 구성된 이 책은 한국불교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세계종교와 사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 나가고 있는 선불교의 수행과 사상적 기초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사항 100가지를 추출해 그에 대한 선적인 기원과 의미를 큰 주제 중심의 해설체제로 정리해 놓았다. 특히 선, 선종사, 선사, 종파, 문헌, 공안, 사상, 문화를 중심으로 선불교에 관해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을 조목조목 담아 다양한 정보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달마에서 임제까지〉, 〈선학사전〉, 〈선이야기〉 등 선 관련서를 펴내며 선불교를 연구해 온 저자 일지스님(수국사)은 이 책에서 '선이란 무엇인가', '한국불교의 선종은 어떻게 성립되었는가', '구산선문이란 무엇인가', '지금 우리나라 선원에서는 선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선의 현대적 전개와 실천을 어떻게 전망할 것인가'라는 물음을 스스로 던지고 답한다. 이를 통해 한국선의 독특한 입장을 소개하고 한국선에 대한 자기정체성은 물론이고, 선의 흐름 전반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보리달마로부터 시작해 성철스님에 이르기까지 선의 역사에 중요한 발자국을 남긴 위대한 선사들의 행적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기존의 선관련서들 대부분이 일본번역서거나 선사들의 일화를 중심으로 한 흥미위주였던데 비해 일지스님의 긴 호흡과 직관적이고 명확한 문체로 쓰여져 선불교의 살아있는 생명력을 맛볼 수 있게 한다.

"선은 인간의 절대적인 관단력을 신뢰하고 깨달음이라는 압도적인 인간 긍정의 불교를 설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인들이 앞으로도 더욱 주목하게 될 것"이라고 현대사회에서 선이 더욱 부흥할 것이라고 예견하는 일지스님은 선불교를 인문학적 견지에서 검토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문화형태로 전환시켜 나가는 불교운동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 스님은 불교의 시점에서 현대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난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선의 사회적 실천'도 강조한다.

스님은 "선은 불교의 발생이래 그동안 축적해 온 고도의 교학체계와 주체적인 실천의지로 꽃피워낸 동양정신의 금자탑이다. 이제 선은 서양의 여러 사상과 비관적 대결을 거친 뒤 미래사회를 이끌고 갈 새로운 불교, 새로운 정신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결론내린다.

이은자 기자



'불경이야기'



'박물관에서 훔친 차'

어린이 불서 2권 '햇빛'

어린이를 위한 책 2권이 나란히 출간됐다. 〈불경이야기〉(국민서관 刊)와 〈박물관에서 훔친 차〉(대원사 刊)가 바로 그것.

〈불경이야기〉는 수많은 불교경전속에 나오는 석가모니의 일생과 불교교리, 부처님의 설법 등을 초등학생들이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한 책이다. 이책은 왕자의 탄생, 부처님의 길, 가르침을 펴다, 이길수 없는 싸움, 설법의 대행진, 부처님 말씀, 열반에 들다 등 7개의 주제로 묶었다.

왕자의 길을 버리고 고행과 깨달음의 길에 들어선 석가모니의 행적이 오늘날의 어린이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 책은 어린들에게 불교라는 종교가 어떤것인지, 지혜와 자비의 정신이란 무엇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어린이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재미있는 삽화도 곁들였다.

창작 동화집 〈박물관에서 훔친 차〉는 사랑과 우정의 이야기, 자연의 아름다움, 생명이 갖는 신비로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자기자신에 대한 사랑을 찾게 해주는 주옥같은 이야기 열한편을 담았다. 동화작가 김숙희씨가 쓴 이 책은 사랑이라는 말이 난무하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빛을 잃지 않는 영롱한 동심의 세계를 표출해 내고 있다.

'한국현대시 시어사전' 나왔다

김재홍교수 20년 작업



'해저문 벌판에 돌아가는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양이 기루어 이 시를 쓴다' 한용운스님의 유명한 시 〈님의 침묵〉에 나오는 '기루어'란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 현대시에 나오는 고어, 방언, 속어 등을 자세히 풀이한 시어사전이 나왔다.

경희대 김재홍교수(국문학·만해사상실천선양회 상임대표)가 〈한국현대시 시어사전〉을 펴낸 것.

이 책은 1921년부터 95년까지 간행된 시집중 중요한 시집 1천권에서 개인시어, 상징시어 등 1만2천 단어를 표제어로 추려내 풀이해 놓았다. 표제어마다 시 원문과 출전이 실려있고, 말미에는 연도별로 간행된 국내 시집의 전체목록을 수록했다. 〈고려대 출판부 刊〉

책방 여시아문 도서특판전 '불교문화를 찾아서'

우리 민족문화의 근간인 불교문화를 되돌아보자는 취지에서 책방 여시아문이 '불교문화를 찾아서' 불서특선코너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는 사찰안내서와 사지를 비롯 불교문화 입문서와 개론서, 서예, 회화, 건축, 조각, 불상, 의식 등 불교문화와 예술 전분야 관련 도서 1백여권이 이달말까지 전시 판매된다.

(02)737-0695

화제의 책

사형수 교화 30년체험 이야기로 묶어

그림자 없이 살다가… 심중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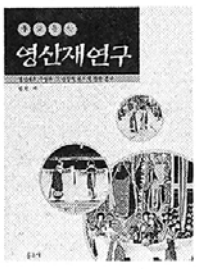
1967년 부처님오신날 교도소를 찾아 첫 법회를 열면서 재소자 포교에 뛰어든 박삼중 스님이 30년 포교현장에서 체험했던 가슴 벅찬 이야기를 담은 〈그림자 없이 살다가 흔적도 없이 가는 것을〉.

사형수 스님에 대한 이야기, 사이비승려로 오해받았던 일 등의 사연이 담겨있다.

"세상은 언제나 시끄럽다. 시끄러운 세상 중생과 부처사이에 교도소가 있다. 중생계라는 교도소 안에 있는 재소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을 때 교도소는 텅비게 될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스님은 "지나 온 30년의 인연을 돌이켜 참회하며 모든 교도소에 한사람의 재소자도 없게 되는 그날까지 몇천억번을 다시 와서라도 이 불사를 계속하겠다"는 서원을 밝힌다. 〈제일미디어 7천원〉

의식 진행과정 · 신앙적 의미 등 고찰

영산재 연구 법현 지음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인 법현스님(동국대 강사)이 쓴 〈영산재 연구〉는 대표적인 불교의식인 영산재를 중심으로 의식의 진행과정과 그속에 담긴 신앙적 의의를 고찰, 구음(口音)으로만 전해지고 있는 불교음악의 맥을 밝혀 놓았다.

영산재 구성과 범패기능, 영산재 작법진행에 있어서 범패와 작법무 등을 상세히 살피고 있는 이 책은 지정문화재로의 영산재 보존의미와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부록으로 그동안 문헌으로 정리되지 않은 안채비성과 바깥채비성 등 범음(梵音) 악보를 수록해 범패를 익히는데 있어 도움을 준다. 특히 사진작가 석선암스님이 찍은 영산재 사진을 담아 영산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은주사 1만5천원〉

"인생살이 괴로움 어디에서 오는가"

불교를 묻는 이에게 원연 지음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 스며있는 불교를 이야기하는 것은 불법을 포교하는데 있어서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과제 가운데 하나다.

〈불교를 묻는 이에게〉는 이러한 과제를 '우리들의 괴로움은 어디서부터 오는가'라는 물음에서부터 풀어낸다. 이 책은 나(我)라는 존재의 근원에 대한 탐구과정에서 출발해 자연스럽게 불교란 무엇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떠한 것인지를 설파해 내고 있다.

"삶에 대한 고민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별다른 묘책을 제시해 주지 못한채 전전긍긍하다가 한가지 방법으로 이 책을 출간하게 됐다"고 저자 원연스님(일본 오사까 관음사)은 말한다.

〈대흥기획 7천원〉

새로나온 책



▲하늘호수로 떠난 여행=인도와 티벳을 주로 여행하며 사진을 찍고 글을 쓰는 류시화씨가 지난 10년동안 열차례에 걸쳐 인도등지를 여행하면서 체험한 엉뚱하고, 기발하고, 감동적인 일화들을 모은 것이다. '전생에 나는 인도에서 살았다',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이고 어디로 가는가' 등의 이야기속에 인연과 윤회의 깊은 사상이 흐르고 있다. 〈열림원 7천8백원〉

▲알기쉽게 풀어쓴 불교입문=불교전후의 인도사상에서부터 부처님의 가계, 제자들의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담았다. 이 책은 재야불교학자 류정훈씨가 불교의 역사와 사상을 알기쉽게 풀어썼다. 〈불교시대사 6천원〉

▲서울의 문화유산 탐방기=건축물에 대한 탐방기가 실려있다. 이 책은 수천년의 향취가 배어있는 역사와 문화의 도시로써의 서울을 재조명한다. 〈서울학연구소 7천5백원〉

▲천상병시인과 맥주값500원=중광스님의 에세이. 이 책에서 스님은 삶과 예술, 종교등 인생의 모든 문제에 관한 생각을 차분히 털어놓으면서 혼란스런 요즘 세상에 대한 개탄을 담아낸다. 스님은 "천상병 시인은 맥주값 500원으로 이 세상을 즐겁게 살다가 가셨는데…"라면서 우리의 도덕불감증을 개탄하고 있다. 〈기린원 7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2	불교입문	조계종포교원	조계종 출판사
3	관음신앙 관음기도법	김 현 준	효 림
4	한국 사찰음식	김 연 식	우리출판사
5	암자로 가는 길	정 찬 주	좋 은 날
6	마음을 다스리는 법	김 정 빈	둥 지
7	부처에게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	유 필 화	한 언
8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	현대불교신문사	여시아문
9	한권으로 읽는 팔만대장경	진 현 종	들 녘
10	불교대전	이 원 섭	현 암 사

구입문의:(02)737-0695

책방 여시아문이 마련한 6월 불서 특선 코너 사찰·불교 문화 관련서

사찰 안내 · 사지

갓바위 부처 사찰문화연구원/ 사찰문화연구원/ 10,000원
보문사 사찰문화연구원/ 사찰문화연구원/ 10,000원
용주사 사찰문화연구원/ 사찰문화연구원/ 10,000원
강원의 전통사찰 1, 2 사찰문화연구원/ 사찰문화연구원/ 각 7,500원
서울의 전통사찰 사찰문화연구원/ 사찰문화연구원/ 10,000원
전남의 전통사찰 사찰문화연구원/ 사찰문화연구원/ 12,000원
경기도 사찰문화연구원/ 사찰문화연구원/ 10,000원
경주 남산 열화당/ 강운구/ 120,000원
관음성지를 찾아서 우리출판사/ 정만스님/ 5,000원
돌부처 여시아문/ 이근후/ 6,500원
명찰 한국문원/ 편집부/ 15,000원
북한 불교 답사기 민족사/ 정태혁/ 5,500원
겨레의 땅, 부처님 땅 불지사/ 윤경렬/ 18,000원
NAMSAN(남산) 영문·일어 불지사/ 40,000원
직지사(본사편) 불지사/ 성보문화재보존연구원/ 35,000원
직지사(말사편) 불지사/ 성보문화재보존연구원/ 35,000원
금산사 일지사/ 한국불교연구원/ 2,500원
낙산사 일지사/ 한국불교연구원/ 2,500원
대흥사 일지사/ 한국불교연구원/ 2,500원
범어사 일지사/ 한국불교연구원/ 2,500원
법주사 일지사/ 한국불교연구원/ 2,500원
부석사 일지사/ 한국불교연구원/ 2,500원
불국사 일지사/ 한국불교연구원/ 2,500원
석굴암 일지사/ 한국불교연구원/ 2,500원
송광사 일지사/ 한국불교연구원/ 2,500원
신륵사 일지사/ 한국불교연구원/ 2,500원
월정사 일지사/ 한국불교연구원/ 2,500원
전등사 일지사/ 한국불교연구원/ 2,500원
통도사 일지사/ 한국불교연구원/ 2,500원
해인사 일지사/ 한국불교연구원/ 2,500원
화엄사 일지사/ 한국불교연구원/ 2,500원

입문서 · 개론서

금강산도 연구 일지사/ 박은순/ 20,000원
달마도의 세계 학문사/ 최순택/ 15,000원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 대원사/ 최광남/ 6,000원
북한의 사찰 일지사/ 한국불교연구원/ 2,500원
불상의 탄생 예경산업사/ 다카다오사무/ 7,000원
세계의 불교 미술 불교신문사/ 불교신문사/ 13,000원
원융과 조화 열화당/ 강우방/ 40,000원
인도 미술사 예경산업사/ 벤자민로울랜드/ 15,000원
전통사찰의 창건 설화 창/ 서문성/ 6,800원
조선시대 지장시왕도 연구 일지사/ 김정희/ 20,000원
조선 전기 불복장직물의 이해 미술문화/김영숙/20,000원
종교와 예술 열화당/ 게라두스반데르레우후/ 4,500원
중국 석굴과 문화 예술(상) 경인문화사/ 배진달/ 22,000원
중국 석굴과 문화 예술(하) 경인문화사/ 배진달/ 65,000원
한국 고고학 개설 일지사/ 김원용/ 7,000원
한국 금석유문 일지사/ 황수영/ 25,000원
한국 사찰에 얽힌 이야기 보문경문화사/ 전영진/ 6,500원
한국의 종 서울대학교출판부/ 염빙하/ 25,000원
한국 종교 복식 아세아문화사/ 이창세/ 6,000원
화엄연기 민족사/ 민족사편집부/ 45,000원
화엄연기 우인각/ 안광석/ 100,000원
나는 공부하러 박물관 간다 효형/ 이원복/ 10,000원
옛그림 감상법 대원사/ 한정희/ 3,500원

서예 · 회화

한국 사찰의 주련 1 전원문화사/ 권영한/ 10,000원
한국 사찰의 주련 2 전원문화사/ 권영한/ 10,000원
고려 불화(한국의 미 7) 중앙일보사/ 이혜범/ 20,000원
고려 불화 열화당/ 문명대/ 4,500원
꽃문 미술문화/ 관조 스님/ 25,000원
단청 보성문화사/ 장기인 외/ 15,000원
대웅전 미술문화/ 관조 스님/ 18,000원
벽화로 보는 불교 이야기 해인사출판부/ 해인사출판부/ 12,000원
벽화 이야기 전원문화사/ 권영한/ 12,000원
선묵달마 학문사/ 범주/ 15,000원
선화 연구 원광대학교출판국/ 최순택/ 12,000원
선화의 세계 학문사/ 최순택/ 12,000원
실크로드 미술 열화당/ 권영필/ 40,000원
인도 종교 미술 동문선/ 아지트무케르지/ 14,000원
조선 불화(한국의 미16) 중앙일보사/ 김병수/ 20,000원
조선 후기 그림 글씨 학고재/ 이태호/ 20,000원
조선 후기 회화의 사실 정신 학고재/ 이태호/ 15,000원
한국의 불교 미술 민족사/ 장충식/ 7,000원
한국 고미술의 이해 서울대출판부/ 서울대출판부/ 6,000원
한국 미술 문화의 이해 예경산업사/ 장경희 외/ 14,000원
한국 미술사 서울대출판부/ 김원용 외/ 28,000원
한국 불교 미술사 솜/ 김영주/ 20,000원
한국 불교 미술사 한국언론자료간행회/ 문명대/ 18,000원
한국 불교 미술의 형식 한국언론자료간행회/ 문명대/ 14,000원
한국의 불교 미술 대원정사/ 홍윤식/ 8,500원
한국의 불화 열화당/ 문명대/ 5,000원
화기집 가람사연구소/ 홍윤식/ 12,000원

건축 · 조각 · 불상 · 의식

목조 보성문화사/ 장기인/ 12,000원
불상(한국의 미 10) 중앙일보사/ 이해범/ 20,000원
서역 불교 조각사 일지사/ 임영애/ 14,000원
신라 석탑 연구 일지사/ 장충식/ 6,000원
신라의 폐사1, 2 일지사/ 한국불교연구원/ 각 2,500원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학고재/ 윤용이/ 12,000원
우리 건축을 찾아서 1 발언/ 편집부/ 6,000원
우리 건축을 찾아서 2 발언/ 편집부/ 6,000원
한국 불교 조각의 흐름 대원사/ 강우방/ 20,000원
한국 고대 불교 조각사 연구 일조각/ 김이방/ 20,000원
한국 석등 양식 동화문화사/ 김기웅/ 6,500원
한국의 건축 서울대출판부/ 윤장섭/ 36,000원
한국의 목공예(상) 열화당/ 이종석/ 9,000원
한국의 목공예(하) 열화당/ 이종석/ 9,000원
한국의 불상 문예출판사/ 황수영/ 20,000원
한국의 불상 일지사/ 진홍섭/ 10,000원
한국의 석조 미술 문예출판사/ 황수영/ 25,000원
한국의 탑 일지사/ 장충식/ 4,500원
한국 조각사 열화당/ 문명대/ 11,000원
불교 의식구 신유/ 동국대박물관/ 9,000원
성철 큰스님 만장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9,000원
한국 불교의 사리장엄 열화당/ 강우방/ 4,500원

찾아오시는 길



책방 여시아문 통신판매 안내

책방 여시아문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02)737-0695, 732-1521
팩스:(02)737-0696

"프랑스인 불교매료 이유 生死 바로보는 가르침"

佛 손타크 신부 20일 내한 강연

인구의 1/4이 윤회를 믿고 있고 불교관련 출판물이 급증하고 있는 프랑스. 이러한 불교 열풍은 일시적인 현상인가. 아니면 불교사상의 이해에 따른 관심 증폭인가.

가톨릭종교문화연구원(원장 김몽은)이 20일 서강대에서 개최하는 창립기념 심포지엄에서 안톤 손타크신부(프랑스 주교회 정의평화위원회 사무총장)는 '아시아 종교가 유럽사회에 미친 영향'의 주제 강연을 통해 이와같은 프랑스의 불교 열풍을 진단한다. 손타크신부의 논문을 미리 소개한다.

"프랑스인에게 현세적인 행복을 약속해온 전통 종교인 기독교가 20세기말에 닥친 인류의 환경 파괴와 질병·기아 등의 문제에서는 한계를 보여 많은 프랑스인들이 기독교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분석한 손타크신부는 "반면 불교는 인간의 경험과 정서 속에서 우러나온 진리인 '사성제' '윤회' 등의 사상을 통해 이 세계가 겪는 고(苦)의 원인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어 역동적이고 진실을 바라보는 종교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불교에 귀의하고 있는 프랑스인 중에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원 등 인간의 죽음과 빈번히 마주치는 전문직 여성들이 대다수"라며 "이것은 개인의 자존(自存)에만 집착해 생사(生死)를 바로보지 못했던 프랑스인이 불교의 '윤회' 사상을 통해 삶과 죽음을 이해하고 또 인간이 무엇이고 삶이 무엇인가 라는 정체성을 찾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손타크신부는 또 "무신론적 경향이 강해지는 프랑스인들은 개인이 겪는 고뇌와 장애를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데 이럴때 불교적 수행은 자성을 통해 내면의 조화를 이루어 감춰져 있던 잠재력을 이끌어 내기에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

한편 손타크신부는 "프랑스에서 불교가 중심 종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티벳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불교 등이 혼재되어 있는 프랑스 불교계가 연대해 정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종욱 기자



◇ '프럼빌리지'(Plum Village)는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불교공동체. 한달간의 '여름수행'에 참여한 프랑스인들이 틱낙한스님과 행선을 하고 있다.

'唐 화엄학자의 儒道비판'

21일 백련불교아카데미 강좌

성철선사상연구원(원장 목정배)이 제2회 백련불교 아카데미 강좌를 21일 대학문화원 교육관에서 개설한다. 신규탁 교수(연세대 철학과)가 '당(唐)대 화엄학자들의 유도(儒道) 비판'을 주제로 강의한다.

신교수는 중국 불교사의 대전환기를 이룬 당나라의 수용관과 사유의 원형을 탐구할 예정이다. (02)265-5215

불교 원전 연구 '가속도'

팔리성전협 창립…회장에 전재성교수

가산불교硏 연구·번역서 하반기 출간

그동안 미미한 단계에 머물러 있던 우리나라 불교학계의 원전 연구가 최근 한국팔리성전협회의 창립,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의 원전 번역서 잇따른 출간 등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어 주목된다.

21일 광륙사(주지 능인)에서 창립법회를 갖는 한국팔리성전협회는 회장에 〈팔리어사전〉을 낸 바 있는 전재성교수(한국불교대)를 선임하고 서돈각·원의범·김용정 박사 등 학계 원로를 고문으로 위촉해 놓았다.

지난 3월 영국의 세계팔리협회(회장 곰브리지, 옥스포드대 범어학)의 승인을 받은 이 협회는 앞으로 〈팔리어 기초문법〉 〈예불둔〉 〈쌍윳따니까야〉(아함경 일종)의 경·율·논·주석서 등을 비롯해 팔리삼장의 한국어 번역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난 7년간 원전연구 프로젝트인 가산학술총서를 진행하고 있는 가산불교문화연구원도 올 하반기부터 계속해 연구·번역서를 집중 출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연구위원인 이종철교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 철학종교학)가 〈아비달마구사론〉중 '계품'(界品)을 12월경 출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지수교수(동국대 인도철학)가 〈유식삼십송〉, 김성철박사(동국대 인도철학)가 〈중론〉, 최봉수박사(동국대 불교학)가 팔리어 사서류 등의 논소(論疏)를 맡아 연구-번역 중이며 〈대승집보살학론〉, 〈이부종사론〉, 〈해심밀경〉, 〈대승장엄경론〉 등의 연구와 번역도 진행되고 있어 내년 상반기부터 논소 관련 원전 번역서의 출간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관스님은 "불교사상의 임의적 해석을 지양하고 부처님의 근본교의를 올바로 전승하기 위해 소장학자들 위주로 원전 논소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전문 학술원의 원전연구로 얻은 부처님의 근본 뜻이 한국불교의 수승한 사상적 전통을 창의적으로 계승하는데 탄탄한 반석이 되고 우리불교의 수행전통을 향상시켜 불교학을 정착하는데 일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욱〉



◇원전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은 교육기관 '삼학원'을 통해 '원전연구 2세대'를 양성하고 있다.

베트남 불교소식 「화면에」… 틱낙한 스님 동정도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로터스 넷

베트남 불교계 소식과 불교도서 정보, 불교음악는 물론 베트남어까지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 '로터스 넷'이 개설됐다.

'로터스 넷'은 베트남 불서 12권의 내용을 요약해 텍스트 정보를 제공하고 책의 표지그림도 그래픽 정보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90여종의 법어 명상 기타 불교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불교음악이 수록된 테이프 11개도 공개해 이곳을 방문한 네티즌은 인터넷 상에서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VPS(베트남어 프로그램)를 웹브라우저에 설치해 텍스트 정보를 열람하면 베트남어도 공부할 수 있다.

불교전자잡지 〈로터스〉가 제공하고 있는 '로터스 넷'에는 '불자의 도리' '명상과 수행' '전쟁과 평화' '과학과 불교' 등 총 17가지 주제에 대한 담마난다스님(베트남)의 글과 '도둑과 왕' '정말인가요' 등의 베트남의 전래 불교우화도 열람-로딩할 수 있다.

이외에도 7월15부터 한달간 '프럼빌리지'(프랑스)의 여름수행을 주관하고 9월초순 워싱톤(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틱낙한스님의 1997년도 일정을 소개하고 있다. 주소 'http://www.telepath.com/lousnet/home.htm'

나와 경전 11

해심밀경



장 백 일

〈국민대 문과대학장·문학평론가〉

사람의 심리 작용 무의식 세계 해명

몸은 마음의 부속물…정신분석학 '뿌리'

기쁨도 미혹도 깨달음도 마음에서 온다. 그 마음이 작용하는 범위는 끝이 없다. 깨끗한 마음에서는 깨끗한 경계가 나타나고 더러운 마음에서는 더러운 경계가 생겨난다. 경계의 변화에도 끝이 없다. 그 경계도 마음이 만들어낸다. 그래서 세상사 일체는 마음 작용 아닌 것이 없다.

부처님의 경계는 언제나 맑지만 사람이 만든 경계는 항상 번뇌로 더러워져 있다. 일체가 마음의 작용임을 부처님은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진실의 부처님과 만나게 된다. 무명과 탐욕이 있기에 미혹에 빠지게 되고 그 또한 마음의 작용에 의한다. 삶도 죽음도 마음에서 생긴다. 그것 역시 마음속에 있으므로 삶과 죽음에 얽매이는 마음이 멸하면 생사의 세계도 다 된다. 그러기에 마음을 떠나 생사가 없다는 것을 알면 깨달음을 얻는다.

내주인은 나의 마음이다. 더러운 마음으로 판단하고 행하면 그 괴로움이 또한 수레가 마소를 따름과 같다. 부처님이 설하신 〈팔만대장경〉은 한마디로 마음공부의 경전으로 집약된다.

그중에서도 〈해심밀경(解深密經)〉은 사람의 심층심리를 체계적으로 꿰뚫은 경전이면서 논집으로 설한 특이한 경전이다. 즉 내 마음, 나도 모르는 실로 오묘한 마음의 작용을 깊게 해명한 경전이다. 곧 유식사상(唯識思想)의 근본 경전으로서 아뢰야식과 말나식의 연기를 처음으로 부처님께서 설한 경전이다. 인간의 심층세계인 무의식을 학리적으로 밝힌 불교대승의 이론적 집대성이다. 그렇기에 이 경전을 제하고는 불교사상을 생각할 수 없다. 특히 본경전의 '분별유가품 제6'은 마음 작용과 그 번혜을 오묘하고도 절묘한 논리로써 파헤치고 있다. 다음과 같은 구절을 보자.

"부처님께서 자씨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마땅히 다름이 없다고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저 그림자(影像)는 오직 마음 때문이다. 선남자여, 내가 설한 바 마음이 얽혀 맺어진 인연은 오직 마음에서 나타난다."

이는 자씨 보살이 부처님께 그림자마음(참마음을 훼방놓는 또 하나의 마음)도 내 마음인가를 물었을 때의 대답이다. 유식의 관법을 통한 유식의 무경(無境)을 설함이 아닌가. 그 논리적 해명에 접할때 내 마음이 작용하는 실상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 그래서 만법이 곧 마음(유식)이요, 마음밖에는 법이 없음(唯識所變 心外無法)을 설파하신다. 오직 한마음, 그자체가 뿌리가 되서 만법을 행할 뿐이다. 그러므로 몸은 마음의 부속물일 따름이다.

서양에서 사람의 심층심리를 꿰뚫은 정신분석학자로는 프로이트와 칼 융을 빼놓을 수 없다.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로서 심층심리 작용인 무의식의 세계를 파헤쳐 보였고 칼 융은 그 무의식의 세계를 집단무의식과 개인무의식으로 나눠 파헤쳤다. 그는 사람이 갖고 있는 갖가지 마음의 현상, 이를 좀 더 구체화하면 마음속의 그림자현상, 콤플렉스, 아니마, 아니무수 현상 등을 제시함으로써 마음의 실상이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작용하는 가를 입증하며 증언한다. 프로이트나 융보다 훨씬 이전인, 2천5백년전에 부처님께서 이미 〈해심밀경〉으로 마음 작용을 설명했다. 그렇다면 프로이트나 융은 부처님의 손바닥에서 자기 나름의 견해를 이론화하여 말놀이를 하고 있음이 아닌가.

나는 그들이 펴는 정신분석의 이론을 접할 때마다. 무릎을 치며 〈해심밀경〉에서 이미 설파해 놓으신 진리에 탄복한다. 현대정신분석이론의 핵심이 바로 이 경전속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찌 이 경전을 외면하고서 정신분석을 이해할 수 있을까. 나는 강의시간에 더러 프로이트같은 서양학자들이 연구한 정신분석학의 원뿌리는 바로 이 〈해심밀경〉이 아니겠는가고 주장하기도 한다(그들이 불경을 접했다는 문헌은 못보았기에 확신은 못한다).

'깊고 비밀하고 상속하는 진리를 해석하고 또 굳은 매듭같은 미혹에서 해탈케 한다'는 뜻을 가진 〈해심밀경〉은 그래서 역본경명이 보리유지 삼장의 〈심밀해탈경〉(5권11품)과 당나라 현장의 〈해심밀경〉(5권8품), 구나발타라의 〈상속해탈지바라밀요의경〉(1권) 등 여럿이다. 이중 현장의 번역본이 가장 알려져 있다. 중국의 영인·현범과 우리나라의 원측·원효·경흥스님 등의 주석서가 있었으나 원측스님의 〈해심밀경소〉(10권)가 유일하게 현존하여 널리 읽히고 있다.

보은의 선물 · 감동의 선물
최고의 건강 선물
역시 산삼입니다

長腦 山蔘

존경하옵는 불자님께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성불을 축원드리오며
지난해 힘들고 지친 심신을 새상품 산삼으로 기력 회복시켜드리고자
보시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모시겠사오니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장뇌산삼 눈이 맑아지고 뇌의 기능을 좋게하며 인체 저항력을 강화시켜 면역기능과 자연 치유력을 높여줍니다.

장뇌산삼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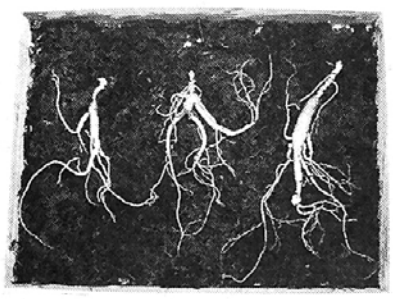
장뇌산삼은 산삼의 씨앗을 산삼이 자생할 수 있는 깊은 산중에 뿌려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양생된 일명 **山養山蔘**입니다

●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능
長腦山蔘을 통해 山蔘의 효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대대로 전해 내려온 효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실로 경이적입니다.

'겨울철'은 허한 몸을 보하는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장뇌산삼 서울 사업부
02)207-8387
0346)591-3989

홍천임업협동조합 공급하는
10~30年根 수량제한 한정판매



홍천임업협동조합 검수품
시중에서 장뇌산삼이 자연산삼으로 둔갑하여 수천만원대의 고가로 잘못 유통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물량 홍천 임업 협동조합에서 인증서가 첨부되여 가짜로 부터 보호하고 고객분들께서 안심하고 드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1뿌리도 주문 배달이 가능하며 단체주문 및 선물용이 다량 주문시 가격절충해서 공급이 가능합니다.
● 자연산삼 별도 상담 환영
● 기업체 VIP선물용 단체 주문시 별도 상담해 드립니다

공급 홍천임업협동조합 검수품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

관음출판사

관음 역서시리즈 8

古典 풍수학 설심부



수년간의 연구과정에서 탄생한 풍수학의 정통.

申 坪 지음
값 18,000원

눈에는, 보고자 하는 뜻이 있고 입에는, 먹고 말하고자 하는 뜻을 가진다. 산천은 풍세(風勢)와 수기(水氣)를 이루어서 대기(大器)를 형성한다. 사람도 여기에서 길러지는 것이니 인걸(人傑)은 지령(地靈)이라 하였다.

사주학 핵심비결



송철스님 著

운명학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易書.

신국판/값2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

부적을 집대성하여 최초로 공개하는 비밀스런 책입니다. 당신에게 요긴한 책이 될 것입니다.

A5신/양장본
/35,000원

관음출판사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4 광성빌딩 전화: 921-8434 팩스 : 929-3470

광고문의
현대불교 생활정보 광고 효과도 좋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광고주께서 기대하시는 광고효과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활상품

보리수
취급 품목 | 각종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신생아작명 역학개인지도
738-2045.2046
조계사옆 현대불교신문사 앞
韓國民俗哲學硏究所

좌골신경통 · 목,허리 디스크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전문시술원
주 · 五四三 · 七三〇六 야 · 七一一 · 四三七〇
院長 張三洙 압구정역

현정 심성개발·상담센터
Tel. (02)583-0041 (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홀로서기 힘든 사람들과 마음 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개발 및 감수성 훈련(S.T) 소그룹 지도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圖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

사찰안내
부산근교 명당에서 자리잡은 암자
부처님 시봉할 분
연락처 015)5935-6738
051)558-0042

사찰안내
10여년 정성으로 살아온 도량을 건강이 좋지 않아서 부득이 양도하고자 합니다. 표교와 노후를 위해서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연락처 015-124-6334
02-511-4632(조법사)

- 복터도량(대지 760평, 건평 120평) -
조용하며 맑은공기, 편리한 교통(서울 2시간 20분, 제천 · 영월 각20분), 크고 건고한 대웅전 · 산신각 45평), 요사채 · 보일러시설 완비(객실10개), 현대식주방, 수세식화장실, 대형석불, 석탑등
'최적의 기도처'
연락처 0373)374-7417

■ 소재지 : 강원도 삼척시
■ 대 지 : 434평
■ 건 평 : 법당 30평, 요사 90평 (3채)
■ 법종각, 산신각 기타 시설 완비
■ 비 용 : 대지 1억 5천만원
■ 시 설 : 기중
※ 보살님도 입주가능
연락처 0395)41-2886

● 위 치 : 수유리
● 가 격 : 3천 66만원
● 평 수 : 45평
● 주방, 마이크시설 완비
연락처 : 02)990-6780
※ 9:30-17:00 전화요

포교당 안내

임대하실분
■ 위 치 : 서대문구 북가좌동
■ 평 수 : 10여평, 방 2개, 부엌 2
■ 시 설 : 완비
연락처 02)372-0037

※ 포교당 7년 운영 후 큰도량으로 옮기므로 부득이 양도함
▶ 위 치 : 마산시 석전1동 (도심지 대로변 위치, 빌딩 3층 30평)
▶ 전 세 : 3천 (월세 없음)
▶ 경전 및 장엄물 : 1천 5백
▶ 가격 : 문의후 절충
연락처 : 0551)99-2984

학생모집
▶ 포교교육과 : 동양종교, 종교음악, 역학지도
▶ 유아교육과 : 유아놀이, 아동미술, 생활미술
▶ 종무 행정 : 상담실무, 상담행정, 생활상담
1. 수료후 수료증 수여 및 자격증(포교사, 법사, 유아지도자, 창작놀이사, 불을법회사, 상담사, 역학사) 취득가능
2. 소형버스 통학가능
3. 충북괴산에서 월 2회~4회 강의
전화 (02)931-6075~6
(0582)535-1987

(교육청 인가 57호)
만대교학대학원



바른보인 T.597-2460
깨달음의 정수를 바로 보이다
대원 문제현 역저

간경화 · 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 · AIDS
만성 신장병 · 암 · 神病
정신질환 · 원인모를 病
대체의학
완치 책임보장
치료후 병원 검사결과 및 외견상 완치가 아니면 치료비를 받지 않습니다.
TEL : 0552-82-8128 · 8118
H.P. : 011-559-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탁자, 담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불사업적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창시(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담집 문짝
• 서울(백화사) 법당 수미단 용각 복전함
• 울성(삼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충무(심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관사) 대웅전 문짝 담집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담집
• 단양(천진사) 대웅전수미단담집경탁경상
• 서울(학림사)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雅古工 합장

氣치료(초능력)
● 병마로 고생하시는 사부대중(스님도 환영) 불치병,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오래된 두통, 부인병, 전신마비, 수족떨림, 초조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神病),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병 기적같이 고쳐짐.
● 교통사고 후유증, 수술 후유증 및 장애자 현대의학으로 치료불가병.
● 절에서 가족과 같이 생활하실 노보살님 모십니다(노부부도 가능)
충남 연기군 서면 와촌리 80-1
(조치원역에서 10분거리)
광 불 사
주지 대원 합장 0415-63-0749
011-453-8611

不老化精 안내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영지(검은버)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청가루를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엉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밥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아름답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맑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如來健康院 合掌 ☎ 053)655-2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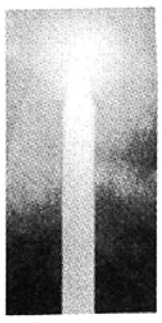
신바람 단전 자동 氣 운동 열풍!!

예로부터 신선이 된다고 하는 최고의 건강법으로 알려진 단전회음 "氣" 운동열풍이 인기다. 그러나 너무 힘들고 어려운것만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 아주 간편하고 쉽게 단전,회음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잠자리에 누워 스위치만 누르면 20분간 짜릿짜릿한 미세진동파가 단전과 회음을 운동시켜 준다. 단전은 인체 에너지(氣)의 중심이며 단전운동을 통하여 20대 못지않는 건강과 활력을 찾을 수 있다.
대소변이 시원시원해지는 *단전, 회음 건강운동기!!*
■ 오래된 숙변과 소변이 힘차게 쏟아집니다.
■ 장속에 독소가 빠져서 피로가 없어지고 얼굴색깔이 달라지고 힘이 솟아납니다.
⊙ 책자를 우송해 드립니다
韓國傳統氣健康硏究會
Tel. 02)455-6944(代)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 광채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佛子任의 가정을 지켜드리는 讀身佛經 智慧의 佛光 般若心經이 있는 곳에는 事業은 반드시 繁昌하고 모든 災殃이 없어진다.
가정이 和睦하고 子女敎育은 반드시 成功한다.
● 선착순 한정본(품)
● 주문 신청방법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국민은행 042-21-0532-499 조정순
雲藏 法師 禪筆 硏究會
☎ (02)242-0331 · 242-02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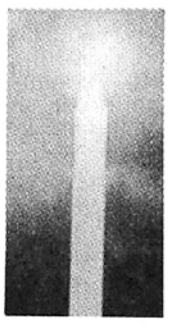
지리산 별장 · 주택 안내
■ 소재지 : 경남 산청
■ 대 지 : 163평
■ 건 평 : 80평(신축-적벌돌 2층 2동)
■ 뒷산 대밭. 큰계곡 접하고 국도변 200m
■ 천왕봉이 병풍처럼 보이는 절경
■ 매매가 : 1억 5천
연락처 051-628-1223

함께 나누는 사랑 · · · **감 로 심 장 회** *· · · 삶을 나누는 사회*


감로심장회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심장병으로 고통받는 불우한 이웃들을 도와주기 위한 순수봉사단체입니다.

● 환자를 도와드립니다 ●
심장병 안면기형 안과(백내장 녹내장)
● 환 자 접 수 서 류 ●
- 종합병원 진단서(병명기재)
- 주민등록 등본
-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
- 전 · 월세 계약서 사본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환자 증명사진 2매
- 의료보험카드 사본
- 추천서
● 수 술 현 황 ●
97년 4월 현재 심장 수술자 140명
백내장 10명
안면기형 2명
장기기증 2명-11명 기증 받음

●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감로심장회의 사업에 동참하실 분은 아래의 접수처로 연락바랍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감로심장회 사무국
주소 : 경남 진주시 계동 55번지 진주불교회관 (660-240)
전화 : (0591)747-0106 팩스 : (0591)747-0107
● 후 원 회 비 송 금 안 내 ●
▶ 국민은행 : 652-01-0484-878 ▶ 우체국 : 610774-0243181
▶ 지 로 : 7616413 ▶ 예금주 : 감로심장회


1997년 6월 현대불교신문 진주지사장 김 용 필 합장

"부처님 말씀이 절실한 때입니다"

만약 경전의 가름침과 세속의 문건을 보시하면
해박한 지혜의 과보를 받게 되며
밝은 등을 보시하면 눈이 밝아지는 과보를 받게 된다…
- 유위유회경 -

사회의 어둠을 밝혀줄 현대불교신문을 보냅시다. **군부대 · 경찰 · 교도소 · 양로원 · 中高불교학생회 · 도서관 · 가까운 이웃 · · ·**

■현대불교신문은 2천만 불자의 긍지를 대변합니다■

■ 보낼곳
▷ 국내 : 군부대(법당, 포교당, 군승, 불자장병)
: 경찰(법당, 포교당, 경승, 불자경찰, 개인)
: 교도소(재소자중 불자, 교도관)
: 복지회관(전국 시 · 도 · 군 · 읍면 소재 회관)
: 대학(불교학생회 및 도서관)
: 도서관(전국 시 · 군 · 구립 및 사립도서관 열람용)
: 개인불자(시주자가 지정하는 분:지정법보시)
▷ 국외 : 해외의 한국 사찰 · 포교당
: 각국 불교 관련 단체

■현대불교신문이 있는 곳, 그곳이 곧 법당입니다■

■ 보시방법
▶ 법보시
본사 소정 구좌에 1,000원 이상 송금하시면 모아서 신문사가 군부대등 필요한 곳에 보내드립니다.
▶ 해외 법보시
지정법보시와 동일
1부 80,000원(우편료 포함)
▶ 지정법보시
특정인 또는 특정의 기관에 신문을 보시하는 경우로서 보낼 곳의 주소 · 전화번호, 보내는 사람의 주소 ·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고 1부당 40,000원(1년분)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 본사 지로 이용 입금
※ 계좌 : 국민 023-25-0007-820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곁에 두면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 정기구독자 추천
친지 · 이웃등 현대불교신문을 구독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면 정성껏 신문을 보내 드립니다.
1년 정기구독자 4만원, 6개월 22,000원, 1개월 4,000원

● 법보시양식

구 독 신 청 서
구독자 | 1. 본인 2. 타인(보시)
성 명 | 전화번호 | 자택 | 직장
주 소
구독기간 | □ 1부 □ 정기(3개월 단일) □ 정기특별(3개월 단일) □ 정기월(4회분) □ 특정지 □ 기타
신청방법 | □ 전화 □ 방송광고( ) □ 일본 □ 친구로 대체 □ Give □ 기타( )
법보시 | 1. 비구독자 2. 기존구독자 (회원번호)
성 명 | 전화번호 | 자택 | 직장
주 소
보시기간 | ( )개월 ※ 법보시는 3개월(구독 1만원) 단위로 신청
특기사항
전화 737-8881 팩스 737-0697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T.(02)732-1522, 737-8881 F. (02)737-0697

"주부 우울증 치료하세요"

밤잠을 설치고 '만사가 귀찮다'며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는 아내, 매사에 짜증을 내면서 자녀에게 무관심한 엄마. 이런 증상을 보이는 주부들에게 전문가들은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내린다. 우울증세를 보인다고 하면 가볍게 치부해 버리기 일쑤이지만 이는 엄연한 병으로, 발병하면 자살이라는 극한 상황까지 초래되기도 한다.



◇ 목동청소년회관의 감수성훈련 강좌모습.

목동청소년회관 '감수성 훈련' 인기

집단상담 통해 '감정풀기' 유도
자녀·남편·시댁갈등 해결
6년째 2백명 '행복찾아'

의학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4명 중 1명이 우울증 환자. 우울증의 심각성은 가정의 파괴는 물론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교계가 운영하는 목동청소년회관(관장 명우스님)은 이같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6년째 감수성훈련을 실시, 그 성과가 참가자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3개월 코스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실시되고 있는 감수성 훈련은 심리학으로부터 나온 집단 상담. 기존교양강좌의 수업방식과는 달리 10여명의 주부들이 특별한 주제나 교재없이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감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규칙이다.

목동청소년회관의 감수성훈련을 받은 주부는 2백여명. 상담원 백중하씨는 "아이, 남편, 시댁과의 갈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오는 30대 주부들이 대부분"이라며 "자신의 감정표현을 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 너무 생각이 많은 사람, 원칙을 세워놓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 등이 감수성훈련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감수성훈련의 효과는 세가지 정도.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보게 된다. △남을 통해 자신의 객관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 자기 속에 쌓여있던 것을 속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있어 마음의 짐이 덜어진다는 점이다.

살림과 가족 뒷바라지에 존재감을 잃고 우울증을 앓던 한미숙씨(36·서울 영등포구 문래동)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남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다"면서 "내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만으로도 마음의 위로가 된다"고 말했다. (02)646-6818

도필선 기자

새상품



호신용 열쇠고리경보기

치한퇴치·위급상황 해결

백이기획(대표 백명주)이 내놓은 이색 호신상품. 이 제품은 토끼, 문어, 돌고래, 너구리 등 동물모양의 열쇠고리에 경보기를 부착한 것. 치한의 공격이나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리나 꼬리를 잡아빼면 화재경보기 만큼의 경보음이 울리게 돼 있다.

가격은 봉제인형이 1만8천원, 플라스틱 재질이 1만5천원.
(02)252-9973

재활용 알뜰시장 열립니다

28~29일 강남 봉은사서
불교용품·세제·의류등 전시

현대불교신문과 종단협 소비자보호위, 맑고향기롭게모임은 28일~29일 봉은사에서 재활용 알뜰시장을 엽니다.

재활용 가능한 불교용품 및 생활용품(헌옷, 탈수기, 장난감, 시계…)과 환경용품(세제류, 화장품, 먹거리…), 우리옷 등 다양한 물품이 전시될 알뜰시장에 불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내놓으실 물건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 주십시오. 수거일은 20일입니다.

- 일정: 6월28일~29일 오전 10시~오후 5시
- 장소: 봉은사
- 문의: 현대불교신문사(722-4162)
  종단협 소비자보호위(3452-7485)
  맑고향기롭게모임(741-4696)

청소년 자연사랑 글짓기 대상

이 글은 청정국토만들기운동본부(회장 성타스님)가 개최한 '97 청소년 자연사랑 환경 글짓기공모전'에서 고등부 대상인 환경부장관상 수상작이다. 〈편집자 주〉



일석사조

황인섭
〈동국대 부속고 3년〉

낚시간 아빠는 물고기대신 쓰레기를 한웅큼 잡아오시고…

"아버지 고기는요?"

회사 아저씨들과 같이 바다 낚시를 떠나 하룻밤을 보내고 돌아오신 아버지의 낚시 망태 속에는 고기가 한 마리도 들어 있지 않았다. 언제나 붕어, 잉어, 향어, 놀래미, 우럭 등 많은 고기를 가시는 장소에 따라 잡아오셨는데 오늘은 빈 낚시 망태였다.

"그대신 내가 잡아 온 것이 있지." 씩 웃으시며 옆에 있던 제법 큼직한 비닐봉지를 들어 보이신다.

"뭐예요?"

"쓰레기."

아버지는 물고기대신 쓰레기를 담아 오신 것이다. 엄마는 화도 못 내시고 기가 막히신지 웃기만 하신다. 낚시를 못가게 하신 이유가 물고기가 불쌍해서였는데 이제는 엄마가 무엇이라 하며 막으실까?

쓰레기를 줍는 아버지를 이상한 눈으로 보시던 아저씨들도 모두 아버지만큼의 쓰레기를 가지고 가셨단다. 집에 있던 그 아저씨네 식구들도 모두 놀라겠지…. 쓰레기를 담아오신 멋쟁이 우리 아버지. 물고기가 불쌍하다고 도로 놓아주라는 사랑스러운 우리 엄마. 세상 어른들이 모두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으면 조금 더 아름답고 깨끗한 세상이 될 것이다.

우리는 어려서는 꼭 휴지통에 휴지를 넣으라고 배웠고, 불쌍한 동물은 죽이거나 괴롭혀서는 안된다고 배운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지키지를 않는다. 지하도 육교 계단의 껌, 침자국. 길거리 휴지, 담배꽁초, 시합이 끝난 후의 야구장의 모습은 정말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자기의 얼굴이라면 그렇게 할까?

요사이 우리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열면 아카시아 꽃냄새가 배봉산에서부터 풍겨온다. 올라가 보면 휴지나 빈 병 기타 여러가지 오물이 거의 없다. 동네 사람들 서로가 자기 산처럼 아낀다.

아버지는 이제부터 낚시를 하더라도 고기 대신 쓰레기를 잡아 오시겠다고 하신다. 약속만 지키신다면 아버지는 낚시를 즐기셔서 좋고, 엄마와 나는 물고기의 불쌍한 모습을 보지 않아서 기쁘고, 국토는 깨끗해지고 고기들은 자기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으니 일석사조의 효과이다. 아! 참 고기가 물어도 입이 아프지 않을 낚시 바늘을 발명하면 일석오조가 될텐데…. 매운탕은 못 먹었어도 아주 맛있는 저녁을 우리 식구는 먹었다. 오늘 밤 꿈에 용왕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아버지에게 착하다고 큰 상을 내리실지도 모르겠다.

만화 백유경 百喩經

이 향 원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연미의 피부미학을 추구합니다.

신토불이 무공해 오염되지 않은 피부 ! 신선한 自然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각종 유해 대기속에서 지친피부를 바라보는 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선한 자연속에서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하지만 …
바쁜 일정속에서도 만족하고 싶은 자연의 美!
이제 세안·샤워하실 때 만큼은 항생제를 쓰지 않는 천연 무공해 항균면역피부미용비누를 사용하세요.



● 오보크린은 알부민푸로테인과 레시틴등의 생리활성물질 (호서대학교와 C.T.F. 연구개발팀의 공동연구 개발물)을 기본원료로 하고, 한국인의 체질에 적합한 일곱가지 한방재료 추출물들을 첨가한 천연소재의 비항생제성 피부 친화적 항균면역피부미용비누입니다.
● 오보크린은 피부에 감염되는 병원균들에 대해 직접·간접적인 생리작용으로 항균효과를 발휘하여 주부습진, 비듬, 무좀등을 예방하고, 피부의 자연면역기능을 활성화 시켜줄 뿐만 아니라, 공해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을 피부로부터 배출시켜 항상 싱싱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첨단 생명공학적 건강미용 비누입니다.

첨단의 생명공학기술과 전통의 동의학으로 탄생한 신개념의 비항생제성 항균 면역피부 미용 비누

C·L·E·A·N

- 한방재료추출물 (오미자, 구기자, 감초, 숙지황, 천궁,계피등)을 첨가하여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든 무공해성 신토불이 비누
- 피부에 미백효과가 있습니다.
- 99.9% 천연소재 사용
- 공해(매연, 산성비)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배출 능력이 우수합니다.
- 주부습진, 여드름, 가려움증(비듬, 무좀등) 예방에도 좋습니다.
- 항균·항진균효과(anti-bactenal & fungal effect)가 있어 피부에 자연면역 기능을 증진시키며, 장기간 사용시에도 병원균들이 내성을 갖지 않습니다.

추천의글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 기 영
"오보크린"은 공해로 인해 오염된 피부를 깨끗이 씻어내고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뿐만 아니라. 우수한 항균력과 면역기능까지 부여한 첨단생명공학적 고기능성 건강미용비누라고 생각합니다.

카톨릭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이학박사 김 영 준
대기 및 실내에 산재된 각종 유해 중금속입자 및 오염물질들을 신속하게 제거해 주는 "오보크린" 건강미용비누는 이들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강원대학교 축산가공학과 교수 이학박사 최 면
세면비누는 미용필수품이지만 "오보크린"처럼 과학적으로 입증된 항균성물질과 피부노화방지물질 등을 천연소재로부터 추출하여 첨가한 "건강기능성비누"는 차세대 아이디어 상품이다.

신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원 석 희
오보크린"은 피부에 유익한 생리활성물질에 한방재료성분을 첨가하여 만들어낸 한국인의 체질에 맞는 건강미용비누로서, 어느 외국제품과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첨단기술력의 제품이다.

(주)씨·티·에프 호서대학교 호서신기술센터內

구입문의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02)737-8881

종단소식

조계종
중앙종무원 첫 출가교육

총무원(원장 월주)이 처음으로 중앙종무기관 종무원 출가교육을 실시한다.

통도사 설법전에서 실시될 이번 출가교육은 1차 19~21일, 2차 26~28일 두차례로 나누어 열리며 각각 50명이 참가한다. 교육 내용은 참선, 반야심경, 사경, 독경 등이며, 마지막날엔 통도사 부방장 청하스님을 계사로 수계식이 열린다.

천태종
해장사 국태민안 천도재

진해 해장사(주지 진덕)는 4일 대웅전에서 호국영령추모대법회를 봉행했다.

각급 기관장 및 지역신도 5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는 호국영령을 위한 영가천도재와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발원문이 봉독됐다.

원효종
순국선열 · 장병 위령제

대구 · 경북교구 종무원(원장 부공)은 10일 경주 황성공원 충혼탑에서 사부대중 1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 위령대제'를 열었다.

해군군악대의 연주로 시작된 이날 위령제는 괘불이운에 이어 권공, 천수바라, 부종정 벽송스님 법어, 영가천도의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동종
운파스님 종정 재추대

총무원(원장 송정)은 29일 오전 11시 올림피아 호텔에서 종정, 부종정, 승정원장 추대 및 총무원장 취임법회를 개최한다.

이날 취임법회에서는 운파스님이 제1세에 이어 2세 종정에 재추대되며, 부종정에는 영봉스님이, 승정원장에는 전총무원장 지명스님이 각각 추대된다. 또 사무총장을 맡아왔던 송정스님이 총무원장에 취임한다.

해동종
수원 보련사 진신사리 친견

수원 보련사 포교원(주지 청운)은 8일 동포교원에서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대법회를 봉행했다.

대각종
부여 미암사 대웅전 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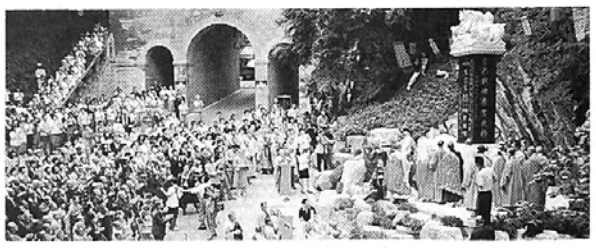
종단 총본산인 부여 계향산 미암사(조실 만청)는 9일 대웅전 낙성식 대법회를 가졌다.

천태대사 열반 1400주 추모대재 현장

"무명중생 구하자" 한중일 합장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9~10일 이틀간 총본산 구인사에서 천태지자대사열반 1천4백주년 한 · 중 · 일 합동 추모대재를 봉행했다.

전야제, 세계평화와 남북평화통일 기원비 제막, 추모법요식, 만찬 순으로 진행된 이번 추모대재에는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명양(明暘)법사를 비롯해 국청사 방장 가명(可明)스님 등 중국측 불교인 40여명과, 일본 천태종 종정 와다나베 에신스님, 천태종 총본산 히예산 연력사 주지 고바야시 류조스님 등 일본측 불교인 1백60여명을 비롯해 사부대중 5천여명이 참석했다.



◇천태지자대사열반 1천4백주년 한 · 중 · 일 삼국 천태종 합동 추모대재가 9~10일 이틀간 구인사에서 개최됐다.

통일기원비 제막…사부대중 5천명 참석

상견례로 시작된 대법회는 9일 전야문화예술제가 펼쳐진데 이어 10일에는 세계평화와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기원비 제막식 및 추모법요식이 거행됐다.

운덕 총무원장은 추모법요식에서 "무명번뇌로 뒤덮인 이 세계를 천태지자대사의 가르침으로 구제해야 한다"며 "삼국 천태종도들이 손을 마주잡고 힘차게 정진하자"고 말했다.

이에 중국 가명 방장은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전해지도록 노력하자"고 말했으며, 일본 와다나베 에신 천태종 종정은 "천태지자대사의 법은을 다시 새겨 중생제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구인사=한명우 기자

월정사 한일문화교류대회 성료

"불교유산 보호" 공동 결의



◇한일불교도 5백여명이 참가한 제18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가 11~13일 월정사에서 열렸다.

적멸보궁 참배 · 세미나통해 우의다져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회장 법흥스님)는 11~13일 월정사에서 제18차 한일교류대회를 개최하고 △국경 초월 중생구제 △2002년 월드컵대회 성공기원 △불교 문화유산 보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월주 인곡 홍파스님등 각 종단 대표들과 게이쇼 일본 불교협회 이사장 등 한일불교도 5백여명은 공동법요식에서 양국 우호와 불교발전을 서원했다. 특히 장충식교수(동국대)와 고데스교수(일본 대정대)는 사리신앙과 조사신앙 등 한일불교의 특징을 발표하고 토론했다.

그밖에도 상원사 정암사 법흥사 적멸보궁 참배, 세미나, 선물교환과 만찬 등을 통해 양국 불교도들의 신심과 우의를 다졌다.

월정사=김주일 기자



◇조계종은 6일 캄보디아와 불교교류에 대해 협의했다.

조계종-캄보디아 불교 '첫 교류'

테퐁스님 만나 강원 · 승가교육 협력 합의

조계종(총무원장 월주)과 캄보디아 불교계간의 공식적인 불교교류가 처음으로 이뤄졌다. 조계종은 6일 캄보니아 프놈펜 오날라움 사원에서 캄보디아 불교의 최고지도자인 테퐁스님(73)을 만나 양국불교교류와 우호증진방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혜창스님(총무부장)은 캄보디아 강원 및 승가교육에 대한 지원의사를 밝히고, 내년 부처님오신날에 테퐁스님이 방한해 줄 것을 공식요청했다.

이에대해 테퐁스님은 "한국과 캄보디아 불교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점에서 같은 형제이다"며 승려교육등 인적 교류를 활발히 추진해 가자고 말했다. 테퐁스님은 미타종의 초청으로 19일 방한할 예정이어서 이 기간동안 조계종과 상호교류에 관한 공식합의서를 작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은 이번 캄보디아 방문으로 스리랑카, 태국에 이어 세번째로 남방불교와 친선관계를 맺게 됐다.

부산 정각회 창립

부산광역시 정각회(임시대표 권영적)는 17일 롯데호텔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서석재 의원, 문정수 부산시장, 이종만 부산시의회의장, 전선택씨, 이윤근씨가 고문으로 추대된 정각회 창립행사에는 범어사 주지 성오스님을 비롯 각 종단 대표스님, 각급 기관장 및 신행단체장 등 2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호국영령 추모 잇달아

금강사 · 광주사암련등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고 이를 추모하는 각종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제5군단 사령부 호국금강사(운영위원장 정동호)는 26일 同법당에서 제14회 6.25전몰장병 및 희생영령 합동위령대제를 개최한다.

각 종단 관계자 및 참전 16개국 관계관, 군 · 민간 신도 등이 참석하게 될 이번 합동위령대제는 영가천도의식과 위령대제, 방생 및 전적지 순례 등이 이어진다.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웅)는 15일 대전 황산벌에서 서울, 포항을 비롯한 전국 금강경독송회원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7 황산벌 천도대법회를 봉행했다.

광주사암연합회(회장 상명스님)는 8일 무등산 무등사에서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국영령들의 해탈발원과 조국통일을 염원하는 호국영령 및 5 · 18추모 천도재를 봉행했다.

종단 이미지 대입영향 안미쳐

위덕대 97신입생 설문조사

진각종 종립대학인 위덕대학교 97년 신입생중 불교를 신앙하는 학생이 3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교학과 학생중 불교를 신앙으로 하는 학생은 7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교신앙 학생 39%
진각종도는 3명

위덕대(총장 손제석)가 지난 2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3백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불교를 신앙하는 학생수는 무교 1백62명(42%)에 이어 두번째인 1백52명(39.4%)으로, 불교를 신앙하는 학생이 타종교 학생보다 위덕대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신교는 41명(10.6%), 천주교는 26명(6.7%)으로 나타났다.

또 이 결과는 '96신입생 설문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개신교, 천주교를 신앙하는 학생이 각각 4%씩 증가한 것으로 타종교를 신앙하는 학생들에게 배타적 이미지를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진각종을 신앙하는 학생은 3명에 불과해 진각종 종립대학 이미지가 신입생 선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설문에 응답한 불교학과(정원 40명) 학생 16명중 불교는 11명, 진각종 2명, 천주교 1명, 무교 3명이었으며 개신교를 신앙하는 학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佛放횡령 도피 김선도씨 체포

베트남서…수사활기 띨듯

불교방송 공금횡령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 1월 베트남으로 도피했던 김선도씨(前 경리부차장)가 16일 아시아나 362편으로 서울로 압송된다.

〈13일 현재〉

이번 사건의 해결열쇠가 될 김씨는 베트남 현지 자신의 형 친구집에 숨어 있었으나 그 부인의 신고로 5일 자정 현지 경찰에 체포 · 구금됐다. 11일에는 불교방송 재단수습대책위 실무위원 박원식 기자가 직접 김선도씨를 만나 회사자금 유용 및 횡령부분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박씨는 영사를 통해 인수증 문제등 사후처리를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다.

김씨의 체포로 그동안 진상규명에 지지부진했던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으나 과연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의상스님이 창건한 부석사는 화엄십찰(華嚴十刹)의 하나로 우리나라 화엄종의 근본도량입니다. 국보와 보물이 즐비한 부석사에서 특히 유명한 것은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목조건축물인 무량수전(국보 18호)입니다. 우아한 배흘림기둥과 늠름하면서도 기품있는 건축미를 지닌 무량수전은 세계의 건축가들이 한번씩 보고가는 곳으로 아름다운 건축물중에서도 으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멀리 소백산의 연봉(連峯)을 바라보면 우리 산하에 대한 사무치는 고마움을 절절히 실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귀경하는 길에는 시원한 계곡과 장대한 희방폭포로 유명한 희방사도 참배합니다.

'한국 목조건축의 아름다움'

6월 테마여행 - 부석사 · 희방사

■ 참가 안내

◇출 발: 6월 29일(일) 오전7시 · 조계사 앞
◇안 내: 이강근 교수(경주대)
◇회 비: 3만원(점심 각자 지참)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주)한주여행사
후원: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 협찬: 일양약품

마음 믿고 맡기자

멀고 멀기는데는 잘된다, 잘된 것이다라는 전제조차도 없어야 한다. 버렸다, 버선다도 붙지 않는다. '주인공이 다하는 것이지' 하면 그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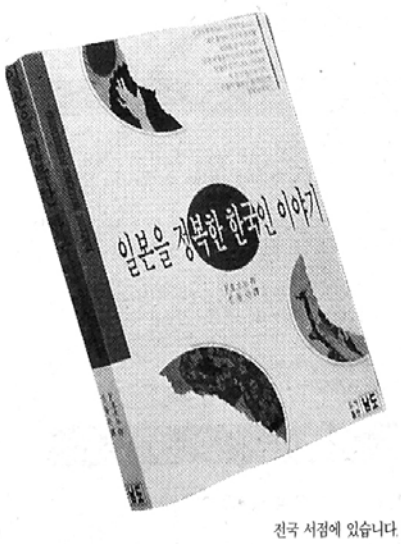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도서출판 남도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1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은 놀라운 사실!
이 책을 읽는 순간 내가 한국인 임이 자랑스럽다!

「일본의 천황이 된 가야의 응신왕자와 인덕왕자!」

일본을 정복한 한국인 이야기



프랭크호소노/신동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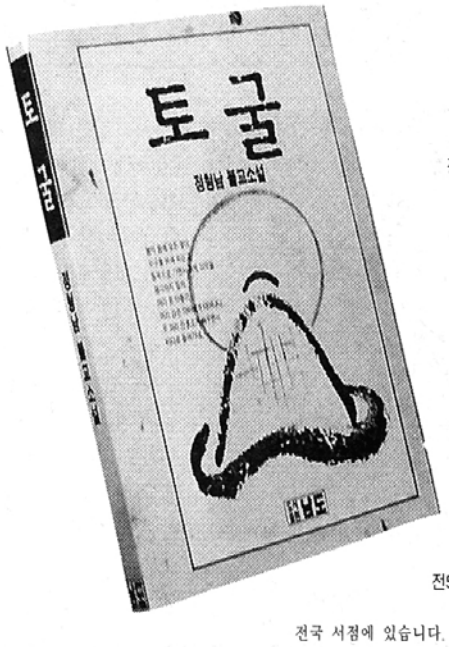
미국 인류학자 프랭크 호소노가 정확한 고증으로 쓴 장편소설!
14년간 한.일간을 오가며 고대사를 연구한 작가는 이 책을 통해
일본이 발굴을 금지한 응신고분과 인덕고분의 비밀을 풀어준다!

가야의 신왕에게는 용감한 응신과 인덕 두 왕자가 있었다.
신라의 대군에 가야가 멸망하자 응신과 인덕왕자는 가야의
철기문화와 정예 기마군단을 이끌고 원시 석기시대를 벗어
나지 못하고 있는 가야의 속국인 동쪽 섬나라를 정벌하여
토요우라, 이즈모, 여마도에 이르는 광대한 땅에 나라를 세워
천황으로 등극, 일본 천황가의 시조가 된다.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정가 7,000원 문의전화:488-2923, 팩스:473-0481

도서출판 남도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1

정형남 장편소설



한국불교의 위대한 선각자인 금강산 도인의 일대기!

정형남 불교소설 정가 7,000원
토 굴

큰 두상을 갖고 황소울음을 울며 태어난 스님은 일제의 강점기에 시달리며 헐벗고 무지한 백성들을 보고 비분강개, 군인이 되려하나 여의치 않아 승문으로 들어간다.
불교계의 거목인 스님의 행적은 민족을 걱정하는 한 인간으로, 해탈자로 우리 민족사상의 중요한 획을 긋고 있다.
자비로움이 가득한 금강도인의 숨겨진 행보를 찾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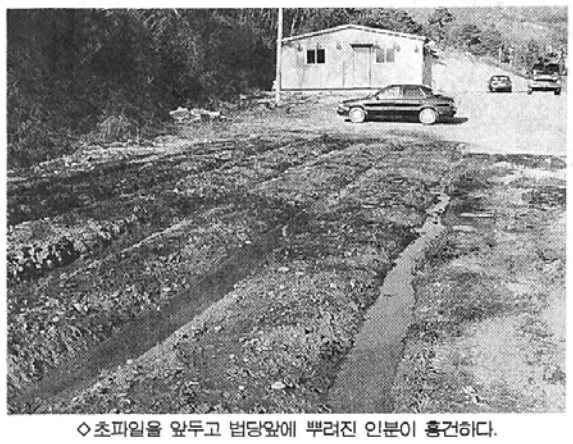
1,000일 밤을 지새우게 하는 은밀한 책-한국판 천일야화!

정형남 장편소설 전5권 각 6,500원
여인의 새벽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문의전화:488-2923, 팩스:473-0481

"법당갔다고 반성문 쓰라니…"

특수전학교 종교편향…기무사 사실 확인
초파일 앞두고 법당 인근에 인분 뿌리기도


◇초파일을 앞두고 법당앞에 뿌려진 인분이 흉건하다.

특전사 예하 특수전학교(학교장 박희만 대령)에서 법당주변에 인분을 대량 뿌리고 법회에 참여하려는 하사관후보생들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는 등 종교편향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있다.

이에대해 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타)은 11일 포교부장 원혜스님이 부대를 방문하여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며 박동진법사가 경위를 설명하고 조사를 의뢰한 기무사도 자체조사결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임을 확인해 육군본부에 보고한 상태다.

육군 특수전학교 법회를 지원하고 있는 능인선원 21기동창회 군포교부에 따르면 특수전학교의 이진규 하교교육대장이 하후생들에게 특정종교를 강요하고 법당에 갔다는 이유로 3~4일에 걸쳐 반성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하교대장이 장병카드 작성시에 무교는 기독교로 적으라고 강요하고 '잘생각하고 신중히 하라'며 2~3회에 걸쳐 서류를 반려했다. 이후 이 카드에 따라 병력통제라는 이유로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방해하고 일부 근무자들은 법당 참여인원을 교회로 오라고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부대는 인성교육을 정훈장교가 아닌 목사가 교회에서 실시해온 것은 물론 불자들은 별도로 모아 교육이 끝난후 불자하후생들에게 '끝까지 불교를 고집하느냐'고 억압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단주를 차면 벌점을 주는 것은 물론 법회참석 불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니 법당에 간다'는 식으로 비아냥 거리며 최초법회 참석자 30여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교회에 가도록 유도했다는 것.

또 5월1일 초파일을 앞두고 분뇨차를 동원하여 법당 인근 텃밭에 인분을 흥건히 뿌려 악취가 진동하게 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한편 조계종은 군대라는 특수조직에서 유독 불교에 대한 침해사례가 반복되는 점을 중시하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국방부에 촉구하고 종단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능인선원 한 관계자는 9일 해당 군부대를 방문하여 교회에서 군관계자들과 면담했으나 사과는 커녕 군법사와 법당을 찾는 불자들이 일을 확대했다며 '군법사를 전출보내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며 모든 사건의 전말을 부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10일 특수전학교장은 교계기자의 인터뷰 요청에 육군본부 보도과에 사전 취재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김원우 기자〉

복지부 장례식장 건립 융자신청 24곳 중
교계 동국대 경주병원 '유일'

보건복지부의 장례식장 융자지침 발표에 따라 전국 24곳의 병원과 개인, 법인에서 장례식장 건립 융자신청을 한 가운데 불교계에서는 동국대학교 부속 경주병원이 유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국대 경주병원은 5백99평의 설치면적 규모에 빈소 7개, 안치소·염습실, 예식실, 장의예식판매전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갖춘 장례식장을 건립키로 하고 4억원의 융자금을 신청했다.

한편 복지부에 융자신청을 한 24곳 중 종교계에서는 동국대 부속 경주병원 외에 천주교 옥천성모병원, 순천 성가롤로병원 등에서 신청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50억의 예산을 10개소에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20억원을 늘인 7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동국대 부속 경주병원 기획감사실 지영환씨는 "장례식장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전환 방법모색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업무교류로 사업자들이 융자지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족 삶의 질 우선
통일후 복지모형 필요"
조계종 복지포럼서 제기

다가오는 통일시대에는 사회복지를 바탕으로 '완벽한 사회·문화통합' '삶의 질을 높이는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내용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스님)이 13일 개최한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비교와 통일이후 통합정책에 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열린 사회복지포럼에서 발표됐다.

복지시설 설립 '신고제'로

개정안 국회 통과될듯

종교단체나 사찰 스님도 양로원 고아원등 사회복지시설을 자유롭게 세울 수 있게 된다. 이같은 노인 아동 장애인 복지시설의 확대와 생활환경개선을 골자로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 53명이 참여하는 국회복지포럼(회장 신기하 국민회의 의원)이 주최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공청회가 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려 법인없이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법안을 제안했다.

공청회에서는 대표의 자격폐지, 시설의 설립시 신고제로 개편등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발표되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 시설의 유형을 다양화하여 상시 10인 이하만 수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만으로 시설의 설립토록 하는 제안도 있었다.

한편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의 권익옹호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 △사회복지사업주체의 다변화를 통한 경쟁체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누리포교회 장애인 권익 '앞장'

7월5일 창립 직업훈련등 재활교육 중점 추진

교계 장애인 재활과 교육 권익사업을 벌일 대한불교 한누리포교회(창립준비위원장 박인철)가 7월 5일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창립한다. 한누리포교회는 석주스님을 증명으로 월주 인곡 운덕스님등 각 종단 지도자를 비롯 성타 법륜 덕신 보각스님등 장애인 포교활동을 하는 스님과 전창렬변호사 김광삼 현대불교신문사장 명호근 쌍용증권사장 성태용 건국대교수등 교계인사들이 참여한다.

한누리포교회 창립준비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고 장애인들에게 사회참여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가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사업내용은 △교육사업 △직업훈련 및 자립작업장 운영 △장애인 권익보호사업 △자료조사 연구 △장학사업 △장애인 수련장 운영 △신행지원활동 △국제교류등이다.

이와함께 한누리포교회는 장애인 포교의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장애인 포교 담당자를 양성하고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방문포교,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나 녹음도서를 보급하는 문서포교, 의료 동행 생활지원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7월 개강예정인 한누리포교대학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장애인포교를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3개월 과정으로 개설된다.

대북식량 전달 불교추진위, 1차분

불자들의 정성으로 모인 식량이 6월내 북한에 전달된다. 북녘동포돕기불교추진위원회(상인추진위원장 지선)는 11일 각 단체 실무자 연석회의를 열고 이달중에 1차분 식량을 조선불교도연맹에 전달키로 결의했다.

5월6일 발족 이후 현재 2억6천여만원의 성금을 모금한 불교추진위는 이번 회의의 결정에 따라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식량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민간단체 북동포돕기 전국협의회 26일 발족

종교계 재야 시민단체들이 모인 전국규모의 북한동포돕기협의체가 발족한다.

북녘동포돕기불교추진위원회를 비롯 기독교협의회,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참여민주시민연대 등 10여곳은 11일 '북한동포돕기 민간단체 전국협의회' 구성에 합의하고 26일 발족키로 했다.

전국협의회 구성을 논의해온 각 단체 실무자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금운동이 전국협의회 발족을 계기로 효율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방사태 · 토지처분특위 구성

조계종종회 추경예산 103억여원 통과

조계종 제127회 임시중앙종회(의장 설정)가 9일부터 총무원 청사 1층회관에서 열려 96년 결산감사를 포함 14개 안건을 처리하고 5일회기를 하루 앞당겨 12일 폐회됐다.

재적의원 81명중 60명이 참석한 이번 종회는 불교방송사태 진상조사특위(위원장 정대)구성, 96년 종단 예산 1백3억9천34만원중 세입 1백억3천9백69만888원(96.62%), 세출 94억1천9백56만8천425원(90.65%), 차기이월 6억2천12만2천4백63원을 비롯 추가경정예산 1백3억9천34만원을 통과시켰다.

종회에서는 북돕기 모금동참과 바미얀대불 보존 그리고 갑사 토지수용 반대, 진관스님 석방을 위한 결의문 등 8개항의 청원 및 결의문이 채택됐다. 또 재무부 종무보고에서 제기된 봉선사 말사 흥룡사 토지처분의 건에 대해서는 진상조사키로 하고 토지처분 특위를 구성했다. 각종위원회 보궐선출, 불교중앙교원 이사 및 감사 선출, 승가학원 이사후보동의 건도 처리했다. 반면 직영사찰운영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부결됐다.

뉴스 & 뉴스

인천 청교련쉼터 예산 지원

(사)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인천지부(지부장 선일) 청소년쉼터에 7일 인천시가 예산 7천만원을 지급했다. 〈관련기사 130호 19면〉

그러나 이 예산은 당초 1억원에서 3천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운영상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24일 중앙신도회 운영회의

조계종중앙신도회(회장 송재건)는 10일 예정했던 운영회의를 24일 열기로 했다. 중앙신도회 백영식 사무부총장은 "중앙종회와 운영회의 일자가 맞물려 부득이 연기하자는 총무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신도회는 운영회의에서 부회장단과 이사를 선임하고 예산안 편성 등을 논의한다.

대불청 전국청년대회

창립 77년째를 맞은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번)는 21~22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제16차 전국불교청년대회(준비위원장 최윤선)를 개최한다.

'환경과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청년불자 하나됨을 위해'라는 주제로 1천5백여명의 전국 회원이 참여, 민족문화지킴이와 호법단 발대식을 갖는다.

청소년지도자 수련대회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돈각)부설 다보수련원은 21~22일 불교청소년지도자 70여명을 초청 '불교청소년캠프의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수련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수련대회는 청소년 하계캠프를 준비하는 청소년단체의 지도자에게 캠프운영을 실무교육한다. 참가비는 무료. (02) 719-7789

신도단체협 북돕기운동

전국불교신도단체협의회(회장 김용직 관음종 신도회장)는 10일 서울 송현클럽에서 태고종 진각종 등 22개 종단 신도회대표 50여명이 참석, 회장단·운영위원 합동회의를 열고 북한동포돕기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목탁소리

전·노씨 사면운동

김 재 경 〈취재1부 기자〉

최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청원하는 서명운동이 불교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조계사와 백담사, 총화종 등 이 인간 방생의 차원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사면운동이 마치 교계 지도자나 사찰에 의해 전폭적으로 주도되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앙일간지들도 한결같이 원로스님들과 유력사찰을 거론하며 범불교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조계종 종회의원 스님들이 개별적으로 사면청원서에 서명하는 등 친분이 있던 스님들과 인연있는 사찰이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은 사실이나 해인사 봉은사 구룡사 등 유명사찰이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일부 전·노씨 측근이 사찰주변에서 불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일간지 보도내용은 확인없이 전씨 측근이 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 전씨 측근이 사면운동을 위한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서명운동이 마치 범불교계가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자칫 불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당사자들은 인식해야 한다. 실제 중앙승가대의 경우 학교차원의 서명운동으로 잘못 알려져 총장이 사과하고 학생회장이 퇴진하는 사건도 있었다.

'사면'은 여론조성이 아닌 국민의 자연스런 정서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일부 스님·불자들이 순수한 불심에서 전개하고 있는 사면운동을 정치적으로 오도하는 것은 도움을 주려는 불교계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격조높은 작품·감동적인 영상 — 불교TV 영상물

불교TV 영상물은 한 잔의 맑은 차처럼 山寺의 향음이 그윽합니다.

불교TV 특집 다큐멘터리
'뜰 앞의 잣나무' 시리즈 1집

불교TV 영상물에는
역사의 깊이가 녹아 있습니다.
고승대덕의 법문이 살아 숨쉽니다.
부처님의 숨결을 함께 느끼실 수 있습니다.

불교TV 영상물에는 한국문화의 정수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불자들을 위한 수행정진의 바른 길잡이 역할을 다하도록 기획·제작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어느 순간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기획영상물, 불교TV 특집다큐멘터리 '뜰 앞의 잣나무' 시리즈에서 큰스님의 숨결을 함께 느껴 보십시오.



지혜의 빛 · 자비의 샘
btn 불교TV 영상포교사업단
(02)3272-0781~5/706-3502~5

불교TV 특집 다큐멘터리 '뜰 앞의 잣나무' 시리즈 1집

① 서옹 큰스님 (고불총림 방장)
백양사 주지 지선스님이 은사스님의 치열한 구도정신을 가르침 받는 성찰의 소리

② 서암 큰스님 (전 조계종 종정)
불교환경교육원 유정길 불자가 큰스님의 고고한 자태와 함께 청량한 삶을 조명

③ 월하 큰스님 (조계종 종정)
탤런트 고두심 불자가 통도사를 배경으로 큰스님께 청해 듣는 이시대 깨침의 말씀.

④ 석주 큰스님 (칠보사 조실)
동화작가 정채봉 불자가 큰스님의 구도정신을 탐색하는 감동의 영상

⑤ 월산 큰스님 (불국선원 조실)
영남대 김성규교수가 자연속에 동화되어 생활이 곧 선이 되어 버린 큰스님의 삶을 취재

⑥ 성수 큰스님 (법수선원 조실)
승가대 송찬우교수와의 대담으로 큰스님의 독특한 수행과정이 전개되는 감동적 영상

⑦ 고송 큰스님 (파계사 조실)
수행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지 탤런트 엄앵란 불자에게 설파

⑧ 비룡 큰스님 (원정사 조실)
관음보살같은 자비스런 깨달음의 말씀을 불교조형연구소 이기선 소장과 대담

⑨ 원담 큰스님 (덕숭총림 방장)
판화가 황남채 불자가 속세의 발길이 닿지 않는 큰스님의 산중편지를 전함.

⑩ 일타 큰스님 (전 조계종 전계대화상)
현대인의 가슴에 촉촉한 봄비같은 청량감을 주는 말씀을 연화장세계 임기준 대표가 진행

※ 위 차례는 방송된 순서임

비디오 테잎 · 10개 1세트 / 구매가 : 170,000원

구입문의 : 불교TV영상포교사업단 (02)3272-0781~5/(02)706-3502~5

불교TV 제작협찬 활발

방송운영 후원 홍보효과 '일석이조'


◇대행스님


◇진옥스님


◇김의정씨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도 동참하고 광고효과도 기대하고….

불교TV의 인기프로그램들이 외부 단체들의 협찬으로 제작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신나는 연꽃동산'은 한마음선원(원장 대행스님)이, '날마다 좋은날'의 '다도산책'은 명원문화재단(이사장 김의정)이 일년 제작비를 전액 협찬했다.

또 부처님 오신날 특집으로 제작됐던 '임진란의 의승수군'과 '붓다의 고향을 가다'는 여수 석천사(주지 진옥스님)와 위동해운(대표 이종순)이 각각 협찬, 다큐멘터리의 질적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다도산책' 등 올 4건 수주 후원금 주식전환

이같은 프로그램 협찬은 불교단체들의 주요 목적사업 캠페인 등과 부합, 좋은 불교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불자들의 기대 속에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에도 불교TV후원회에 5백여명이 회원으로 동참,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에 뜻있는 불자들의 도움이 이어지고 있다. 불교TV는 후원회원들이 보내온 후원금을 연말에 주식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교모니터 '걸음마' 수준

불교방송이 최근 자체 모니터요원을 확충하는 등 모니터활동 재정비에 나서고 있어 이를 계기로 그동안 부진했던 교계 모니터 활동이 활발하게 재진돼야 한다는 자성의 소리가 높다.

모니터는 TV, 라디오, 케이블TV 등 방송프로그램의 홍수속에서 편견과 오해로 자칫 왜곡될 수 있는 불교관련 방송들을 비판 감시하고 걸러내는 비평적 역할을 한다.


◇보리방송모니터회 회원들이 모니터한 내용을 서로 토론하고 있다.

교계 활동 30여명 고작 광고편중·전문성 부족

교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니터요원은 보리방송모니터회, 불교자원봉사연합회 모니터회, 불교TV와 불교방송의 자체 모니터팀등 전체를 통틀어 30명에 채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90년 3월에 교계에서는 처음으로 발족한 보리방송모니터회(회장 김재일)는 방송상의 불교왜곡과 권과보도를 중점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월 2~3회에 걸친 방송 프로그램 모니터를 운영해 왔다. 그나마 체계적인 모니터활동으로 실정이 나은 편인 보리방송모니터회도 실무요원은 6명뿐이다. 서울 외에는 강원지부만이 개설돼 있어 지역방송에 대한 모니터는 전무한 상태며 30개가 넘는 공중파와 케이블TV를 모두 모니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스님) 모니터회(회장 배연파)는 현재 3명의 모니터요원이 환경과 광고분야만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불교TV 모니터팀은 10명의 모니터요원이 자체 프로그램을 시간대별로 나누어 모니터링하고 있다. 불교방송도 그동안 5명내외의 모니터요원이 활동하다가 최근 보강을 위해 방송 모니터요원을 확충했다. 가장 활발해야 할 두 팀 모두 전문성 결여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계 모니터 활동은 타종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육성해 내고 있는 모니터요원들과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뒤떨어진다. 타종교의 경우 종교적인 부분은 물론 더 나아가 시민운동으로까지 모니터활동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노리방송모니터회 김재일 회장은 "예전에 비해 불교를 다루는 각 방송사의 입장은 조심스러워졌지만 아직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종교편향성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사찰 청년회를 위주로 한 모니터팀 구성도 바람직한 방편이라고 제시했다.

강지연 기지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조건없는 삶 ②

〈특별상〉

얼마나 급경사인지 브레이크를 밟고서면 그대로 줄줄 미끄러지는 길을 더듬더듬 내려오다 S자 코스 입구에 도달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밀양 택시 표시가 붙은 차 한대가 길을 막아 서 있고 기사와 승객이 허겁지겁 뛰어왔다. 사연인즉 암자 노보살님께 약초를 가지러가는 승객이 사자평에 가자니까 택시기사는 사전지식없이 오게 되었고, 무리하게 여기까지 와서는 택시 뒷바퀴가 빠져 저 아래 바위 밑으로 굴렀다는 것이다. 비커갈 수도 없는 낭떠러지 입구에 택시가 바퀴를 잃어버린 채 길을 막고 주저앉아 있었다.

택시 승객이었던 양복차림의 중년신사가 오늘까지 부산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나더러 사자암까지 태워달라고 통사정을 했다. 중년신사의 사연이 구구절절 애처로웠다.

여름 청송 주왕산에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여학생 두명을 살려내고 익사한 모 대학 한의학과 졸업반 학생의 부친이었다. 봄저 누운 아내의 약을 구하러 사자암 노보살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는 것이다.

참으로 얄궂은 운명의 장난이다 싶었다. 엉금엉금 기면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다시 그 곳을 가자니….

덜컹덜컹 또다시 고사리 분교를 통과하여 사자암을 가는 길에 접어드니 차 불빛에 사람이 또 나타났다. 1시간여 전에 만났던 노보살님이었다.

저분이구나 싶어 차를 세우니 대뜸 삿대질을 하면서 "젊은 사람이 웬 고집이 그리 세나. 기다리라면 기다릴 것이지 왜 나이 든 사람 말을 경솔하게 들어. 부처님께서 당신 마음대로 죽도록 그냥 둘 것 같은가"라며 고함을 치셨다.

나는 말문이 막혀 소눈처럼 눈만 껌벅이고 있는데, 노보살님이 챕싸게 차에 오르시더니 이제 가자는 것이다. 내 등에는 식은 땀이 줄줄 흘러 내렸다.

암자에 도착해 노보살에게 이끌려 요사채에 들어가 차 한잔을 마셨다. 한동안 침묵하다 보살은 인연법을 이야기하며 내가 40년째 수행정진하며 기다리던 당신의 인연이라는 것이다. 한편의 동화같은 사연이 시발점이 되어 불법과 첫 인연을 맺었다.

그 후 3년을 여기저기 사찰에 다니며 불교와의 인연을 더듬었다. 암자에 기거할 때는 새벽예불에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새벽 3시반에 일어나 얼음물에 세면하고 법당에 앉아 스님의 독경소리와 목탁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길길이 날뛰던 내 영혼은 새벽예불 소리에 묻혀 점점 차분해졌다. 과거가 되살아날 때는 무릎이 저려오도록 108배를 수없이 했다.

92년 2월, 하동 쌍계사를 시작으로 속초에 있는 곤도까지 보름동안 전국 명산 대찰을 돌며 여행을 했다. 쌍계사 동화사 파계사 법주사 등 명산대찰을 찾아다니는 동안 40번째 생일을 맞았다. 저녁 8시경 숙소에 들어 잠시 누워 쉬고 있는데 이리 누워도 편하지 않고 저리 누워도 편치가 않았다. 의식은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몸을 어떻게 가눌 길이 없었다. 점점 기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기에 감전된 듯 찌릿찌릿한 느낌과 같은 상황이 점점 그 강도를 더해 갔다. 한순간 환한 밝음 속에 은백색의 한 줄기 빛이 보였다.

'아 이것이 극락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밤이 새도록 전율하느라 흘린 땀을 씻기 위해 사워를 하러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화들짝 놀라 뛰쳐 나왔다. 물위에 불꽃이 일렁이면서 극과 극이 충돌하는 것 아닌가. 타 죽을 것만 같아 뛰쳐나올 수 밖에 없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때부터 황소울음을 터뜨리며 가슴을 쥐어뜯고 눈물 핏물을 쏟아냈다. 담요는 피와 고름덩이에 짓이겨져 범벅이 되었다. 전생의 업이 쌓이고 찌들어 축적된 화기덩어리였다. 그 후 난 더이상 방황하지 않았다. 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운명이 바뀌어 새 생명을 얻은듯 했다.

하루하루 새벽의 도량송을 듣는 청량함이 감도는 듯 내 인생은 그렇게 바뀌었다.

장명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전생의 업 덩어리를 눈물·핏물로 쏟아내니 새벽 도량송처럼 청량한…


그림 · 이준석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⑱

♦ Having abandoned the objects of the five sense, the beautiful, the charming, and gone out from thy house with faith, do thou put an end ot pain.

사랑스럽고 즐거움이 되는 오욕의 대상을 버리고 믿음으로 집을 떠나 괴로움을 없애는 사람이 되라.

♦ Cultivate virtuous friends and a distant dwelling-place, secluded and quiet; be moderate in food.

선한 친구와 사귀어라. 인가를 떠나 깊숙하고 고요한 곳에서 거처하여라. 그리고 음식의 분량을 아는 사람이 되어라.

♦ Robes alms, requisites, a dwelling-place,-do not thirst after these, that thou mayest not go back to the world again.

옷과 얻은 음식과 병자를 위한 물건과 거처, 이런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려서는 안된다. 다시는 세속에 돌아가지 말라.

♦ Be subdued accoriding to the precepts, and as to the five senses, be attentive as regards thy body, and be full of disgust.

계율을 지키고 다섯 감관을 지켜 네 육신을 살펴라. 참으로 세속을 지겹게 생각하라.

♦ Avcid signs, what is pleasant and is accompanied with passion, turn thy mind undisturbed and well composed to what is not pleasant.

애욕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 생각에서 벗어나라. 육신은 부정한 것이라고 마음에 새겨두고, 마음을 가다듬어라.

♦ Cherish what is signless, leave the inclination for pride; then by sacrificing thy pride thou shalt wander calm.

마음에 자취를 두지 말라. 마음에 도사린 오만을 버려라. 오만을 없앤 너는 마음 편안한 나날을 보내리라.

*secluded(a) 외딴, 세상에서 격리된
*alms(n) 구호품
*requisites(a) 필수품
*subdued(a) 억제된
*precept(n) 계율 규칙
*compose(v) 〈마음을〉 가라앉히다

살아있는 法語, 살아있는 佛教史料!

96년판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발간

이천만 불자 여러분의 참 대변지, 수행의 길잡이인 '현대불교신문'이 1호에 이어 합본 '96년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주옥같은 법문,
불교의 근본 원리를 속시원히 파헤친 기획물들, 생생한 불교사의 발자취…
이 모든 것들을 손상 없이 잘 간직하고 싶었던 분들,
매주마다 찾아오는 '현대불교신문'을 정말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심하셨던 분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은 지금 곧 연락 주십시오. 즉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합본집('96년판) : 제 60호(1996. 1. 3) 제108호(1996.12.25)
■ 가격 : 50,000원(발송비 별도)
■ 구입신청 :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전화 : (02)737-8881 팩스 : (02)737-0697

한정된 수량 관계로 선착순 판매 합니다.

(주)현대불교신문사 (代)737-8881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개인소장용으로 제작 · 보급되는 반가사유상!
우리문화재 사랑의 시작입니다.



■ 작가: 이진형 (불교조각원원장)

- 30여년간 불교조각에 전념해온 지정문화재 조각기능 제68호
불교조각원 이진형 원장이 심혈을 기울여 축소제작한 작품으로 고전미와 현대적 감각을 동시에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 약력
· '81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총무원장상)
· '86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특별상)
· '89~'95 대한민국 전통문화재 조각회원전 4회
· 제1회 불교조각 개인전 개최 (1995년)
·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추천작가

현재 : 전통문화재 기능인협회 이사

■ 주문시 오동나무 박스로 완전포장하여 판매 및 발송해 드립니다.
■ 본 제품은 크기 · 형태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
※ 개금을 원하시는 경우 개금비가 추가됩니다.

규격(폭×높이) \ 형태	골동품형(左), 코팅형(右)
11cm × 26.5cm	230,000원
16cm × 40.5cm	350,000원

■ 지역 구입 문의
안산 (0345)411-4580 목포 (0631)281-2534 부산 (051)634-5114 광주 (062)375-9986
속초 (0392)636-3923 인천 (032)461-3461 강릉 (0391)651-9317 영주 (0572)34-3429
대구 (053)768-8008 대전 (042)625-1080 공주 (0416)55-0020
마산 · 창원 (0551)84-0735 진주 (0591)747-0106

● 기획 · 보급 :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32-1522, 737-8881 팩스 : (02)737-0697 ●

